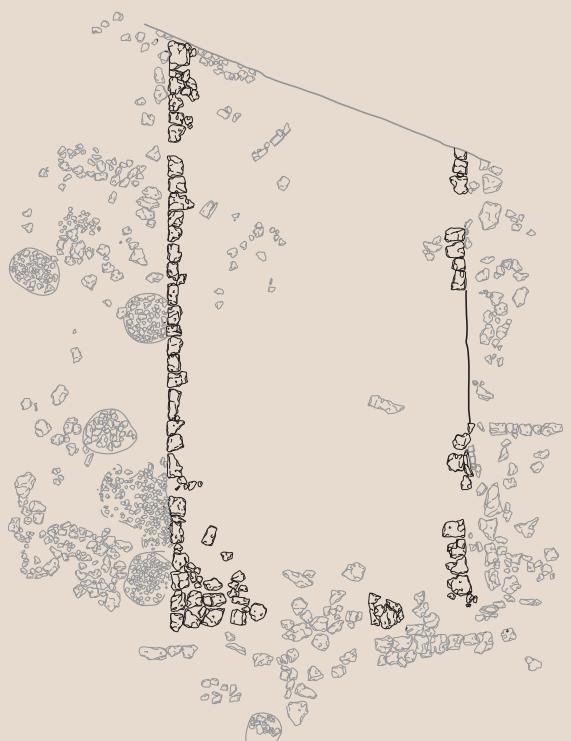




부 록

문헌기록과 풍수지리에 나타난 정의현 관아(旌義縣官衙)



문현기록과 풍수지리에 나타난 정의현 관아(旌義縣官衙)

- 객사(客舍)와 동헌(東軒)을 중심으로 -

1. 정의현(旌義縣)의 정비와 읍치(邑治)의 이전(移轉)

태종 16년(1416) 5월 6일에 제주도안무사(濟州都安撫使) 오식(吳湜)과 전 판관(前判官) 장합(張合) 등이 그 땅의 업무 규정[事宜]을 올렸다. 곧 태종 16년(1416) 5월 6일에 종래의 17현을 제주 본읍(濟州本邑)과 대정(大靜), 정의(旌義) 두 현(兩縣)으로 통합 및 정비를 하였다. 이를테면 태종 16년(1416) 5월 16일에 제주 본읍에는 동도의 신촌현 · 함덕현 · 김녕현과 서도의 귀일현 · 고내현 · 애월현 · 괴자현 · 귀덕현 · 명월현을 소속시켰다. 동도의 현감(縣監)은 정의현(旌義縣)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 고을[本邑]로 삼아 토산현 · 호아현 · 홍로현 3현을 소속시키고 서도의 현감은 대정현(大靜縣)을 본읍으로 삼아 예래현 · 차귀현 2현을 소속시켰다¹⁾. 태종 16년(1416) 당시에 정의현 고을[邑治]은 현 성산읍 고성리(古城里)에 있는 옛 정의현성(古旌義縣城)에 있었다. 하지만 옛 정의현성을 본읍으로 삼으면 호아현(狐兒縣) · 홍로현(洪爐縣)은 서로의 거리가 3식(1息: 30리, 곧 90리) 남짓하여 그 인민(人民)의 왕래, 공무의 지대(支待)²⁾와 목장(牧場)을 고찰하는 등의 일에 관한 폐단이 실로 적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마땅히 중앙에 있는 정의(旌義) 땅의 서쪽에 있는 마을[西村]인 진사(眞舍)와 토산(兔山) 땅 중에서 지리(地利)³⁾가 대체로 합당한 곳에다 읍성(邑城)을 배치하여 방어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은 그대로 따랐다⁴⁾. 더욱이 “옛 정의현성 안에 샘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큰 산[大水山峯-필자주]이 내리눌러 있어 화살과 돌이 미치는 바이기에 정의현 사람 전(前) 부정(副正) 최홍우(崔興雨) 등 1백 38인이 진사리(晉舍里)에 옮기기를 청한다고” 하니 의정부와 각 조(各曹)에서 “사람을 보내어 살펴 본 뒤에 다시 의논하자”고 청하였다⁵⁾. 바꾸어 말하면 옛 정의현성을 고을로 삼으면 호아현 · 홍로현은 서로의 거리가 90리로서 인민의 왕래, 공무의 지대와 목장을 고찰하는 등의 일에 있어서 폐단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옛 정의현성 안에 샘물이 없고 대수산봉이 내리눌러 있어 화살과 돌이 미치는 곳이기도 하였다. 또한 옛 정의현성 땅은 우도(牛島)에 가까워서 새벽과 밤에 고각(鼓角) 소리가 들리고 큰 바람이 여러 번 불어서 곡식은 흉년들 뿐만 아니라 왜적(倭賊)이 번갈아 침노(侵擄)하기도 했다⁶⁾.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옛 정의현성에서 고을[邑治]을 진사리(晉舍里)로 옮겨 쌓은 때가 세종 4년(1422) 12월 23일⁷⁾이었다. 이를테면 지금 도안무사(都按撫使) 정상국(鄭相國) 간(幹)이 순시하여 진사리에 이르러 말하기를 ‘여기에 현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정의현감

1) 『太宗實錄』太宗 十六年 五月 丁酉條.

2) 지대(支待)는 공적인 일로 지방에 나간 고관의 먹을 것과 쓸 물품을 그 지방 관아에서 바라지하던 일이다.

3) 지리(地利)는 땅의 형세에 따라 얻는 이로움이나 편리함이다. 특히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땅의 생김새가 험하고 터가 단단하여야 이롭다고 한다.

4) 『太宗實錄』太宗 十七年 五月 甲辰條.

5) 『世宗實錄』世宗 四年 十一月 壬戌條.

6) 『新增東國輿地勝覽』第三十八卷 「全羅道 · 旌義縣, 古跡 - 古旌義縣」條.

7) 『世宗實錄』世宗 四年 十二月 乙巳條.

[太守] 송섬(宋暹)이 백성들에게 물어보니 “백성들이 모두 기뻐서 좋았다”. 이에 임금께 알려 병부(兵部)의 공문(公文)에 의하여 제주 세 고을[濟州三邑] 백성에게 육체적 힘을 들여서 하는 일을 시키고 제주목(濟州牧)의 판관(判官) 최치렴(崔致廉)에게 명하여 감독하게 하였다. 최공(崔公)이 후하고 박한 것을 헤아리고 높고 낮은 것을 따져 인부 쓰는 것을 계산할 뿐만 아니라 일의 기한을 헤아려 엄하게 명령을 시행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보았다. 돌담의 지붕[弓家]을 높이고 삼문(三門)을 세우니 성터는 2천 5백 20자이고 높이가 13자이다. 세종 5년(1423) 정월 9일에 시작하여 13일에 끝났으니 곧 5일만에 공정이 매우 신속하였다⁸⁾.

한편, 조선 시대의 수령(守令)의 임무는 수령 칠사(守令七事)로 요약할 수 있다. 수령 칠사는 수령이 지방행정을 펴나감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일곱 가지 심득(心得)으로서 수령이 지켜야 하는 의무규정일 뿐만 아니라 수령 전최(殿最)의 법으로서 양리(良吏) 내지 청백리(清白吏)를 배출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①농업 진흥[農桑盛], ②학교 진흥[學校興], ③공정한 재판[詞訟簡], ④치안 확보[奸猾息], ⑤군대 정비[軍政修], ⑥인구 증식[戶口增], ⑦공정한 부역과 세금징수[賦役均]이다. 바꾸어 말하면 ①그 지역의 농사를 얼마만큼 잘 짓게 하느냐, 뽕나무를 무성하게 했느냐[農桑盛], ②얼마나 인구를 늘렸느냐[戶口增], ③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켰느냐[學校興], 그 지역에서 과거합격자가 많이 나오면 수령이 상을 받고, 그 아들이 합격하면 어머니가 상을 받았다. ④얼마나 군 훈련을 잘 시켰느냐[軍政修], ⑤부역, 얼마나 일을 고르게 잘 시켰느냐[賦役均], ⑥소송을 얼마나 최소화시켰느냐[詞訟簡], ⑦간사한 세력들을 없애느냐[奸猾息] 하는 일곱 가지였다. 따라서 정의현감은 수령 칠사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현 백성들이 갖은 왜구의 침입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인 진사리로 고을을 선정하여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먼저 진사리에 돌담 지붕[弓家]을 높이고 삼문(三門)을 세우니 성터는 2천 5백 20자이고 높이가 13자인 정의읍성(旌義邑城)을 만들었다.

게다가 여말선초 시기 높지 않은 산 내지 구릉에 위치한 치소(治所)가 1420년대에 이르러 평지로 이동하는 속에서 다수의 군현들은 풍수적 형국을 갖춘 읍치(邑治) 구조를 조영하거나 그것을 쓰고자 하였다. 이는 바로 지방군현의 읍치를 도읍(都邑)과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였다. 진산(鎮山)이 읍기(邑基)의 좌향(坐向)과 일치하면서 권위적 경관 이미지를 형성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였다⁹⁾. 더욱이 1430년 이후에는 읍성의 입지에 풍수적 논리가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비치고 있다. 특히 1425년 이후에 새로 입지했거나 신설된 군현의 새로운 읍치는 조선시대 전형적인 입지형태가 대부분이었다¹⁰⁾. 따라서 세종 5년(1423) 정월 9일에 시작하여 13일에 정의읍성을 공정할 때에 정의읍성의 입지에 풍수적 논리가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정의읍성의 배후(背後)에 있는 영주산(瀛洲山)을 진산(鎮山)으로 두고 앞에 흐르는 내[川]인 천미천(川尾川)을 풍수지리상의 요지에 입지하였다. 이처럼 영주산(瀛洲山)을 진산(鎮山)으로 한 것은 정의읍성 조성 당시에 중앙집권적 통치이념을 강화하기 위해 왕권에 대한 위계질서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쪽에 있는 산을 두고 진산으로 삼았다. 곧 한양 도읍을 향한 위계질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행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다. 더구나 영주산을 진산으로 삼은 것은 정의읍성에서 보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주변산들보다 가장 높기 때문에 고을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으로 보이기 위하여 그러던 것으로 보인다.

8) 『新增東國輿地勝覽』第三十八卷「全羅道·旌義縣, 城郭·邑城」條.

9) 최종석, 2008, 「조선시기 鎮山의 특징과 그 의미 - 읍치공간 구조의 전환의 관점에서 -」『朝鮮時代史學報』45, 21~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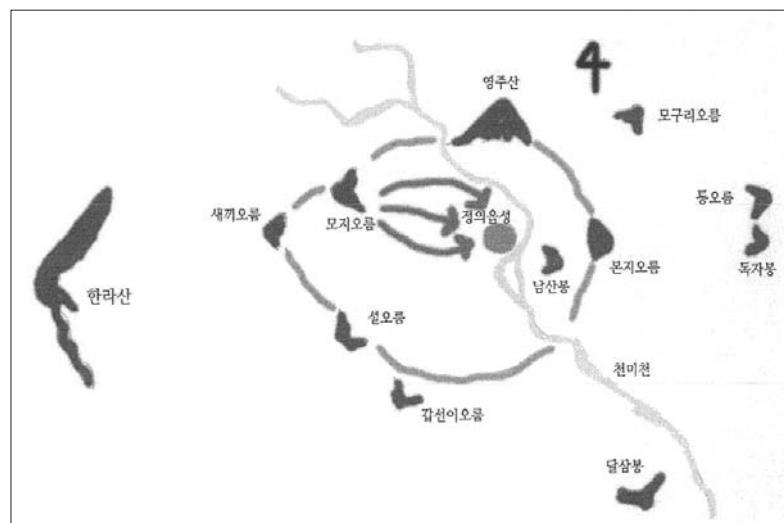
10) 이기봉·홍금수, 2007, 「조선시대 경상도 읍치 입지의 다양성과 전형성 - 고려말 이후 입지경향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제13권 제3호, 331~337쪽.

정의읍성의 내부구조는 도성(都城)을 전형으로 하여 대개 북문(北門)을 두지 않고 동서문(東西門)과 남문(南門)을 두었다. 이 세 방향의 문을 통하여 동서 방향과 남쪽으로 도로가 나게 되고 객사(客舍)와 관아(官衙)가 대개 동서 도로와 남쪽 방향 도로가 'T' 자형을 이루면서 만나는 삼거리 북쪽의 고을 중심부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이를테면 동문으로 서문까지 도로의 중앙에는 객사가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객사에서 남문까지는 남쪽으로 도로가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객사는 읍치공간에서 국가적 지배질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경관지점(읍치공간의 중앙적 위치) 및 읍치공간의 주축선상(主軸線上, 幹線路)에 배치되며 건축물도 북좌남향(北坐南向)하는 정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객사는 남향이라는 절대향(絕對向)을 고집하려는 경향도 나타난다.

동현(東軒)은 객사보다 차하위(次下位)의 위계를 지니는 건축물이지만 지방통치 권력으로서의 중심성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경관성 지점에 선택하게 된다. 특히 지방관아는 사적공간인 내아(內衙)가 공존하기 때문에 상주(常住) 기능을 감안하여 비교적 객사보다는 주거에 좋은 환경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동현(衙舍)은 객사보다 풍수적 입지가 더 좋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객사는 남향하여 배치되는데 일반적으로 아사(衙舍)가 풍수적인 중심지에 위치시키고 지세향(地勢向) 혹은 상대향(相對向)으로 배치되고 있다¹¹⁾.

바꾸어 말하면 동현은 객사보다 차하위(次下位)의 위계를 지닌 건축물이지만 지방통치 권력으로서 중심성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경관상의 지점에 선택된다. 정의현 동현은 모지오름[追止岳]¹²⁾을 배산(背山)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정면(正面)으로 보이는 산(案帶)¹³⁾으로는 남산봉(南山峯)¹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동현(東軒)과는 약 2.8km[7里] 거리의 뒤편에 모지오름이 있다. 따라서 정의현 동현은 모지오름의 산줄기가 배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면으로 남산봉에 보이기 위해서는 좌향(坐向)¹⁵⁾을 동향(東向)으로 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것이 다음의 정의읍성 주변 산세도이다.

삽도14)의 정의읍성 산세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지오름의 산줄기가 정의읍성 곧 정의현 동현으로 용맥이 이어지고 정면으



삽도 14. 정의읍성 주변의 산세도(자료 : 김동섭, 2009, 「濟州 旌義邑城의 風水地理的 解析」,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7쪽 인용)

11) 최원석, 2004, 「경상도邑治 경관의 역사지리학적 복원에 관한 연구 : 南海邑을 시례로」『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3호, 34쪽 ; 최원석, 2008, 「조선시대 南海 邑治 경관의 역사지리학적 고찰 및 복원」『경남문화연구』 29집,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96쪽.

12) 追止岳은 '모지오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지오름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기생화산이다. 해발 305.8m인 기생화산으로 분화구는 북동쪽으로 벌어진 말굽형이다.

13) 案帶는 바라보는 산 또는 봉우리이다. 지형의 체계 특히 산맥과 형국의 생김새가 건축배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건물마다 고유한 안대(案帶)를 가지는데 이 안대의 위치와 형상에 따라 건물의 배치가 결정된다.

14) 著者未詳, 1785년 2월 이후, 『旌義縣誌』(奎10796)「山川 - 漢拏山」,

無惡獸 東幹逶迤 而來開場于追止岳 自庚兌連脉爲邑基 … 下略 ….

15) 좌향(坐向)은 집터 따위의 등진 방위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방향이다.

로 남산봉에 이르고 있다. 곧 서쪽인 모지오름에서 동향(東向)으로 좌향을 하여 정의현 동현과 남산봉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정의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영주산이 측면을 통과하는 한라산 서북쪽에서 발원한 천미천이 동남쪽으로 흘러 남산봉 앞에서 읍성을 휘감아 돌아나가고 있다. 이를테면 정의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영주산, 서북쪽에는 모지오름, 서쪽에는 장자오름, 서남쪽에는 설오름, 남쪽에는 갑선이와 아슴선이 오름, 동남쪽에는 남산봉, 동쪽에는 본지오름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에 따라 장풍이 잘되며 천미천으로 흐르는 물은 구곡수(九曲水)¹⁶⁾로 환포(環抱)¹⁷⁾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읍성으로 내려온 용맥(龍脈)을 강하게 응집시키고 있는 지세로서 중출맥(中出脈) 중앙이 마치 사람의 손등처럼 좌우가 균형이 잡힌 볼록한 형태의 분지형을 이루고 있다¹⁸⁾.

요컨대 시각적(視覺的) 대상으로서 산을 면(面)한 좌향(坐向)은 조영물(造營物)로부터 조망(眺望) 대상인 산까지 시각적 축(軸)을 형성한다. 바꾸어 말하면 건축물의 좌향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산을 채택함으로서 건물 내의 인간과 전면(前面)의 산이 시각적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이다. 시각적 연결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망 대상으로서 산만이 아니라 그 산에 대해 관념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¹⁹⁾.

2. 1498~1506년경 정의현 관청(官舍)의 중수(重修)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세종 4년(1422) 12월부터 세종 5년(1423) 정월 사이에 정의현의 관청 건물[解字]은 진사리에 창건(創建)하였다. 그러다가 76년 내지 83년 이후인 연산군 4년(1498)부터 중종 즉위년(1506) 사이에 정의현 관청 건물은 모두 고쳐 새로 지었다[重新]. 이를테면 '정의현의 관청 건물은 창건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게다가 태풍[颶風]이 불고 폭우(暴雨)가 쏟아지니 마룻대와 들보[棟樑], 서까래와 기둥[椽柱]은 썩어 부러지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 곧 오래되고 낡아서 허물어졌다. 지금 현감[名宰] 김종준(金侯從)이 부임해 와서 정의현을 다스리다가 임기가 만료되어 갈 때에 관아 건물을 돌아다보며 항상 탄식하였다. 김종준 현감이 정의 고을을 맡아 있으면서 매양 관청의 건물을 바라볼 때마다 "훼손된 건물은 수리하고 오래된 건물을 새로 짓고자 한 지 오래였다. 오늘은 그럭저럭 지내면서 수선(修繕)하는 일을 뒷날에 미루는 것이 과연 될 법이나 한 일이겠는가. 내가 근심하는 것은 이것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양가거족(良家巨族)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현감의 뜻을 받들어서 차라리 모두 고쳐 새로 지을지언정[盡改而新之] 어찌 보수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또 한 달이 되지 아니하여 관아(官衙)로 동서(東西)의 객사(客舍), 중대청(中大廳)과 좌우의 부속 건물(左右附舍), 중대문·외대문(中外大門) 및 남장랑(南長廊), 아(衙)의 침실과 부속건물(寢室附舍), 동현(東軒)²⁰⁾·서현(東西兩軒)의 대청(大廳²¹⁾)과 좌우의 협실(左右俠室) 및 남행랑(南行廊)이 모두 약간의 건물들은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으로 지어졌다.

16) 구곡수(九曲水)는 물이 '玄' 자처럼 혈장을 향해 구불구불 굽어 들어오는 물이다.

17) 환포(環抱)는 사방으로 둘러싼 것이다.

18) 김동섭, 2009, 前揭書, 76~77쪽.

19) 林東日, 1996, 「朝鮮時代 官衙의 立地와 坐向을 통해 본 都·邑의 造營論理 研究」, 漢陽大學校 博士學位論文, 66쪽.

20) 동현(東軒)은 조선시대 지방관들이 정무를 집행하던 관아 건물이다. 지방관아는 중앙에 담과 정문을 내어 각종 집무실과 창고를 두고 주변에는 객사·향교 등 부속건물을 둔다. 정문 안에 다시 담을 둘러 수령이 직접 공무를 수행하는 외아(外衙)와 수령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내아(內衙)를 두고 외·내아는 다시 담이나 행랑으로 구분한다. 동현이란 명칭은 외아가 내아의 동쪽에 있는 데서 연유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동현이 그냥 관아를 지칭하는 말이 되어 외동현·내동현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21) 大廳은 관아(官衙)의 집체 가운데에 있는 마루이다. 당(堂). 대청(大廳)마루.

다. 건물들의 높고 낮음이며 넓고 좁음은 법도에 맞지 않음이 없이 후련히 트이고 우뚝 솟았다. 예전의 건물에 비하면 그 풍후한 품세가 굉장히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사치스럽지도 않았다. 관아(官衙:官舍)와 공아(公衙)는 모두 관자와 벽돌로 보수하고 섬돌을 만들지 않았으며 담장을 둘렀으니 건물의 양식을 갖춘 셈이다²²⁾ 라 하였다.

이를테면 연산군 4년(1498)부터 중종 즉위년(1506) 사이에 김종준(金從俊) 정의현감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 한 달 동안에 관아로는 동서의 객사, 중대청과 좌우의 부속 건물, 중대문·외대문 및 남장랑, 아의 침실과 부속건물, 동현·서현의 대청 및 좌우의 협실과 남행랑 모두 약간의 건물들은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으로 지어졌다. 더욱이 정의현의 객사는 가운데에 대청이 있으며 동쪽과 서쪽에는 객지의 숙소(翼舍)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좌우에 부속 건물 및 중대문·외대문과 남쪽에는 좌우로 죽 벌여 있는 방이 있었다. 특히 객사의 양쪽 방[翼舍]은 지방에 출장 중인 중앙 관리의 숙소로 사용되며 대청(大廳)에는 국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설치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궁궐을 향하여 배례를 하였다. 객사의 이러한 기능은 관아(官衙)에 대해 왕권(王權)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동현(東軒) 안에는 침실(寢室)과 부속건물 및 서현(西軒) 대청(大廳)으로 이루어진 정의현감의 살림집인 내아(內衙)와 동현(東軒) 대청(大廳)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좌우에는 안방에 딸린 작은방 및 남쪽에는 긴 집채로 이루어진 건물이 있었다. 요컨대 객사는 그 대상을 중앙정부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현이 정의현감의 업무 장소이며 서현이라고 불리는 살림집인 내아(內衙)로서 모두 정의현감의 전용 시설이었다. 특히 배산(背山)의 정위 형식(定位形式)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건축물(建築物) 뒤로 산(山)을 의지하고 있다. 정의현 동현의 경우에 뒤로는 모지오름(毛止岳)을 등지고[背山] 있다. 배산으로서 주산(主山)²³⁾을 도입하는 것은 곧 동현터가 그 고을의 중심이며 대표하는 지점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갖고 있다.

22) 洪裕孫, 『篠叢遺稿』 上「旌義官舍重新記」,

夫屋宇之能以蔽風庇雨者 蓋由於久而新之 弊而葺之也 不新之 不葺之 而至於悠久不毀者 鮮矣 縣之廨宇 創立年久 加以颶風之起 顛雨之發 豈無其時 則棟樑也椽柱也 其有不爲腐折者耶 頽而至於圮者 無足怪焉 今明宰金侯從俊 來莅于縣 臨其官滿 顧瞻公宇 常咨嗟 意若有不平焉 鄉中良家巨族之仕於衙會者 一日齊伏 奉問厥由 侯曰 余備官爾邑 每見館宇 欲理其毀而新其舊者 久矣 因循於今日 而貽繙於後日 其可乎 吾所憂者是已 咸曰 某等敢不承明府之意耶 寧盡改而新之 豈不修之補之而已哉 仍建自白結構不難之狀 卽爭先出其耕牛 入山伐木曳下 不數日而作舍良材 已積于公庭之外 如丘陵焉 侯乃出庫藏贏餘財穀 缺其立番之卒 官籍之工 斧者鋸者 刀者鑿者 執規執矩 執準執繩 繩然環立而共勸竭力 又不閱月 而官之東西客舍中大廳 左右附舍 中外大門 南長廊 衙之寢室附舍 東西兩軒大廳 左右俠室 南行廊總若干間 兌輪而成 高低闊狹而無不中度 故如也 譬如也 視之舊宇 其豐勢宏壯 而亦不侈於衆觀觀也 其官舍公衙 皆補之板壁 不以爲砌 繚以爲垣 備乎制也 編氓安寢 匹夫嫠婦 不知夫官家工役之起者 爲惜其民力也 功訖而又集諸輸力胄族父老 第行而坐之 咨以脂膏之肉 飲以香冽之酒者 宴於其落成也 噫 視公家之殘毀 而恬然不以爲憂 且曰 公務煩而不暇修也 布穀匱而未能理也 姑置之以俟後來云者 寧不有慙於吾侯也歟 侯造官舍如己之家 接黎元無異赤子 非慈祥明敏之才能如是乎 侯少年取虎科 登于朝著 歷對馬之燕都 爲將而征靺鞨之部落 分憂而覽毛羅之故國 可謂得天下之大觀矣 如是而識不足才不俊者 未之有也 重新其官 缺特餘事耳 侯之茂績貽于縣而昭然不滅 已銘於邑人之口 不可假以文字者 亦宜也 其餘縣建置沿革 已著勝覽 不爲贅云。

고창석, 2009, 「홍유손의 정의관사중신기」『표선면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일신인쇄, 143~146쪽.

23) 읍기(邑基) 경관의 배후에 위치하고 있는 주산(主山) 요소는 풍수적 입지의 내룡(來龍) 조건을 확인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 지표가 된다. 주산(主山)에서 혈(穴)에 이르는 용맥(龍脈)이 혈증(穴證)을 갖추고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내룡(來龍) 조건이 된다. 혈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하나가 내룡(來龍)이 혈에 이를 즈음에 둔덕으로 맷히는 마디 모양을 형성하는 것이다.

3. 『탐라지(耽羅志)』와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그리고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 나타난 객사와 동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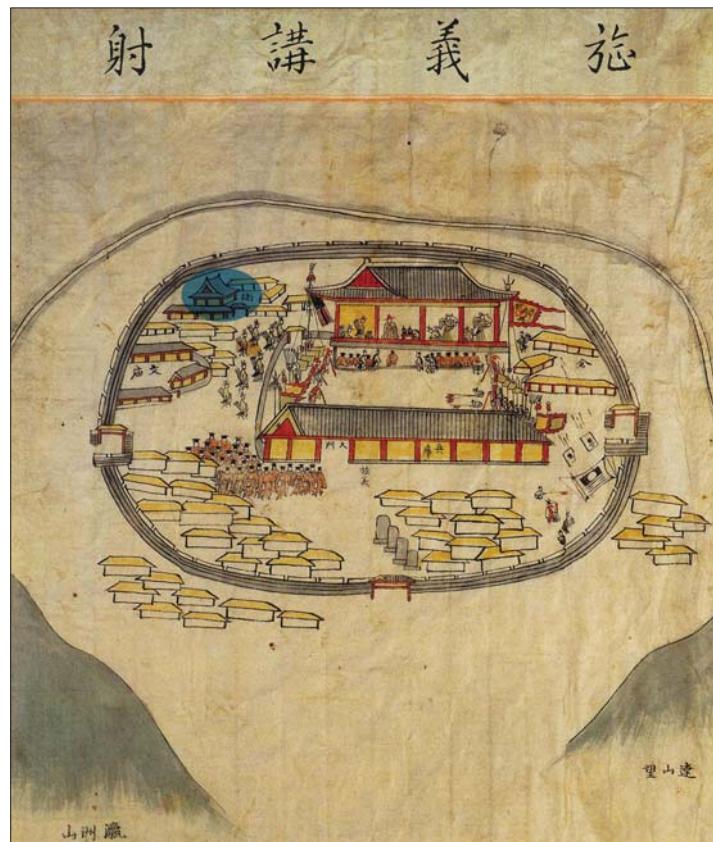
146년 후 효종 4년(1653)에 이원진(李元鎮)의 『탐라지(耽羅志)』 「정의현(旌義縣)-궁실(宮室)」에는 객관 동헌(客館 東軒) · 아(衙) · 관청(官廳)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25)와 같다.

표25) 『탐라지』『정의현-궁실』조에 나타난 궁실 이름과 위치

궁실	궁 실 이 름	위 치
	객관 동헌(客館 東軒)	
	아(衙)	객관(客館 : 객사) 북쪽에 있다
	관청(官廳)	아(衙)의 남쪽에 있다

표25)의 『탐라지』『정의현 - 궁실』조에 나타난 궁실 이름과 위치에 의하면 효종 4년(1652)에 이르러서 아(衙 : 東軒)의 건물은 객사(客舍) 북쪽에 있다. 정의읍성의 동문으로부터 서문까지 이르는 중앙 지점에 객사(客舍)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객사의 북쪽에는 동헌(東軒 : 衙)이 있었다. 아(衙 : 東軒)의 남쪽에는 관청(官廳)이 있다. 이 관청은 주방(廚房)으로 보이는데 수령과 그 가족들의 식생활 및 공사 빈객의 접대와 각종 잔치에 필요한 물품의 조달을 하였다.

또한 50년 후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정의조점(旌義操點)」 · 「정의양로(旌義養老)」 · 「정의강사(旌義講射)」에 의하면 아(衙) · 객관(客館) · 문묘(文廟) · 병고(兵庫) · 창(倉) · 비(碑)군(群) 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는



삽도 15. 『耽羅巡歷圖』「旌義講射」에 나타난 旌義縣 東軒[衙]의 坐向

24) 『탐라순력도』상의 건물묘사에 있어서 주 건물은 정면에서 보되 시선을 약간 우측에서 본 것처럼 표현하였다. 행사장면을 비롯한 회랑과 담장 및 기타 건물은 부감법 또는 반부감법의 눈높이와 함께 좌우 편리한대로 시각 방향을 달리하여 그려져 있다. 『탐라순력도』에서는 건물지붕의 기와들과 치미 · 두공 등의 묘사가 단순하게 처리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입체감의 표현이 결핍되어 있어 담장이나 회랑의 경우 무대 위의 세트 장치물을 보는 듯하다. 그러나 「제주전최(濟州殿最)」의 화면상단을 타원형을 이룬 성곽으로 구획을 짓고 관아건물을 대각선으로 포치하고 중간의 공간에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17세기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건물들을 평행투시도법으로 나타내고 그 명칭을 일일이 기입한 양상은 18세기에 대두되는 새로운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洪善杓, 1994, 『『耽羅巡歷圖』의 기록화적 의의와 특징』『耽羅巡歷圖』, 濟州市, 109쪽.

객관²⁴⁾의 북쪽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문묘가 서남쪽에 나타나고 있다. 아는 동현(東軒)을 나타내는 것이며 문묘도 향교(鄉校)를 드러내고 있다. 또 창(倉)은 객사의 동남쪽에 있으며 병고가 객사의 남동쪽에 있다. 창은 사창(司倉) 등 창고(倉庫)를 드러내는 것이며 병고도 군기고(軍器庫)를 나타내고 있다. 비(碑) 군(群)은 남문에서 객사로 가는 길의 바로 앞에 나타나고 있다. 비(碑)는 선정비(善政碑)이나 추사비(追思碑)로 추정된다. 이를테면 남문 안에 전 현감 이방좌 선정비(前縣監李邦佐善政碑)가 있었음²⁵⁾을 김상현(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

더구나 『탐라순력도』「정의조점」·「정의양로」·「정의강사」에 나타난 위치도 『탐라지』에 나타난 궁실 이름과 위치 및 『탐라지』에 나타난 창고 이름과 위치가 같았음을 파악 할 수 있다. 특히 『탐라순력도』「정의양로」 및 「정의강사」에 나타난 동현(東軒)의 방향은 동향(東向)임을 파악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탐라순력도』「제주조점」에 나타난 관덕정의 모습에도 같은 모양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용마루로부터 목기연까지에 있는 ‘방풍관’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왕권의 상징인 객사 건물[남향]과 다른 점을 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왕권을 대행하는 지방관의 공간인 동현이 동향을 해야 권위적 건물의 이미지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63년 후 영조 41년(1765)부터 영조 42년(1766) 사이에 윤시동(尹蓍東)이 편찬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제4(第四) 「정의현(旌義縣) - 관우(館宇)」조에는 객사동현(客舍東軒) · 아(衙) · 관청(官廳)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26)과 같다.

표26) 『증보탐라지』「정의현 - 관우」조에 나타난 정의현의 관청 이름과 위치

관우(館宇)	관청 이름	위치와 내용
	객사동현(客舍東軒)	정의 읍성의 중앙에 있다[在城中央].
	아(衙)	객관(客館)의 북쪽에 있으며 근민현(近民軒)이라 하는데 곧 동현(東軒)이다[在客館北 有近民軒 卽東軒].
	관청(官廳)	아(衙)의 남쪽에 있다[在衙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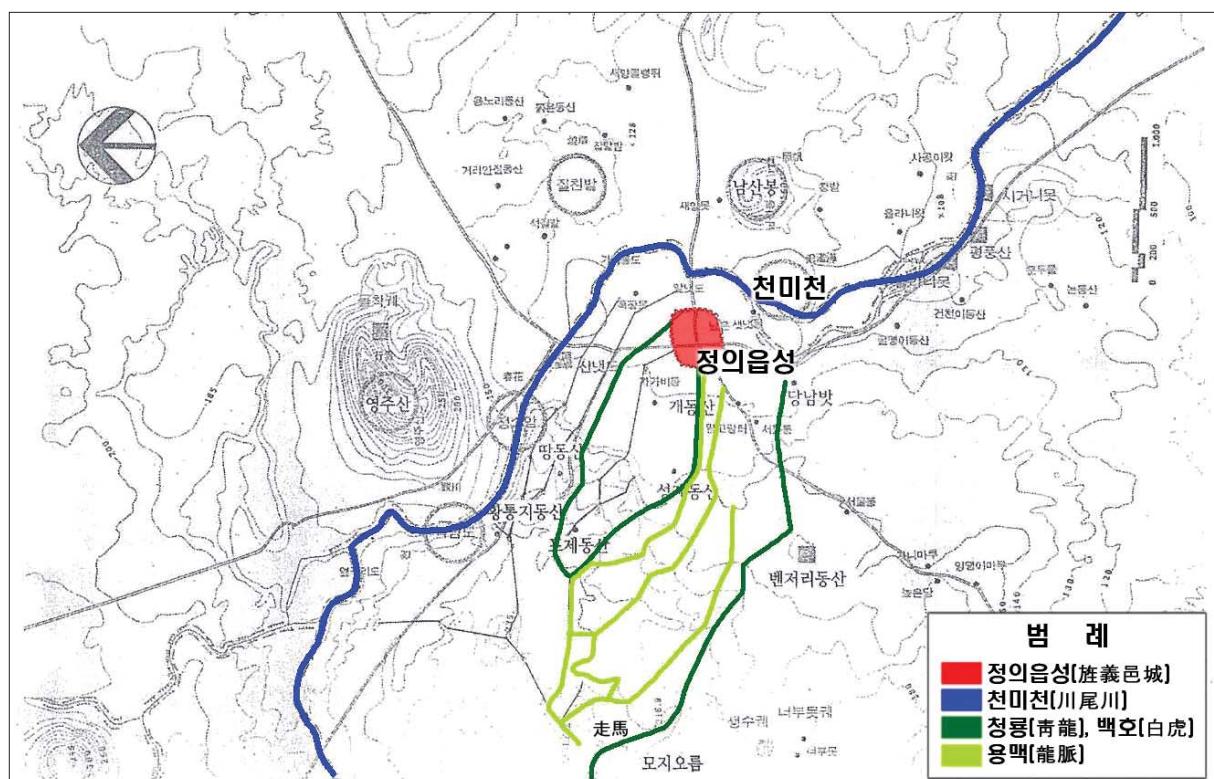
표26)의 『증보탐라지』「정의현 - 관우」조에 나타난 정의현의 관청 이름과 위치에 의하면 객사동현은 정의 읍성의 중앙에 있다. 또 아는 객관의 북쪽에 있으며 근민현(近民軒)이라 하는데 곧 동현이다. 이를테면 백성을 사랑하여 가까이 대한다는 뜻으로 ‘근민현’이라 한 것이다. 관청(官廳)은 동현의 남쪽에 있는데 주방(廚房)을 뜻한다. 특히 『증보탐라지』는 『탐라지』(이원진)의 내용에 ‘추가(增)’와 ‘보충(補)’ 한 것이다. 곧 『탐라지』(이원진)의 내용에 ‘추가’ 한 것은 본문 속에 있는 항목과 내용 중에 ‘증(增)’으로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탐라지』에서 설명을 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한 곳에는 ‘보(補)’로 표시하였다.

삽도8)의 『增補耽羅誌』「旌義縣-館宇」에 나타난 旌義縣의 官廳 이름과 위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조 41년(1765)부터 영조 42년(1766) 사이에 편찬한 『증보탐라지』에 나타난 정의현의 관우(館宇)로서 아(衙)는 근민현(近民軒)이며 동현(東軒)이었다.

한편 조선시대 읍치(邑治)의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자연환경(災害), 식수(食水), 군사적 방어(防禦), 교통 여건, 정치 · 사회적 조건 등 다양한 인자(因子)가 있다. 하지만 그 중에 풍수적(風水的) 요인(要因)도 영향을 끼쳤다. 조선시대 고을 경관에서 발견되는 지역적인 풍수 입지 국면 및 요소에는 내용(來

25) 金尙憲, 1669년 직후, 『南槎錄』卷之三 十月 十四日,
戊寅自曉終日雨 夕乍晴 … 中略 … 城南門內 有前縣監李邦佐善政碑.

龍)²⁶⁾, 장풍(藏風)²⁷⁾, 득수(得水)²⁸⁾라는 풍수 원리의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읍기(邑基)²⁹⁾로 이르는 풍수적 내룡 요소이다. 풍수 국면의 내룡 요소에는 세 가지 정도로 세분해서 관찰이 가능하다. 우선 가시적 지형 형태는 근(近) 조산(祖山)에서 읍기 배후의 주산(主山, 혹은 진산(鎮山)으로 이어져서 혈(穴, 邑基)로 내맥(來脈)의 연결성이 보인다. 풍수적 입지 국면을 구성하고 있는 조선시대 고을[邑治]의 지형 경관은 내룡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읍기를 중심으로 한 장풍적(藏風的) 요소도 아울러 갖추고 있다. 풍수적 장풍(藏風)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산(主山, 玄武)과 객산(客山, 朝案 혹은 朱雀)이 앞뒤로 서로 마주하고 있는(主客相對) 국면과 읍기를 에워싸고 있는 사신사(四神砂)³⁰⁾ 국면을 갖추어 한다³¹⁾. 또한 풍수적 입지 국면을 구성하고 있는 조선시대 고을의 지형 경관은 자연적 요소로서 내룡 및 장풍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읍기를 중심으로 앞이나 혹은 끝에 끼고 있는 하천(河川, 面水 혹은 帶水)과 읍기를 감도는 하천(環抱水), 읍기 좌우로 갈라져서 흐르던 물이 수구부(水口部)에서 합치는 하천(合水) 등은 풍수적 입지 국면이 반영된 득수(得水)의 조건인 지표로 볼 수 있다.



삽도 16. 정의읍성 용맥의 흐름(자료 : 김동섭, 2009, 前揭書, 79쪽에서 인용)

26) 내룡(來龍)은 풍수(風水) 지리(地理)에 쓰는 말로 종산(宗山)에서 내려온 산줄기이다.

27) 장풍(藏風)은 바람을 막는 것이 아닌 바람(=氣)을 감추고 가두어두니 기(氣)가 흐르되 머물러야 된다.

28) 득수(得水)는 물을 얻는 것이 아닌 모이되 흘러야 된다.

29) 邑基는 주(州) · 부(府) · 군(郡) · 현(縣)의 관청(官廳)이 있던 곳이다. 곧 邑基는 고을[邑]의 터이다.

30) 사신사(四神砂)는 혈장(穴場)을 수호(守護)하는 네 가지의 地神(현무(玄武) · 청룡(青龍) · 백호(白虎) · 주작(朱雀))으로서 동서남북 사방을 수호하는 신(神)이다. 곧 사신사란 혈장(지기가 모이는 자리 즉 묘터나 집터)을 사방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신(神)을 일컫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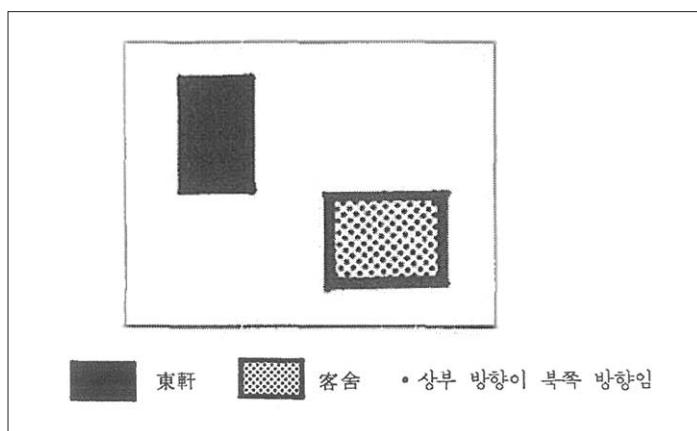
31) 주객 상대(主客相對)의 조건을 갖춘 읍기(邑基)의 지형은 주산(主山)과 객산(客山)을 잇는 종선(從線)이 읍기(邑基)의 장소적 배치를 결정하는 기본축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보다 이상적인 장풍(藏風) 국면을 갖춘 읍기는 좌우로 좌청룡과 우백호를 포함한 사신사(四神砂 : 청룡 · 백호 · 주작 · 현무) 요소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읍기의 사신사 바깥으로 여러 산들이 에워싸고 있는 읍기 지형은 최선의 장풍의 국면을 갖추었다.

또한 읍기의 내용 조건은 조선후기 읍지(邑誌)의 산천조(山川條)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후기에 간행된 읍지일수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되는 것으로 보아 풍수적 구성과정에서 읍기의 내맥(來脈)이 보다 심화되어 파악하기에 이른 시기는 조선후기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³²⁾. 바꾸어 말하면 저자미상(著者未詳)으로 1785년 2월 이후에 편찬한 『정의현지(旌義縣誌)』(奎10796) 「산천(山川) - 한라산(漢拏山)」에 나타난 '無惡獸 東幹逶迤 而來開場于逕止岳 自庚兌連脉爲邑基 介老川脉源漢拏山來于逕止岳 北左縣南流至官門二里許 有深潭而達于海' 이 정의현 읍기(邑基)의 내용(來龍) 조건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를 해석해 보면 '흉악(凶惡)한 짐승[惡獸]이 없다. 동쪽으로 잇대어 뻗어 나가는 산 따위의 갈래[東幹]는 구불구불한 모양³³⁾으로 장막을 펼치며[開帳]³⁴⁾와서 모지오름[逕止岳]의 서쪽(庚兌)으로부터 동쪽(甲震)에 잇닿은 맥(脈)이 읍의 터[邑基]가 된다. 개로천(介老川)³⁵⁾ 맥(脈)의 근원은 한라산(漢拏山)에서 모지오름 북쪽에 와서 왼쪽에 있는 정의현 남쪽으로 흘러 관문(官門) 2리쯤에 깊은 소[深潭]가 있으며 바다에 도달한다' 라는 내용이다. 이는 바로 한라산의 맥이 동쪽으로 내려오다가 모지오름[逕止岳]의 서쪽(庚兌)으로부터 동쪽(甲震)으로 잇닿은 산줄기가 읍기 곧 정의현의 관청인 동현(東軒)임을 알려주고 있다.

삽도16) 정의읍성 용맥의 흐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의읍성으로 내려오는 용맥을 보면 모지오름 아래 지명이 주마(走馬)라고 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해석하면 지세의 흐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모지오름 아래에는 실제 알 모양의 지세들이 말이 달리는 형상처럼 굴곡(屈曲)과 기복(起伏)을 하며 펼쳐져 있다. 좌선룡(左旋龍, 청룡)은 모지오름에서 출원하여 몇 개의 알봉을 통해 기복과 굴곡을 지으며 영주산 서남쪽으로 하나는 내려 보내고 한줄기는 황통지동산과 땅동산을 거치며 천미천을 따라 여러겹으로 읍성을 향해 내려와 완만한 평지를 만든다. 우선룡(右旋龍, 백호)은 모지오름에서 출원하여 나지막한 장자오름을 거쳐 완만하게 내려오다 벤저리동산과 서문통 및 당낭밭쪽으로 해서 현재 성읍초등학교 밑으로 외백호가 펼쳐져 있다³⁶⁾.

또한 삽도15)의 『耽羅巡歷圖』「旌義講射」에 나타난 旌義縣 東軒[衙]의 坐向을 중심으로 해서 정의현(旌義縣)의 객사(客舍)와 동현(東軒) 배치 관계를 살펴보면 삽도17)과 같다.

한편 삽도17)의 정의현 객사와 동현 배치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의현(旌義縣) 객사(客舍)는 남향(南向)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현 동현(東軒)이 동향(東向)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객사는 남향하여 배치되지만 동현이 풍수적인 중심지에 위치시켜 지세향(地勢向) 혹은 상대향(相對向)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창룡)



삽도 17. 정의현 객사와 동현 배치도(자료 : 김동섭, 2009, 前揭書)

32) 최원석, 2007, 「조선시대 지방도시의 풍수적 입지분석과 경관유형 - 경상도 71개 읍치를 대상으로 -」, 『대한지리학회지』 제42권 제4호, 543쪽.

33) 逶迤는 예두른 길이 구불구불한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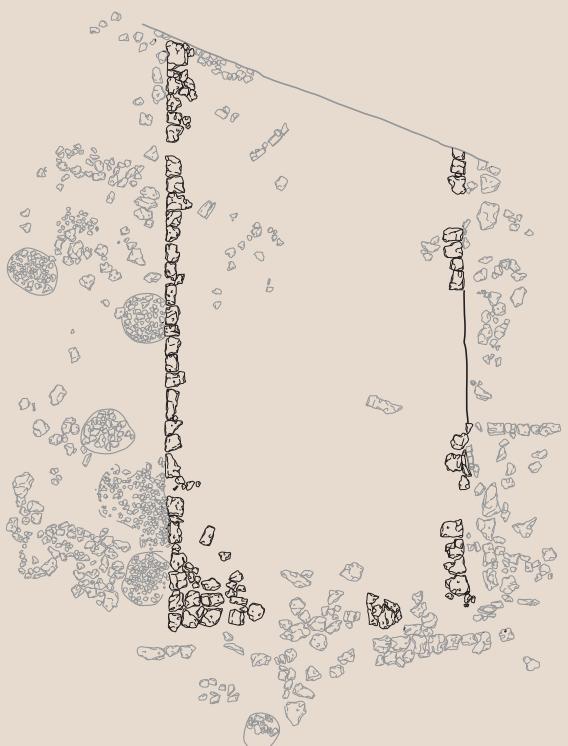
34) 개장(開帳)은 장막(帳幕)을 연다는 뜻으로 산줄기가 마치 새가 날개를 편 것처럼 또는 병풍(屏風)을 펼친 듯 좌우(左右)로 겹겹이 뻗어 내린 형세(形勢)이며 개장(開場)이 좋으면 내룡(來龍)이 생기(生氣) 있고 건강(健康)하다.

35) 介老川은 현재 천미천(川尾川)을 이른다. 천미천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긴 하천이며 한라산 정상부의 동측사면에서 발원하여 고지대 화산평탄면을 거치면서 중산간 마을인 교래, 성읍을 휘돌아 표선면 하천리까지 이어지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 시를 휘돌아 흐르면서 형성된 하천이다.

36) 김동섭, 2009, 前揭書, 77쪽.



도판





도판 1. ①~② 조사대상지 원경(공중촬영)



도판 2. ①~② 조사대상지 전경(공중촬영)



도판 3. ①~② 조사대상지 근경(공중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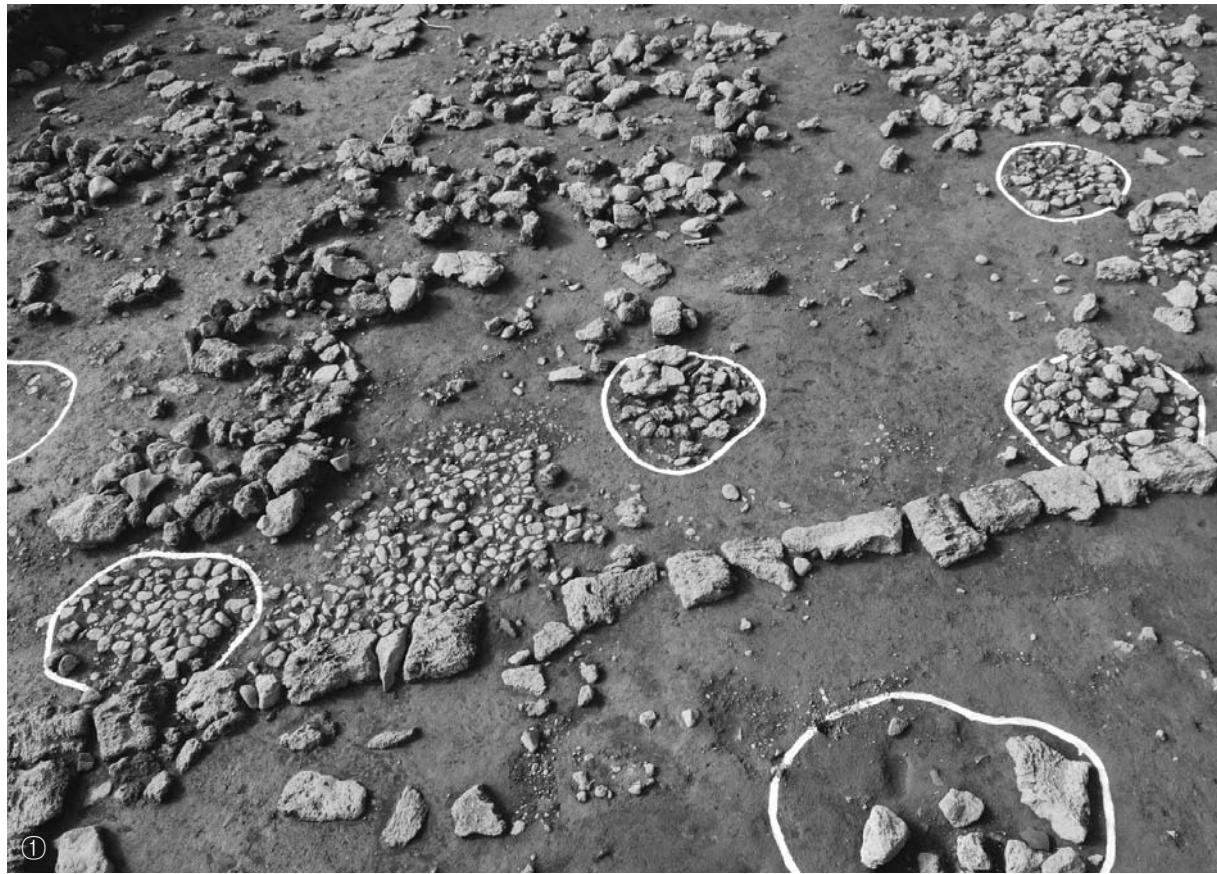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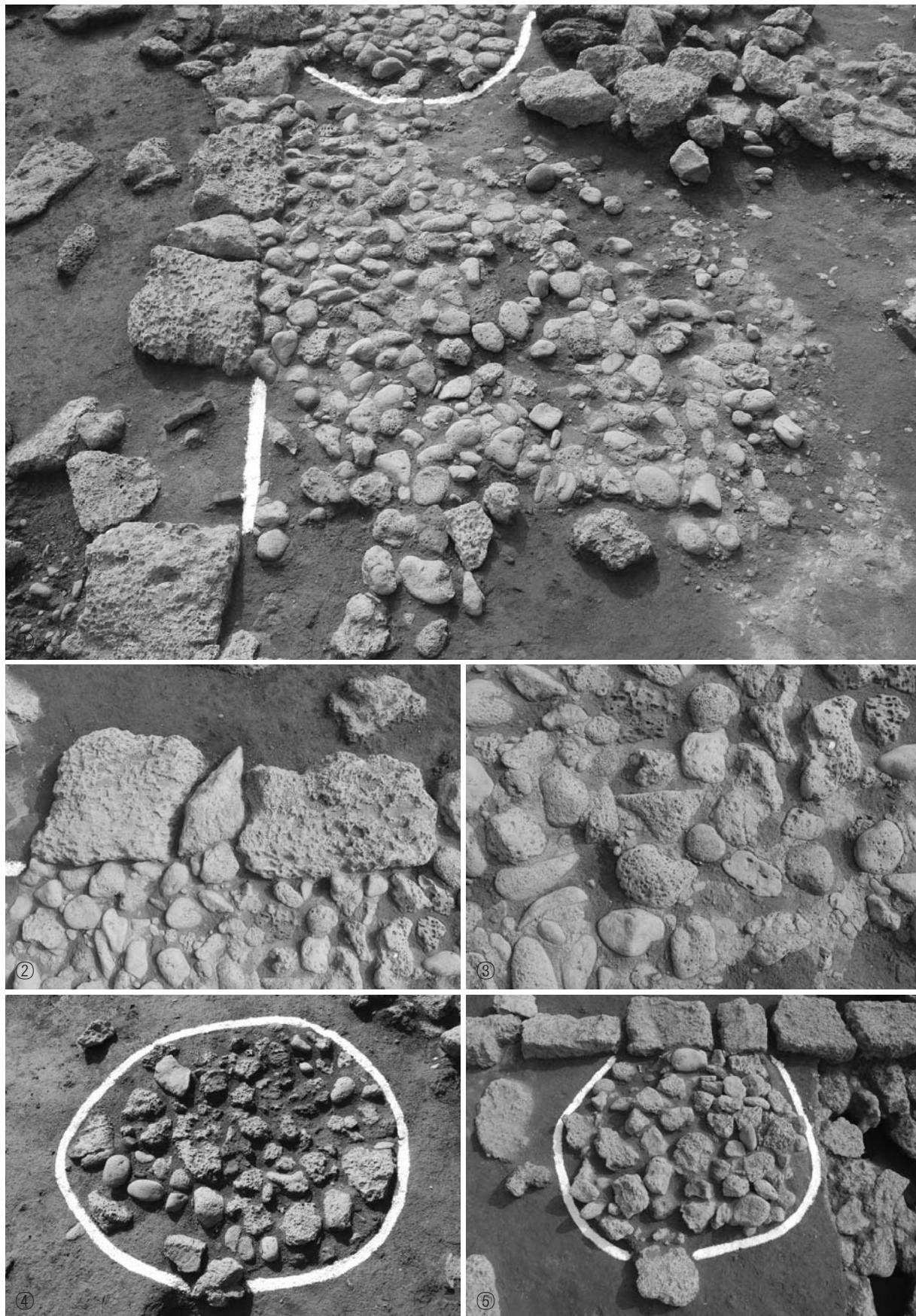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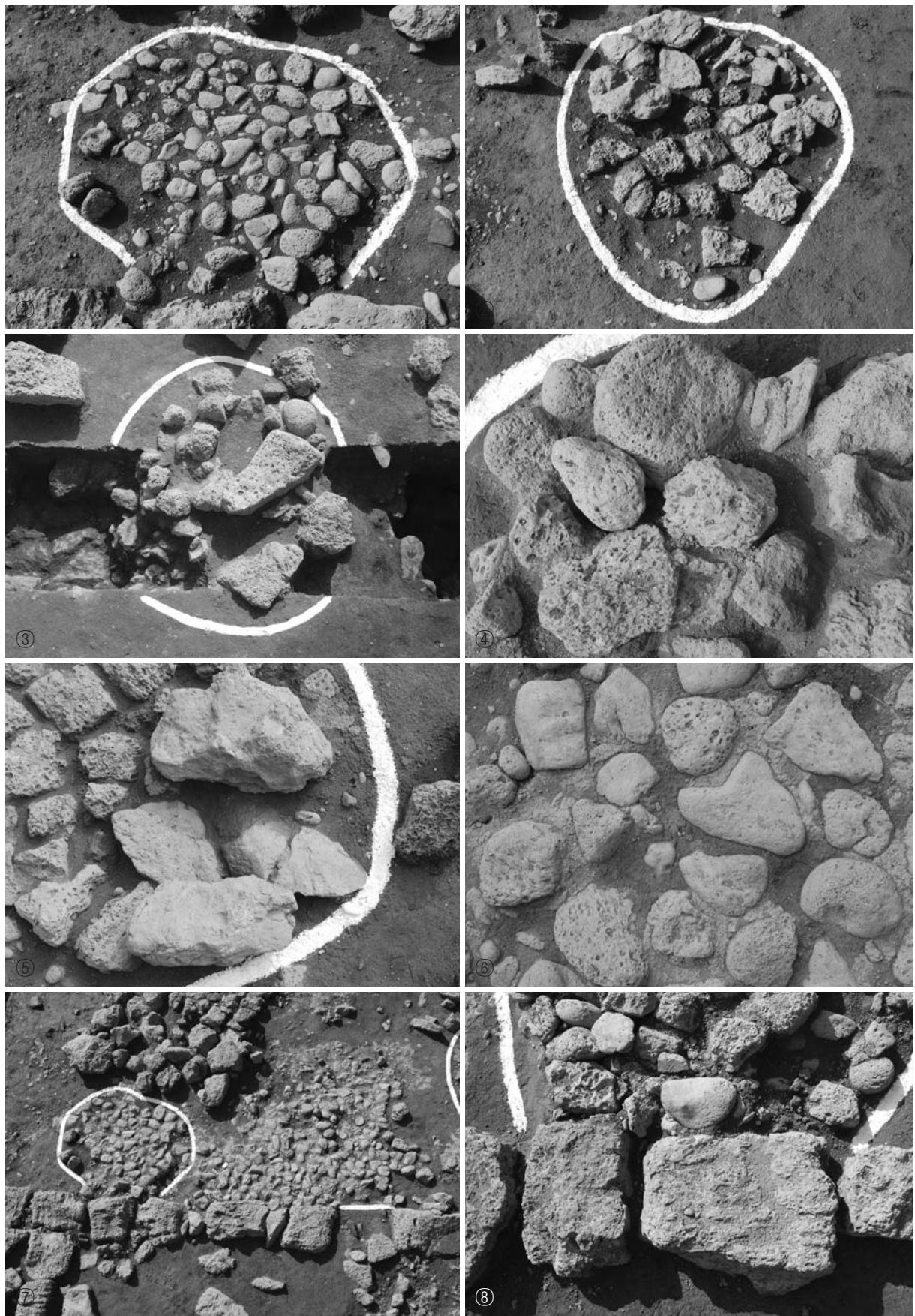
도판 4. ①~② 조사대상지 근경(공중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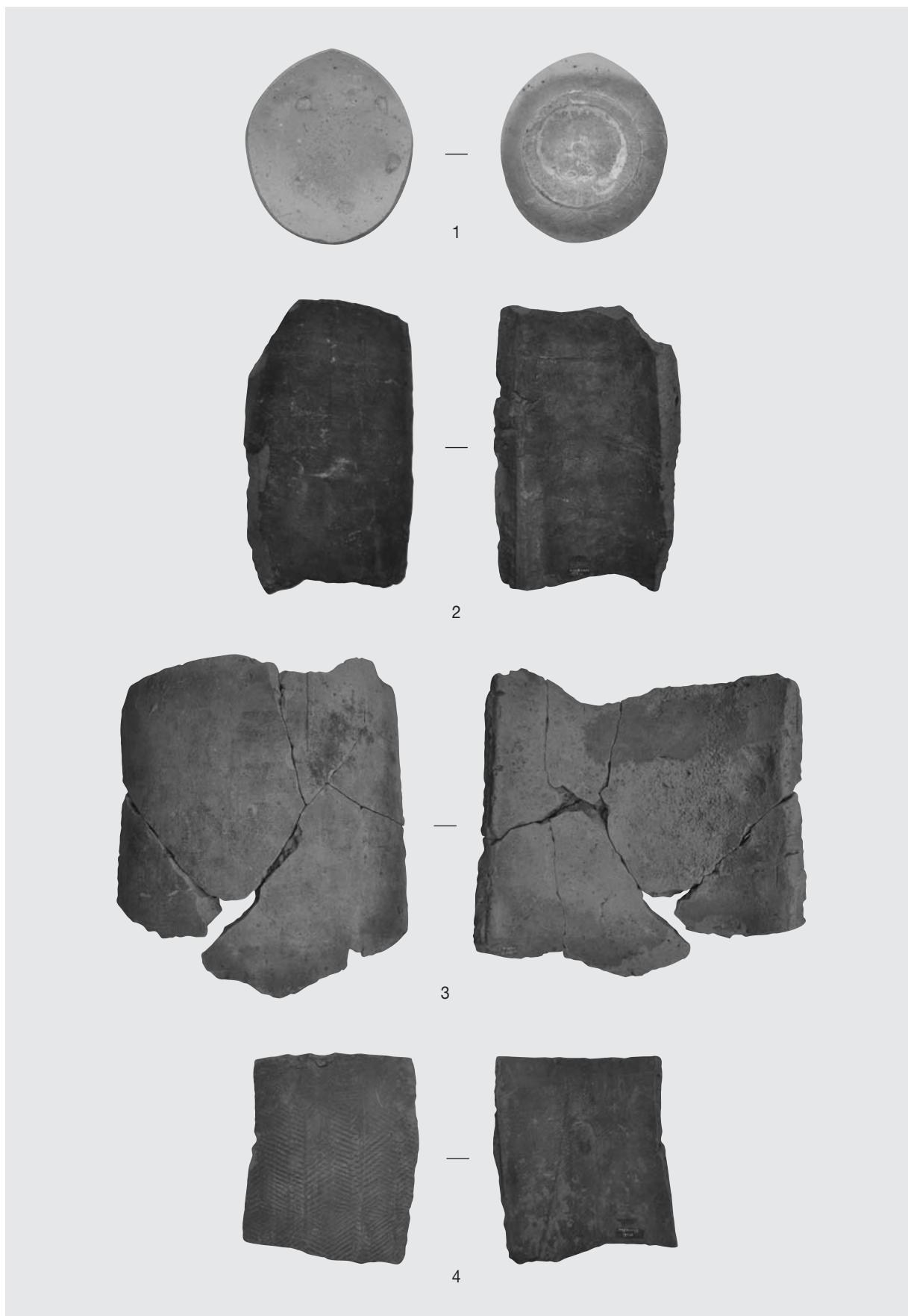
도판 5. ① 조선시대 1호 건물지 전경(동에서) ② 전경(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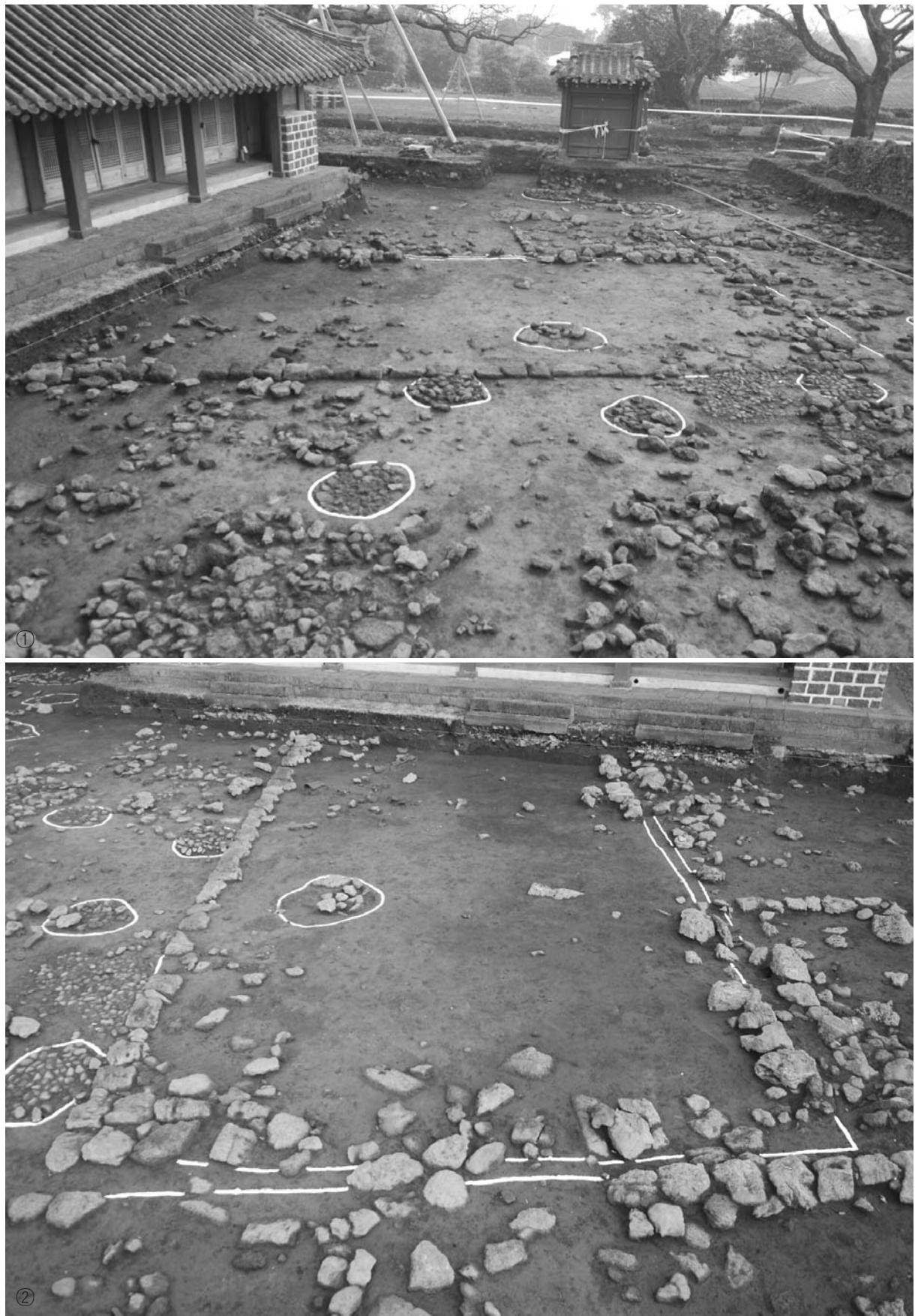
도판 6. ① 조선시대 1호 건물지 내부 적석상태(북에서) ②~③ 적석상태 세부 ④~⑤ 적심석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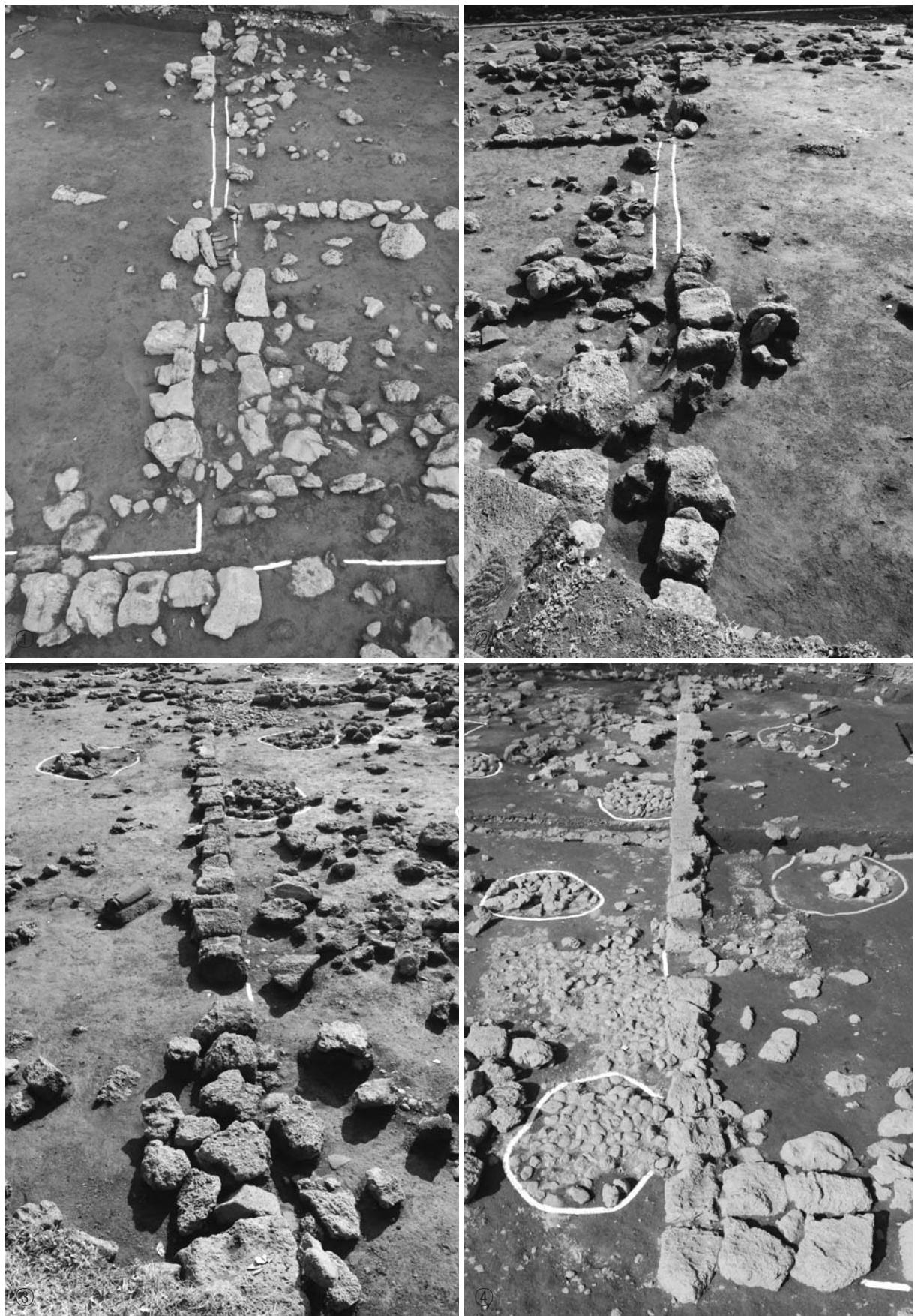
도판 7. ①~③ 적십석 노출상태 ④~⑥ 적십석 세부 ⑦~⑧ 1호 · 2호 건물지 중복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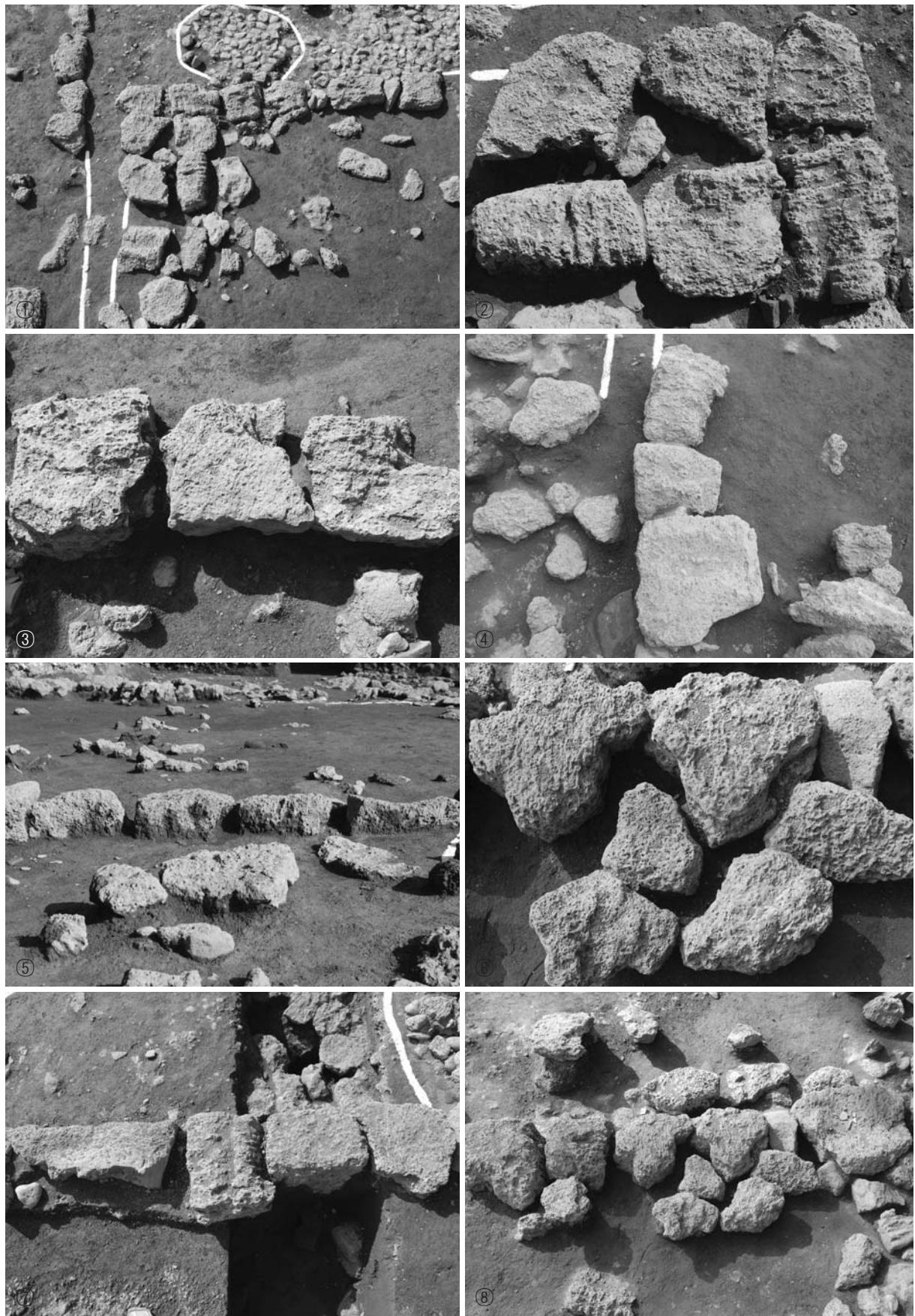
도판 8. 조선시대 1호 건물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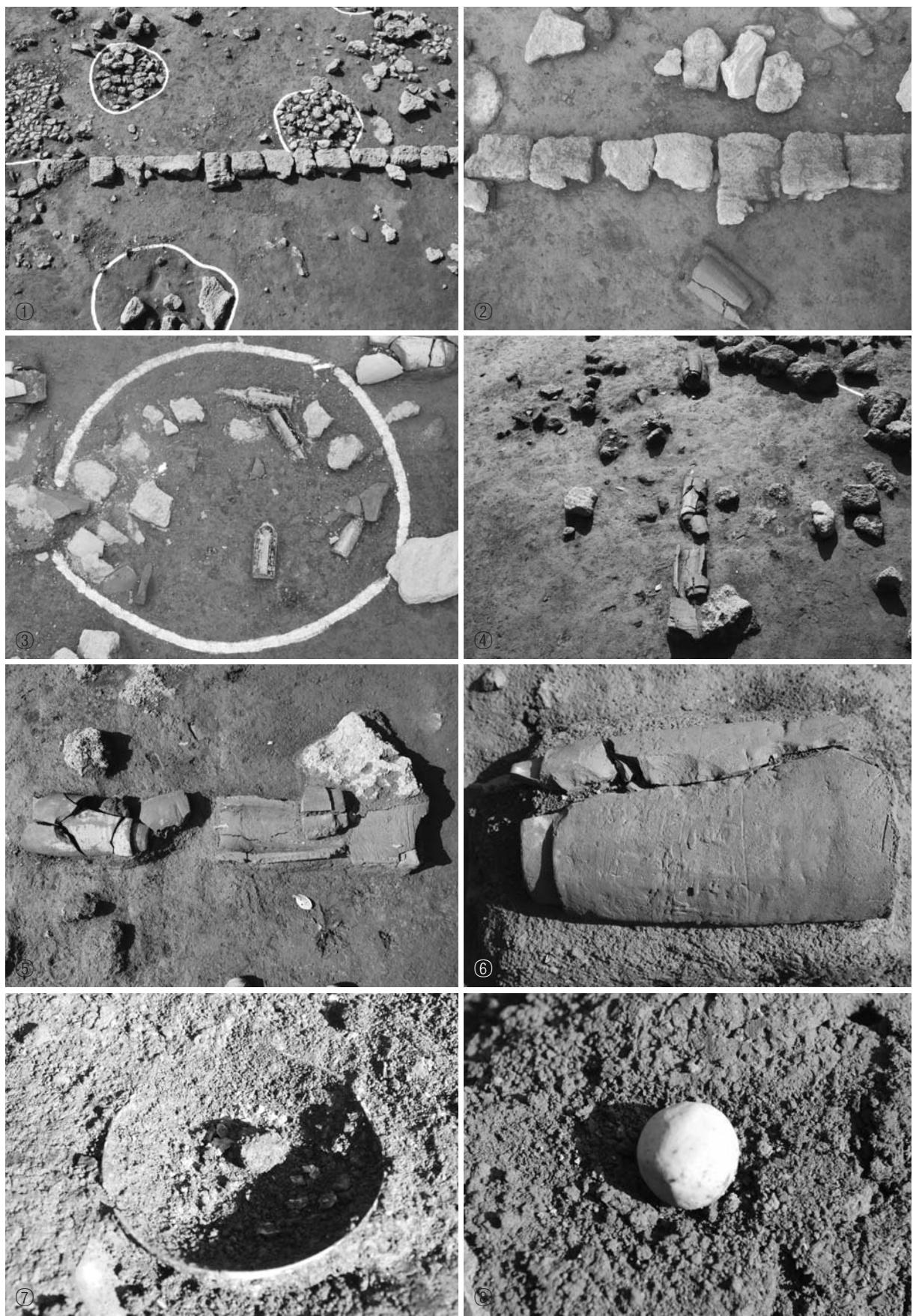
도판 9. ① 조선시대 2호 건물지 전경(서에서) ② 전경(남에서)



도판 10. ① 조선시대 2호 건물지 동쪽 기단 노출상태(남에서) ②(북에서) ③ 서쪽기단 노출상태(북에서) ④(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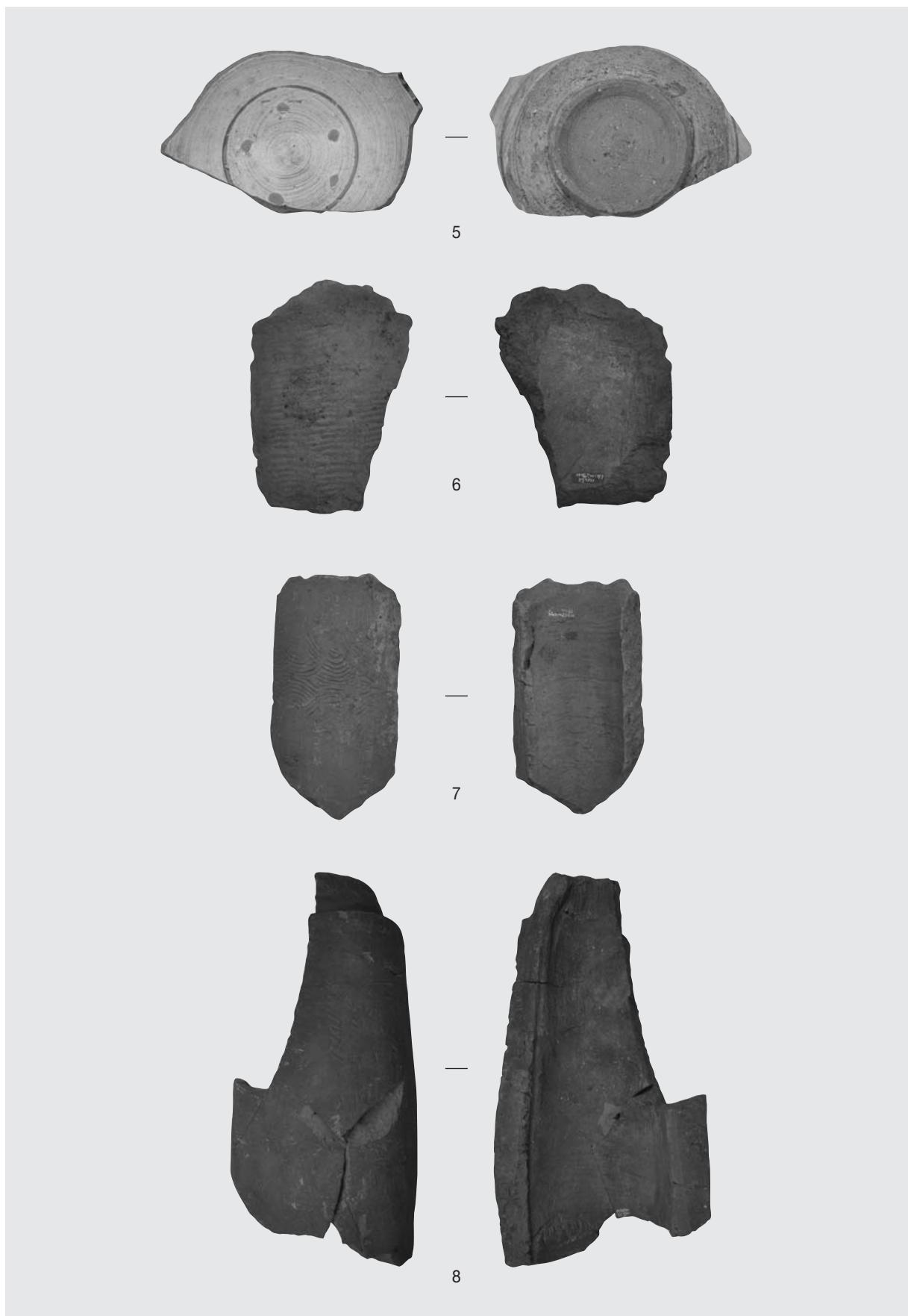
도판 11. ① 조선시대 2호 건물지 남서쪽 기단 축조상태(동에서) ② 남서쪽 기단 세부 ③ 동쪽 기단 세부 ④ 남쪽 기단 세부
 ⑤ 서쪽 기단 노출상태 ⑥~⑧ 서쪽 기단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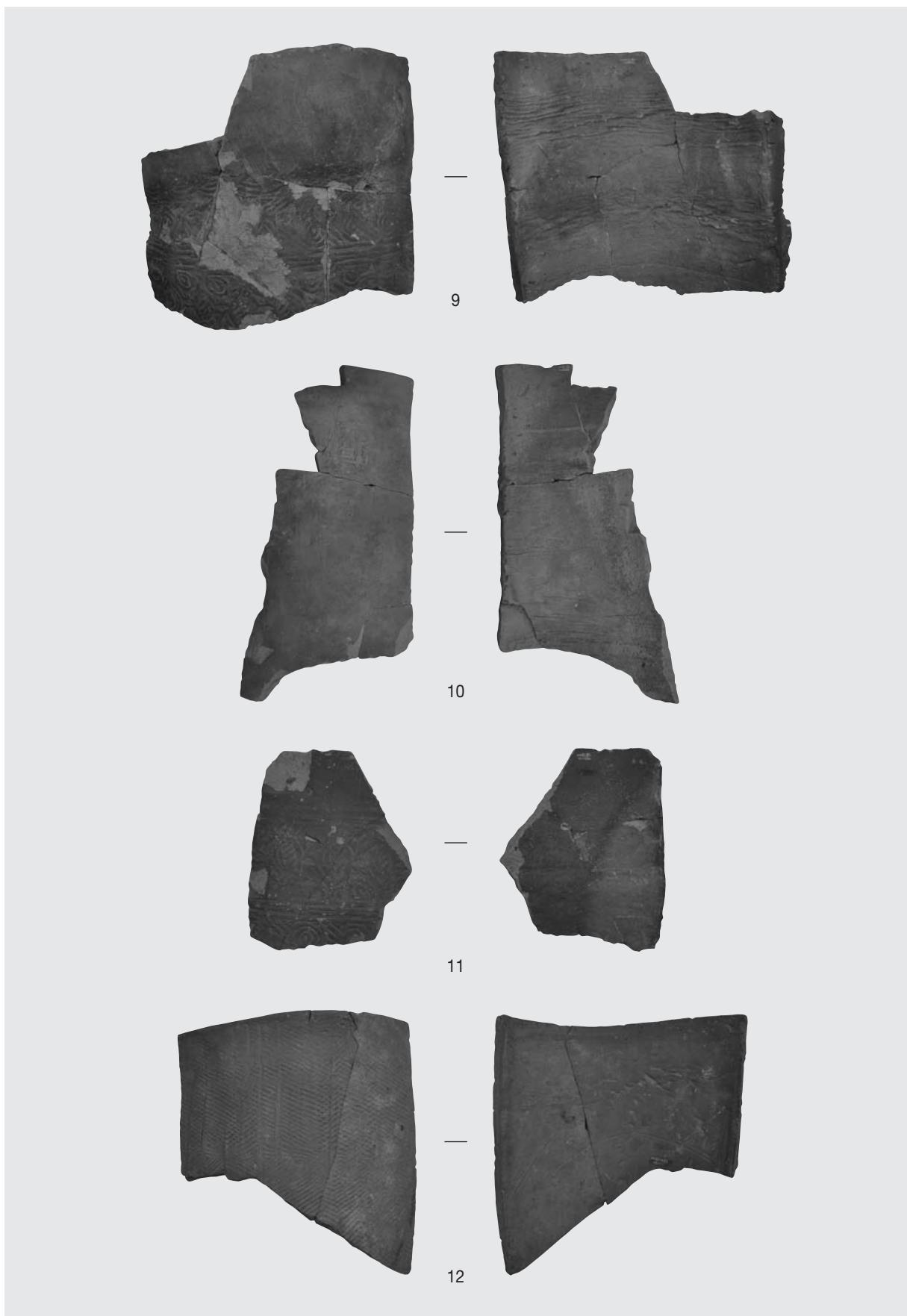
도판 12. ①~② 조선시대 2호 건물지 서쪽 기단 축조상태 ③ 교란부 유물 출토상태 ④~⑧ 유물 출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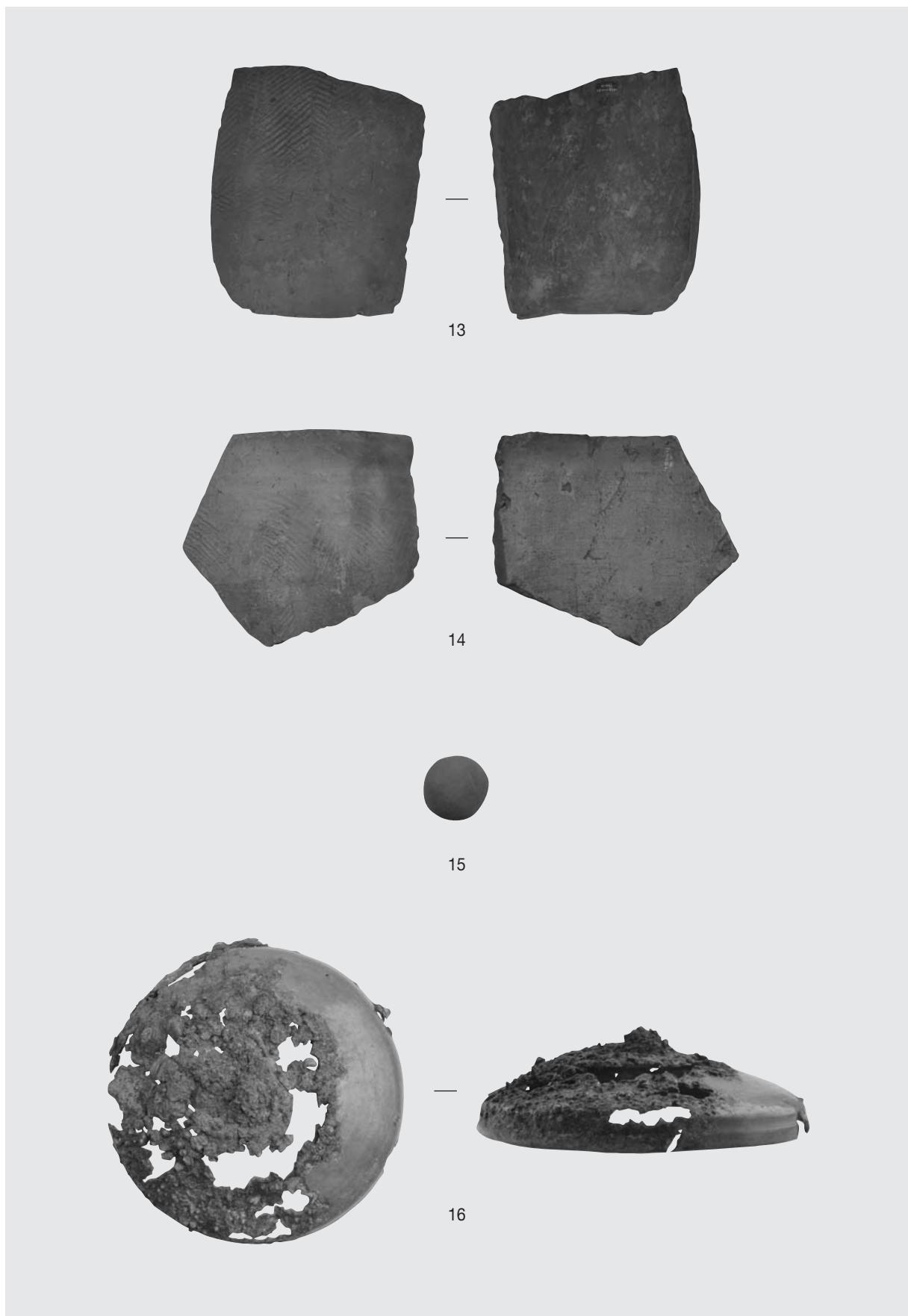
도판 13. ① 조선시대 2호 건물지 조사완료 후 전경(동에서) ② 전경(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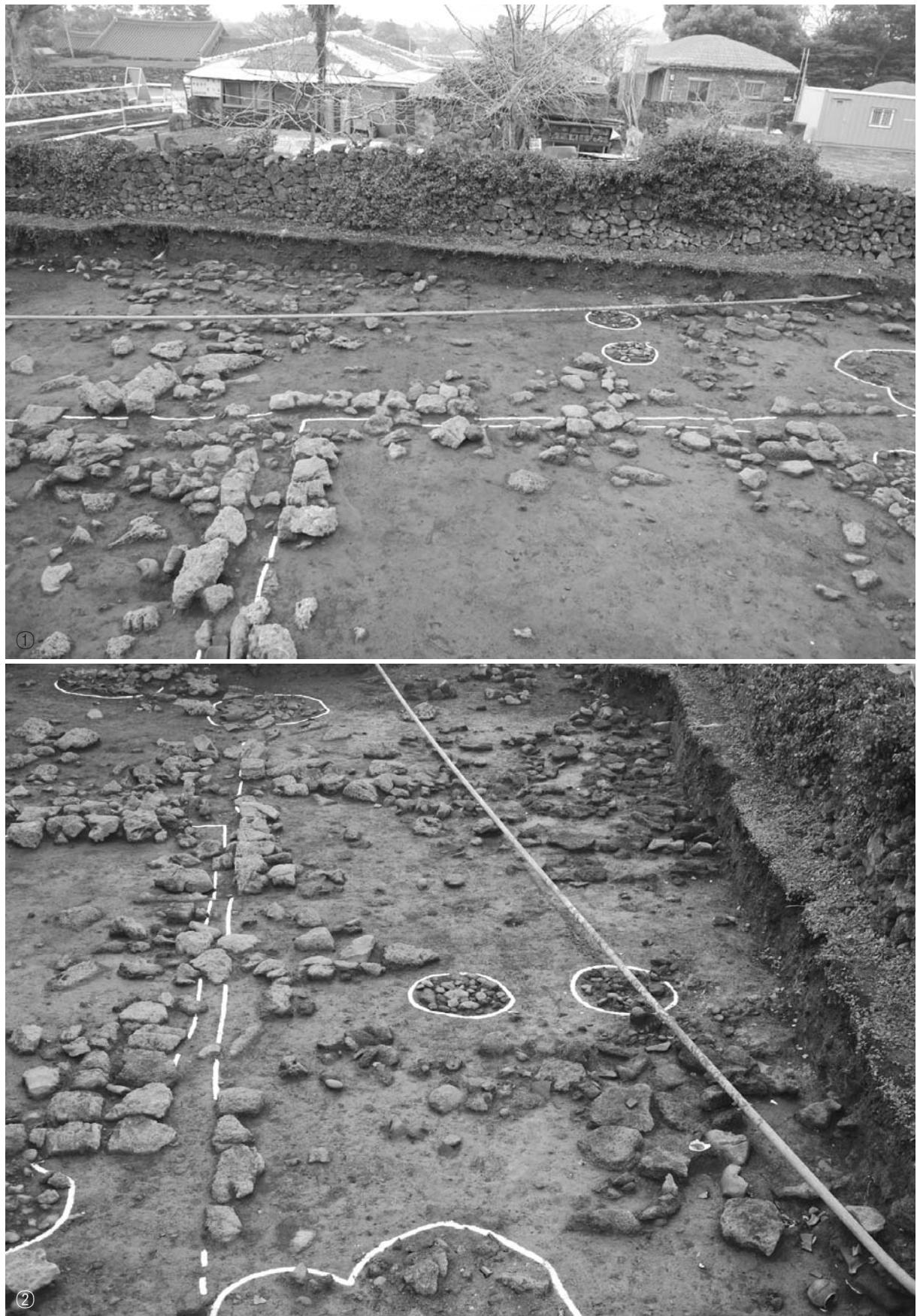
도판 14. 조선시대 2호 건물지 출토유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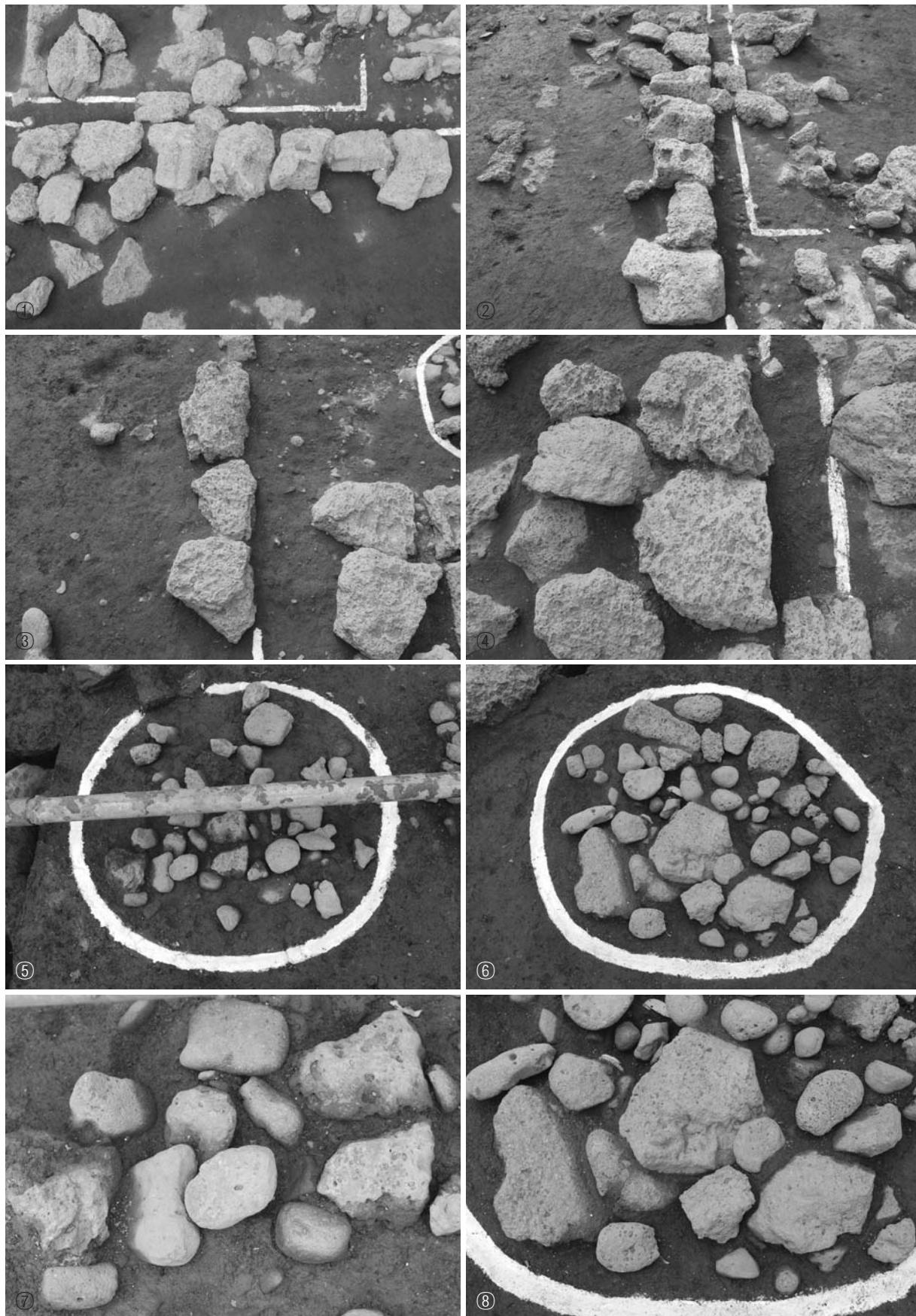
도판 15. 조선시대 2호 건물지 출토유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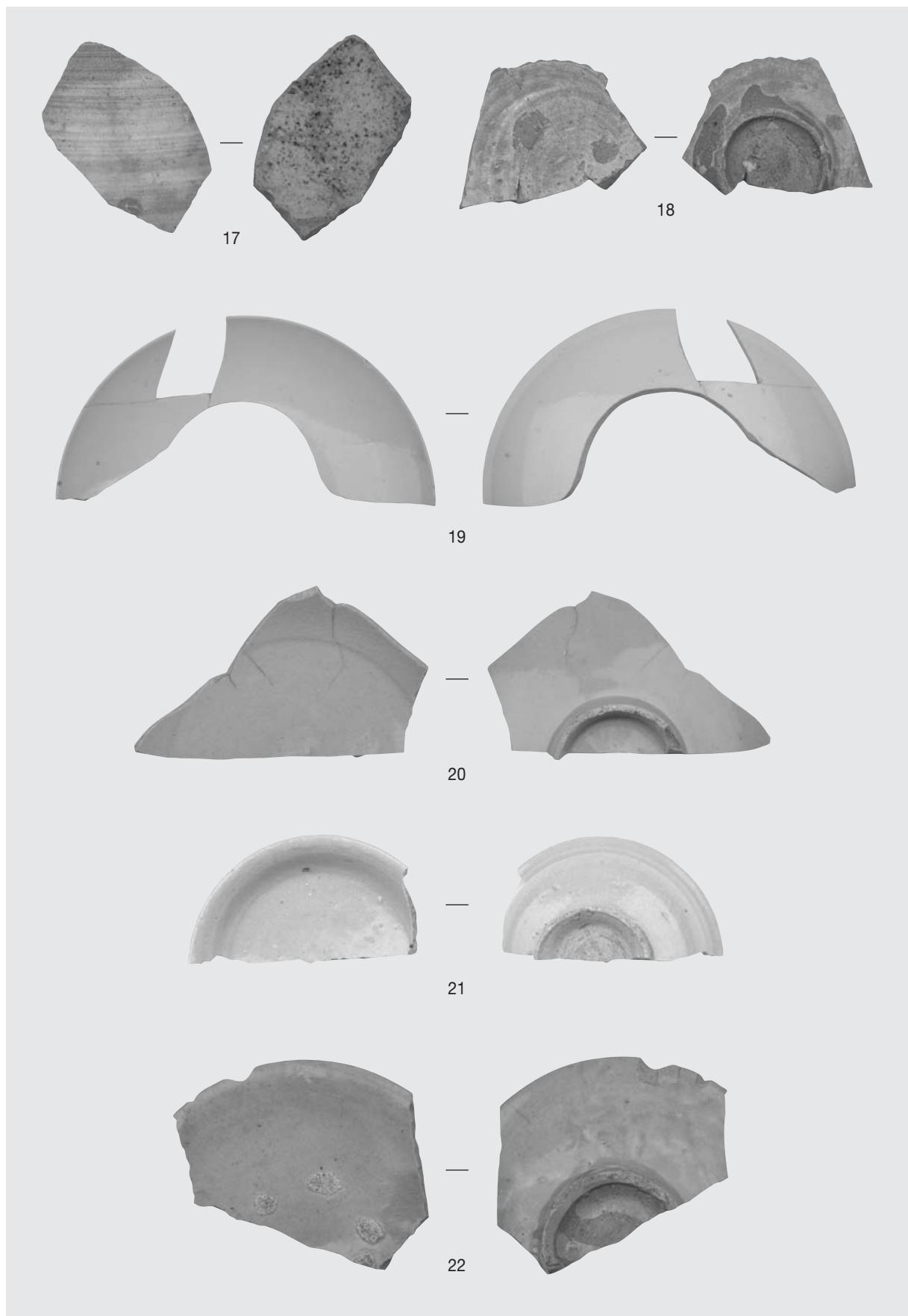
도판 16. 조선시대 2호 건물지 출토유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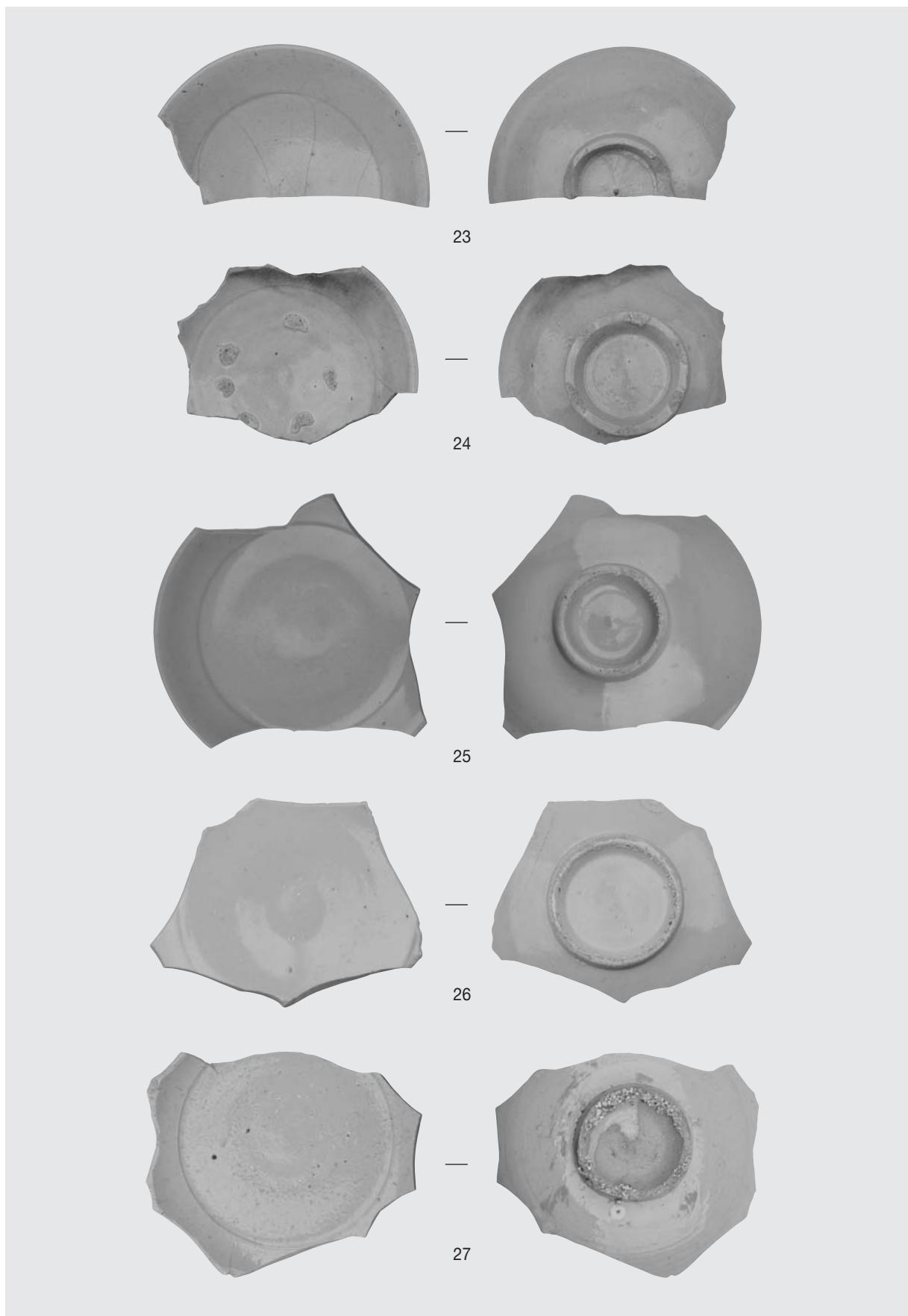
도판 17. ① 조선시대 3호 건물지 전경(북에서) ② 전경(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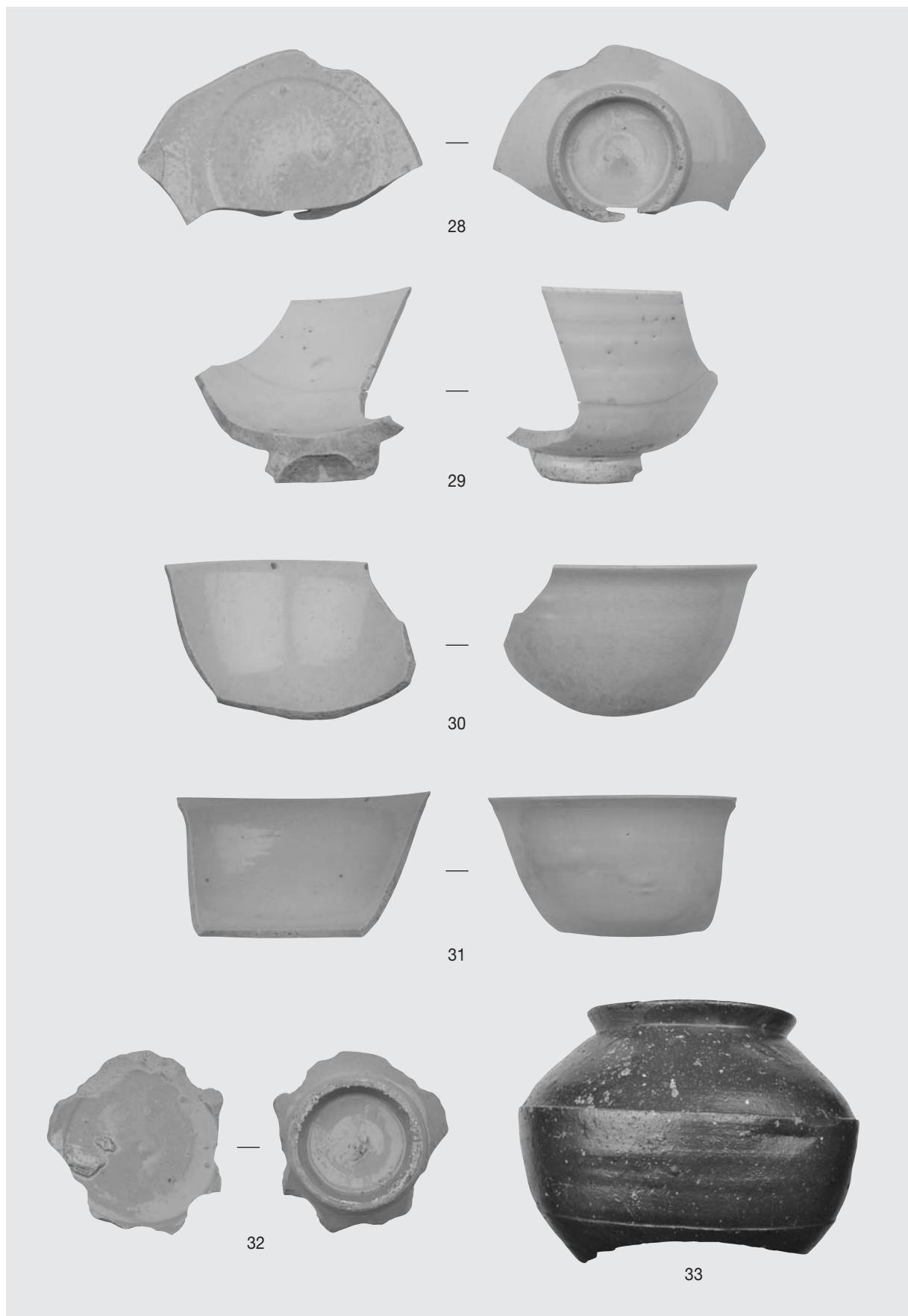
도판 18. ①~④ 조선시대 3호 건물지 북쪽 기단 노출상태 ⑤~⑥ 적심석 노출상태 ⑦~⑧ 적심석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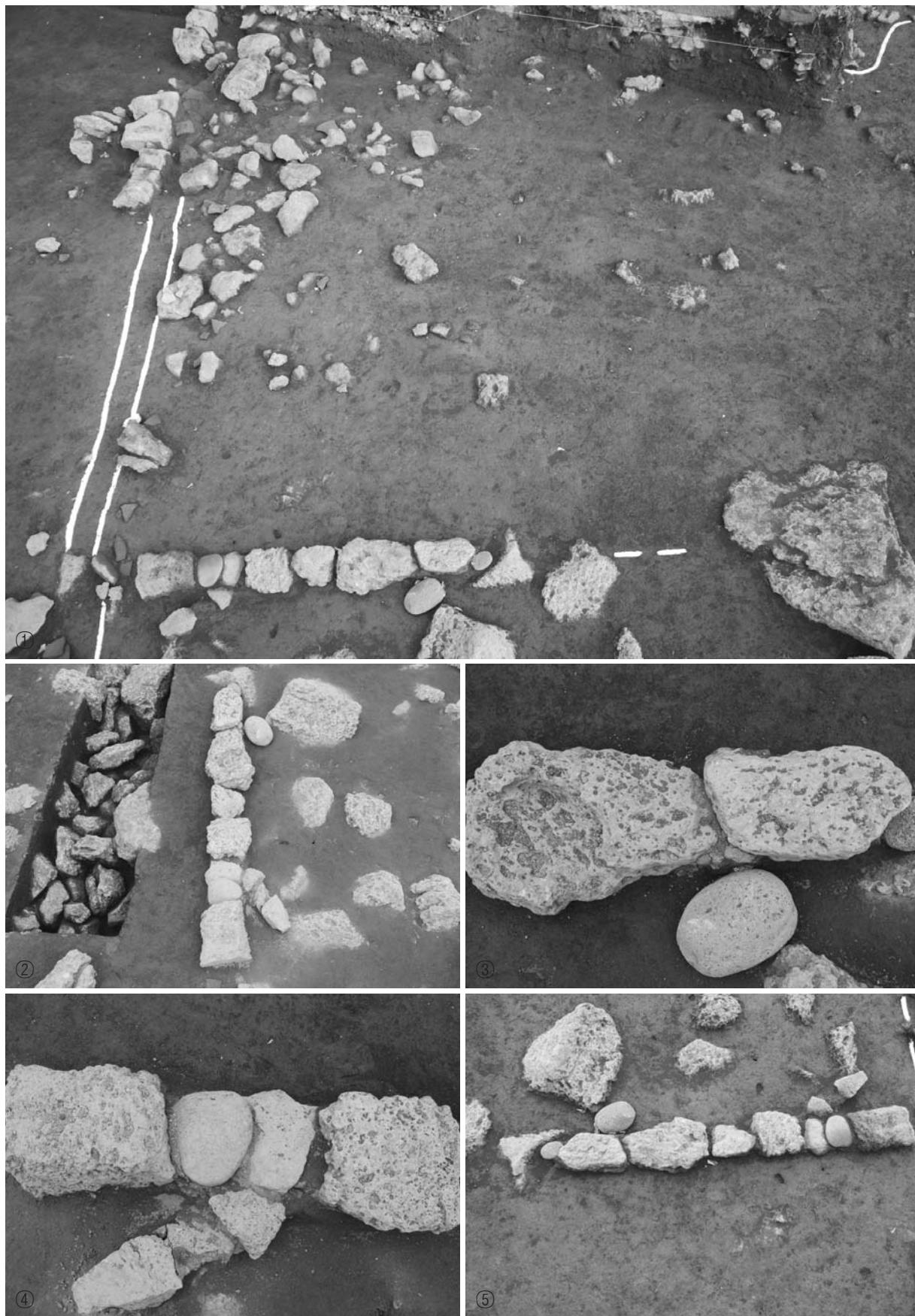
도판 19. 조선시대 3호 건물지 출토유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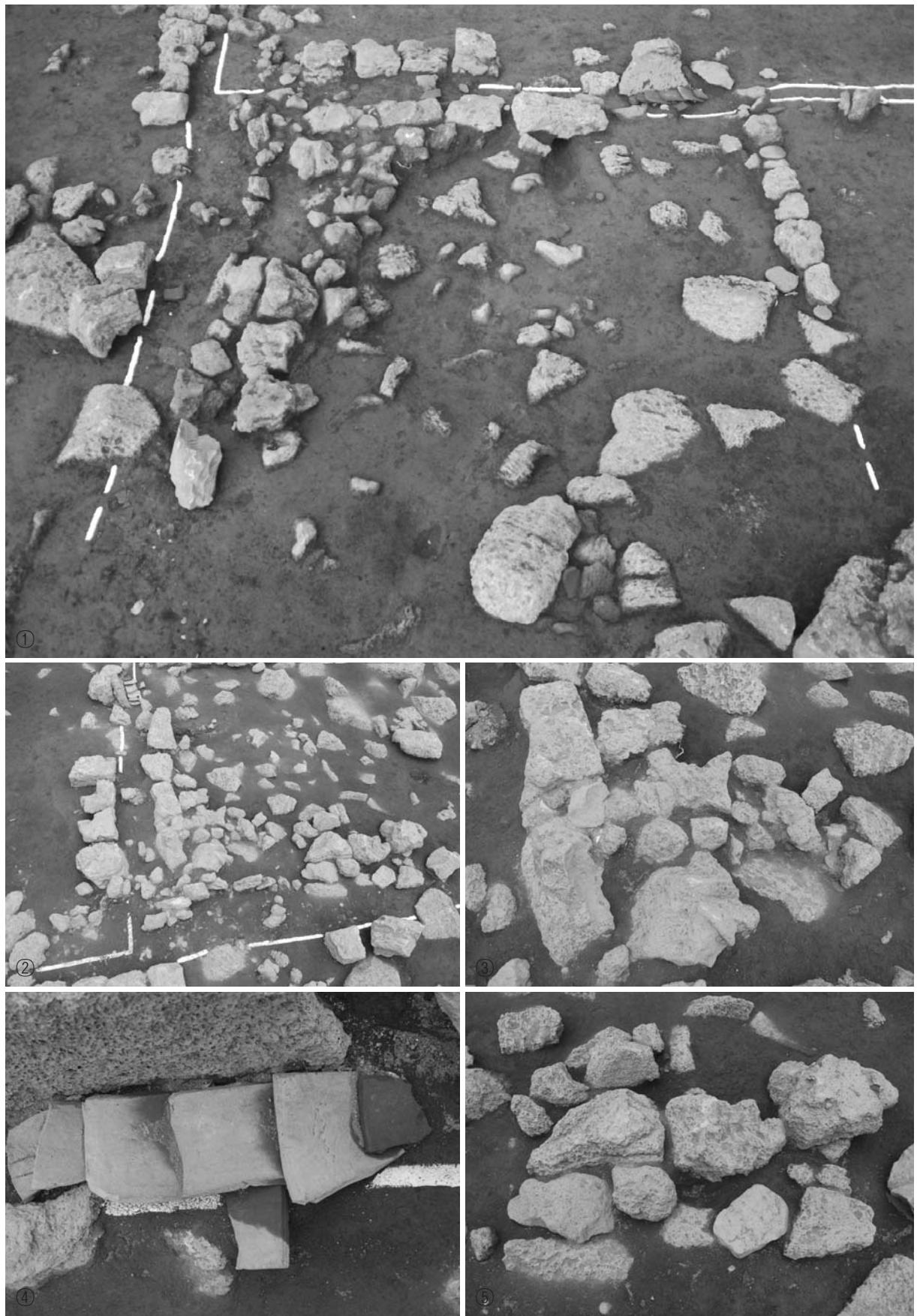
도판 20. 조선시대 3호 건물지 출토유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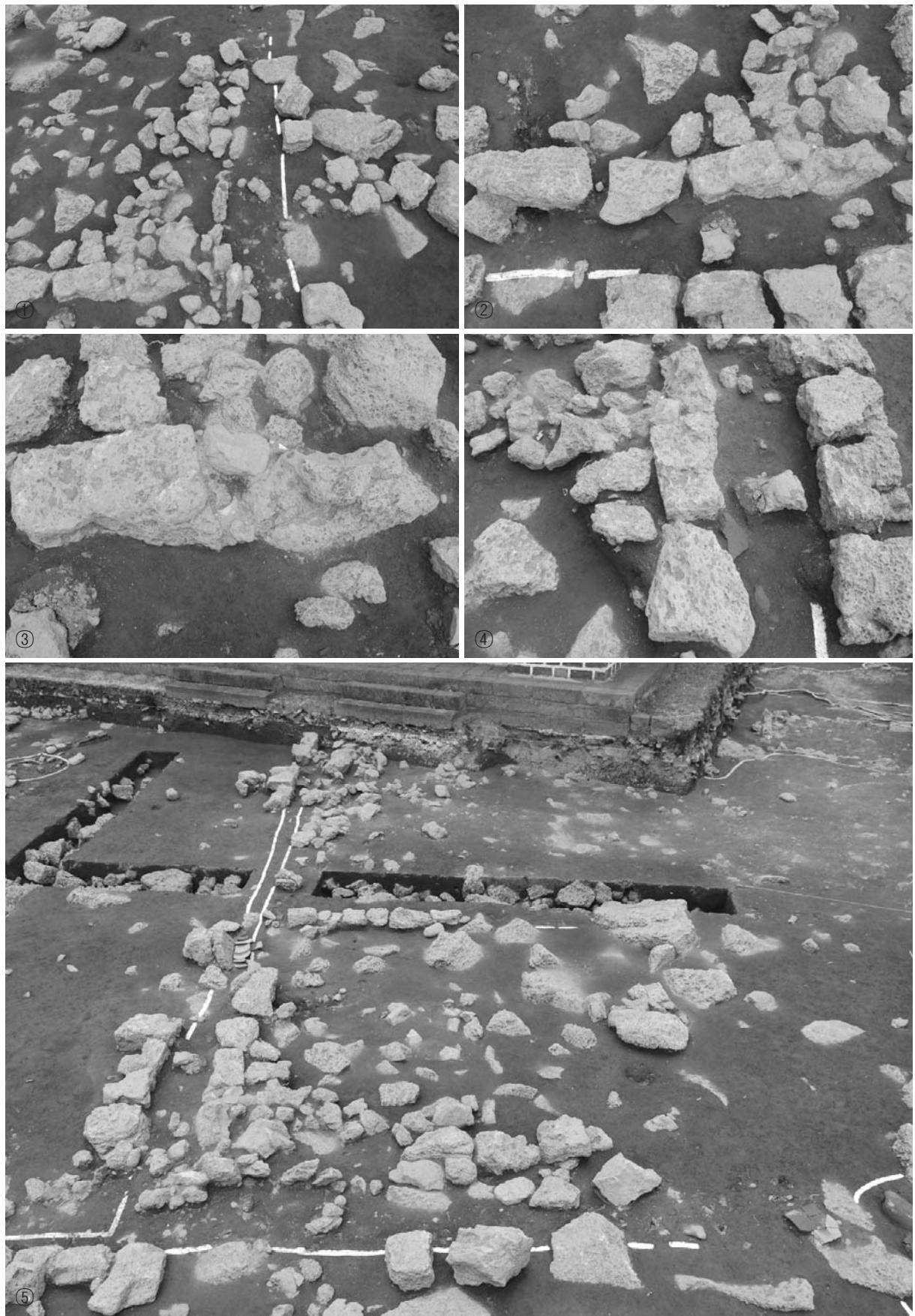
도판 21. 조선시대 3호 건물지 출토유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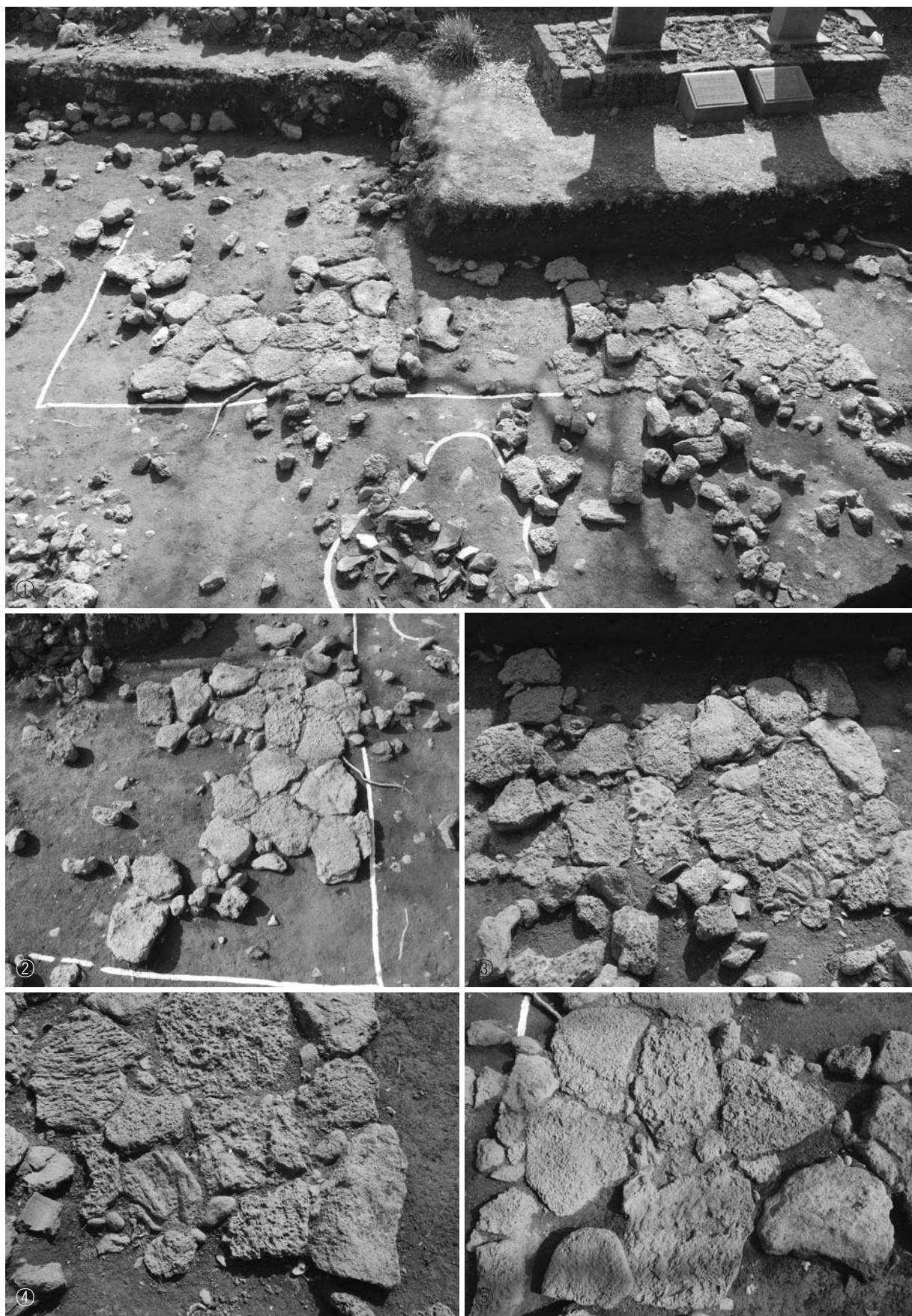
도판 22. ① 조선시대 4호 건물지 전경(남에서) ②~④ 기단 노출상태 ⑤ 4호 · 5호 건물지 중복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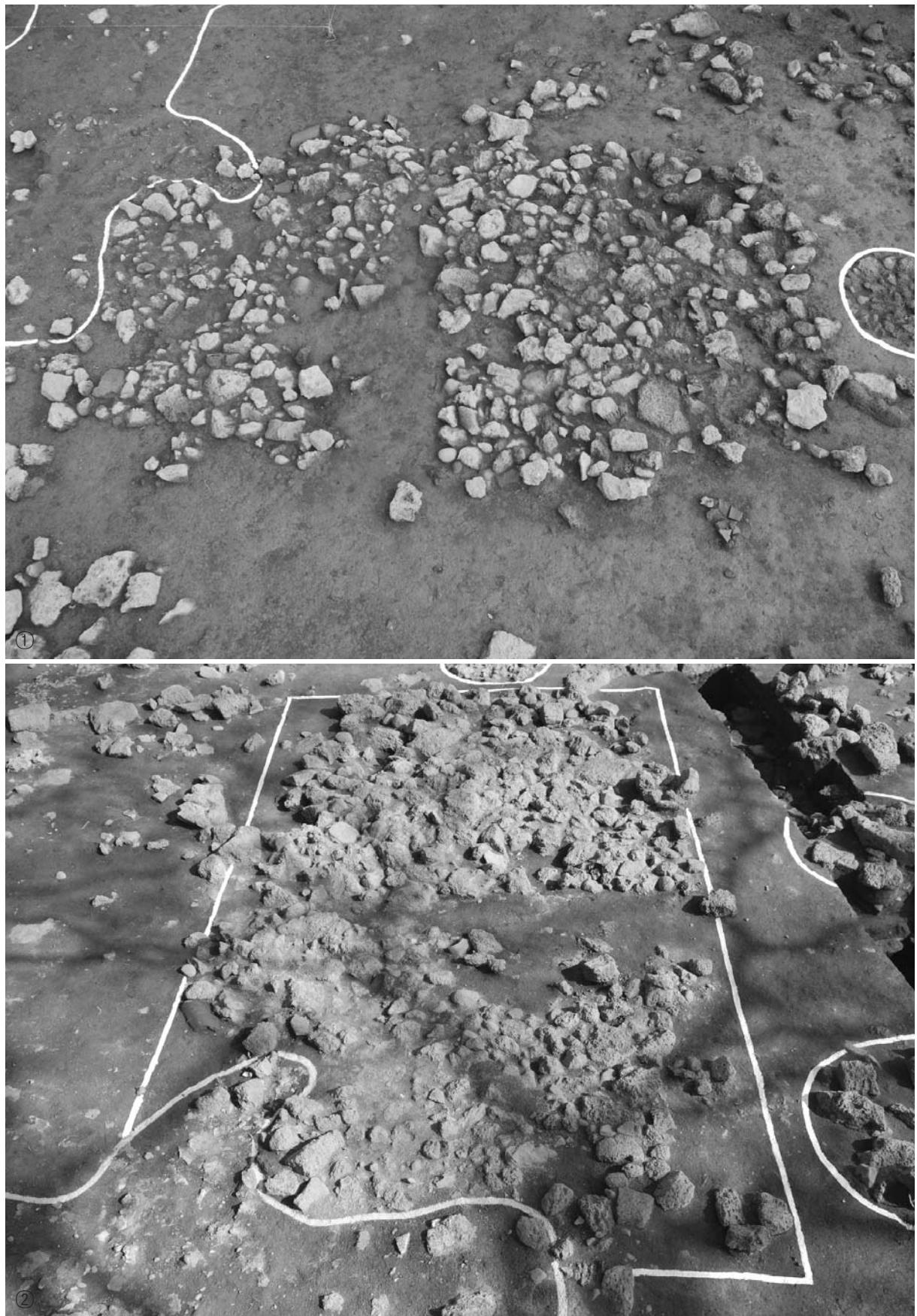
도판 23. ① 조선시대 5호 건물지 전경(동에서) ②~⑤ 기단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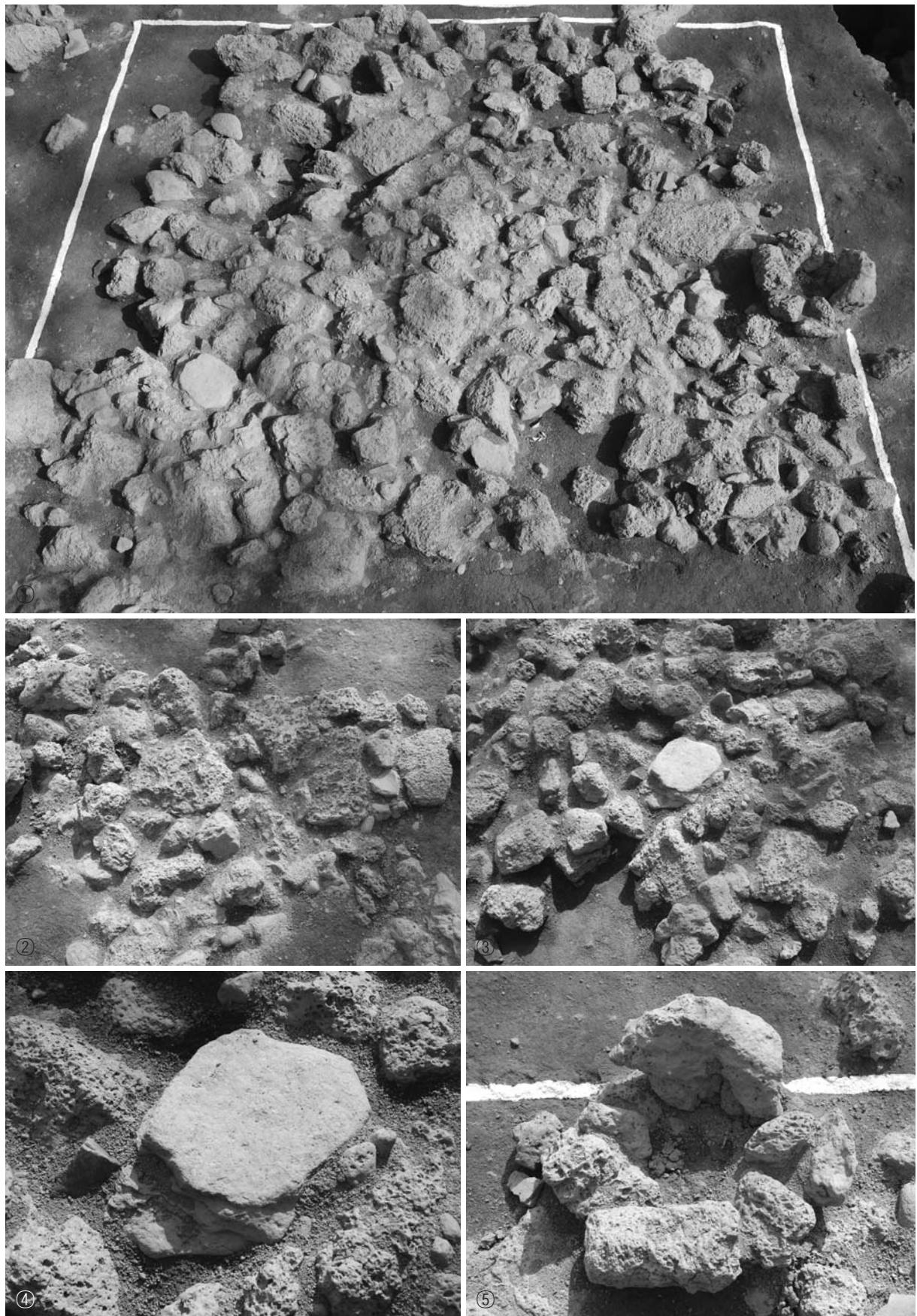
도판 24. ①~④ 조선시대 5호 건물지 기단 노출상태 ⑤ 4호 · 5호 조사완료 후 전경(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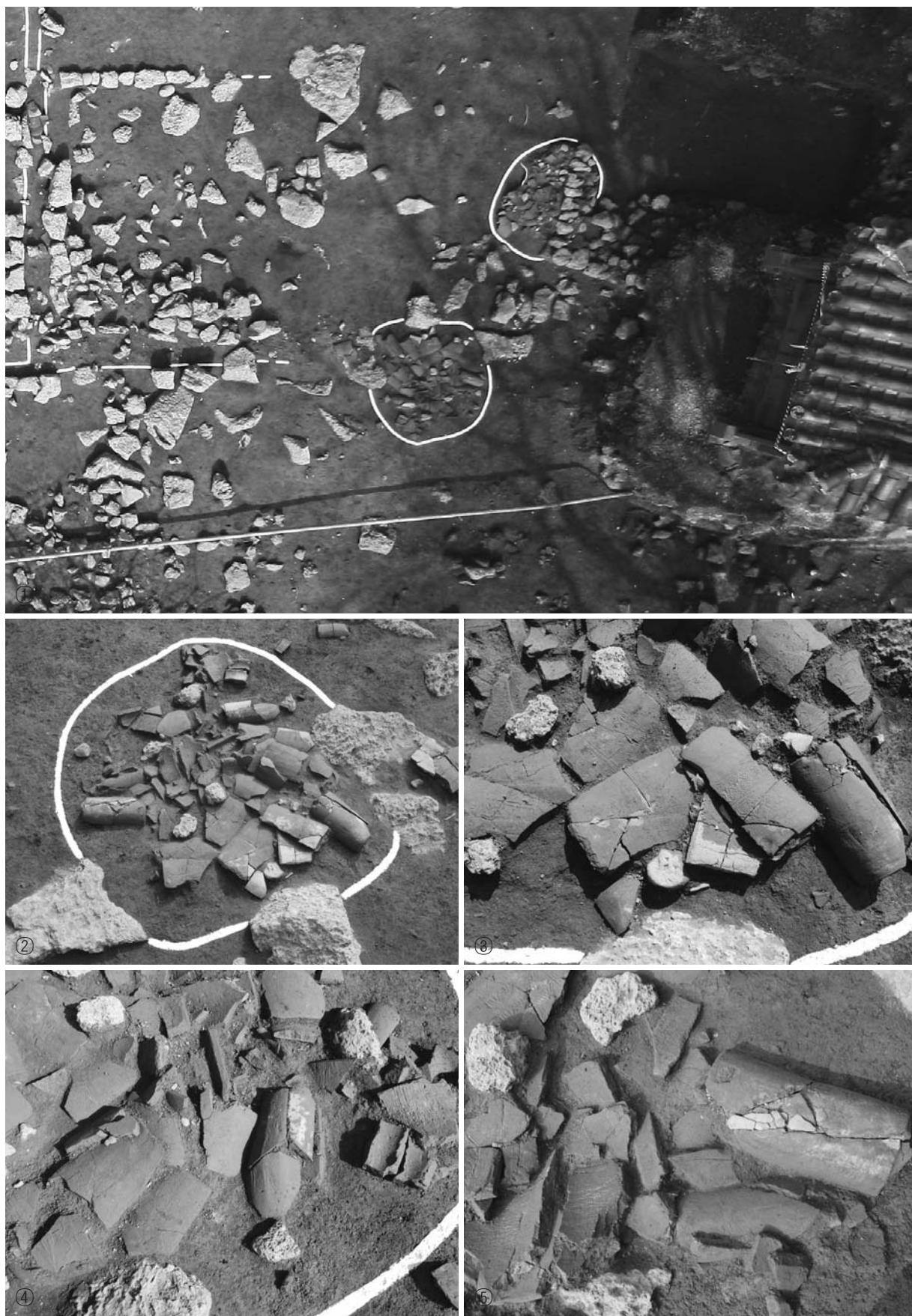
도판 25. ① 부석시설 전경(북에서) ②~③ 노출상태 ④~⑤ 부석시설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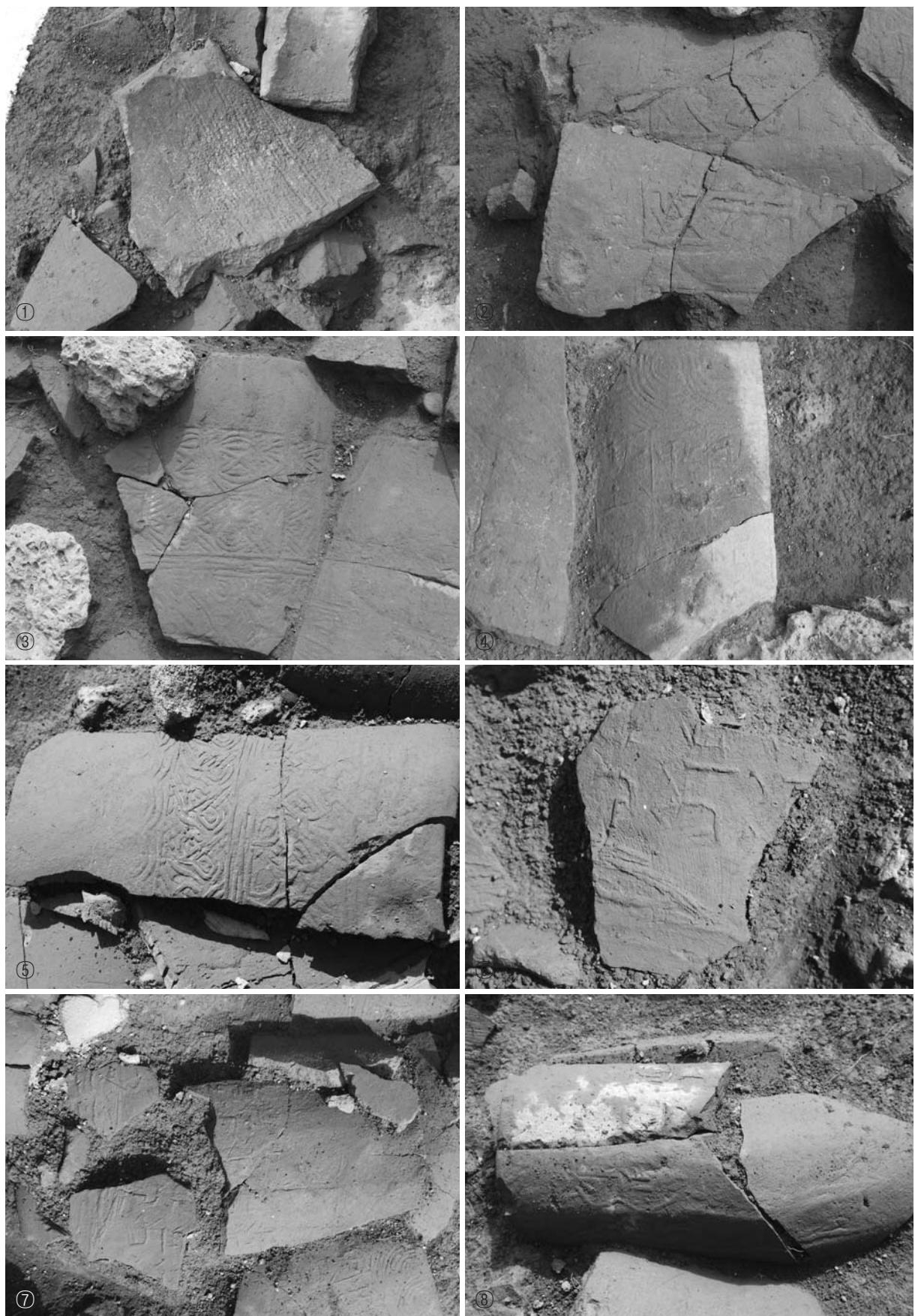
도판 26. ① 적석시설 전경(남에서) ②전경(서에서)



도판 27. ① 적석시설 노출상태 ②~⑤ 적석시설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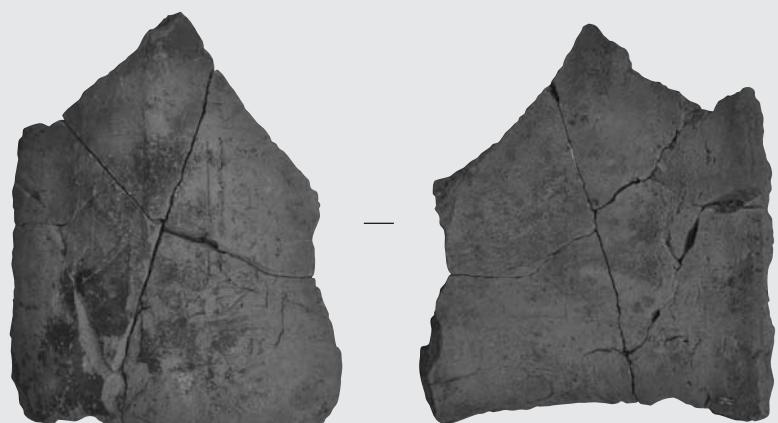
도판 28. ① 1호 · 2호 와적시설 전경 ② 1호 와적시설 전경(북에서) ③~⑤ 세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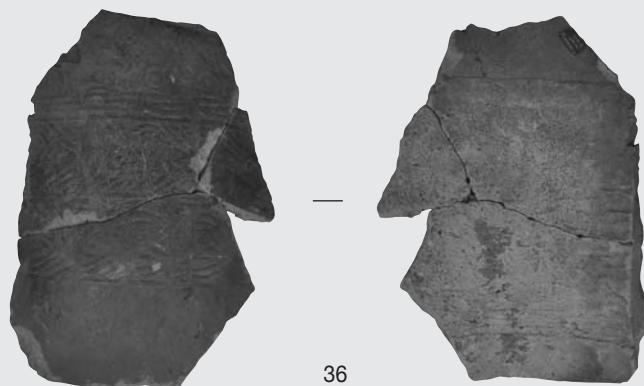
도판 29. ①~⑧ 1호 와적시설 유물 출토모습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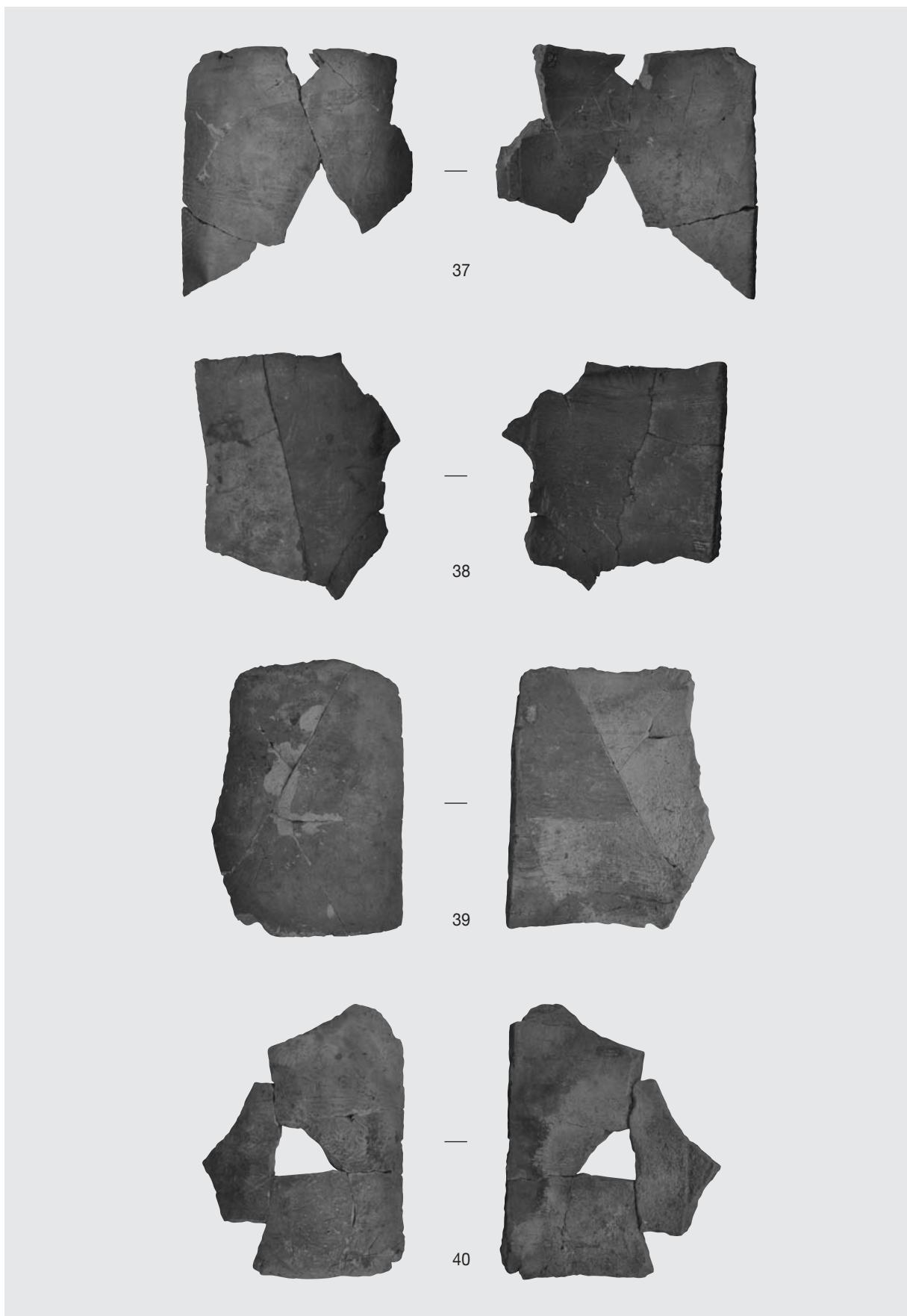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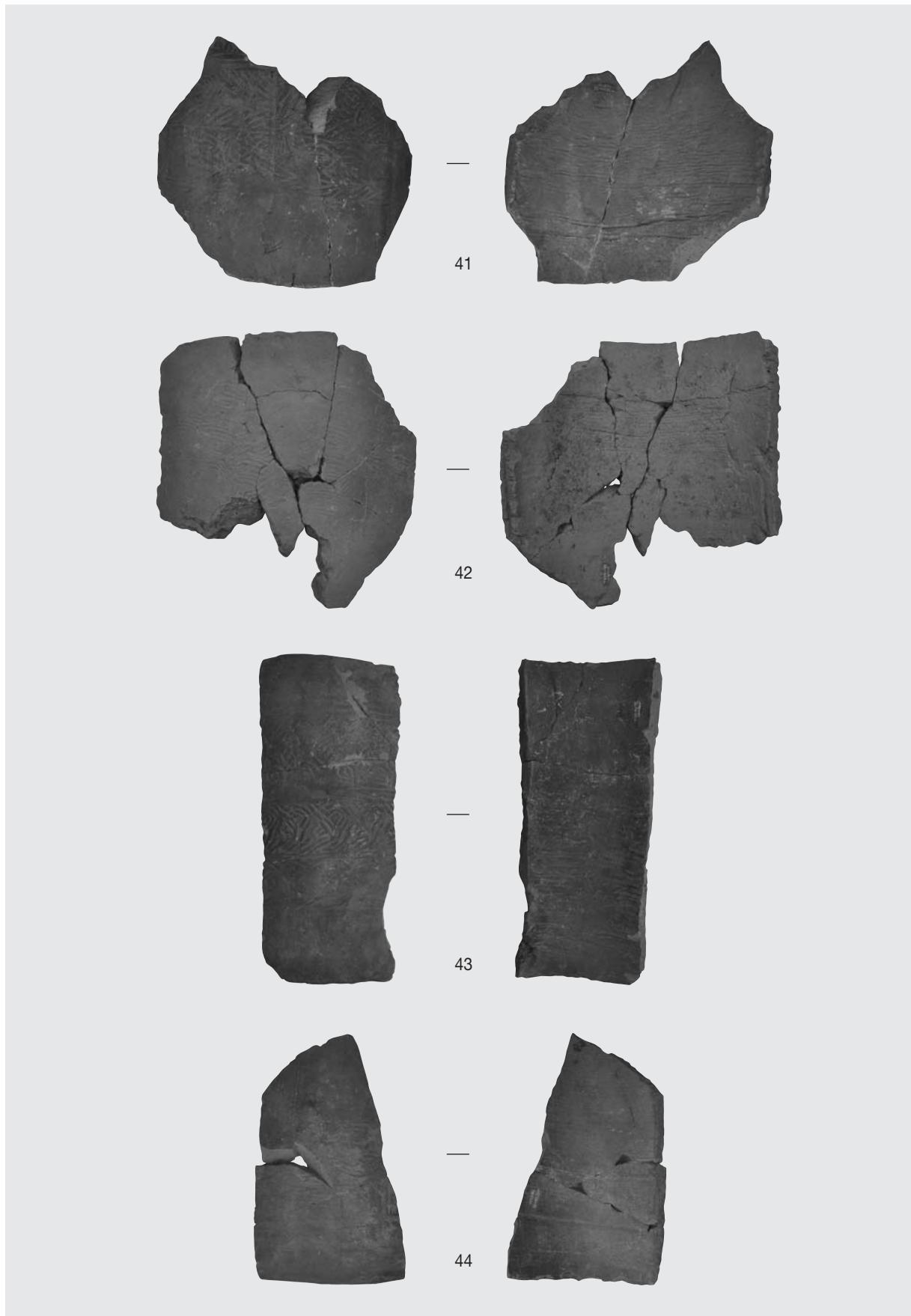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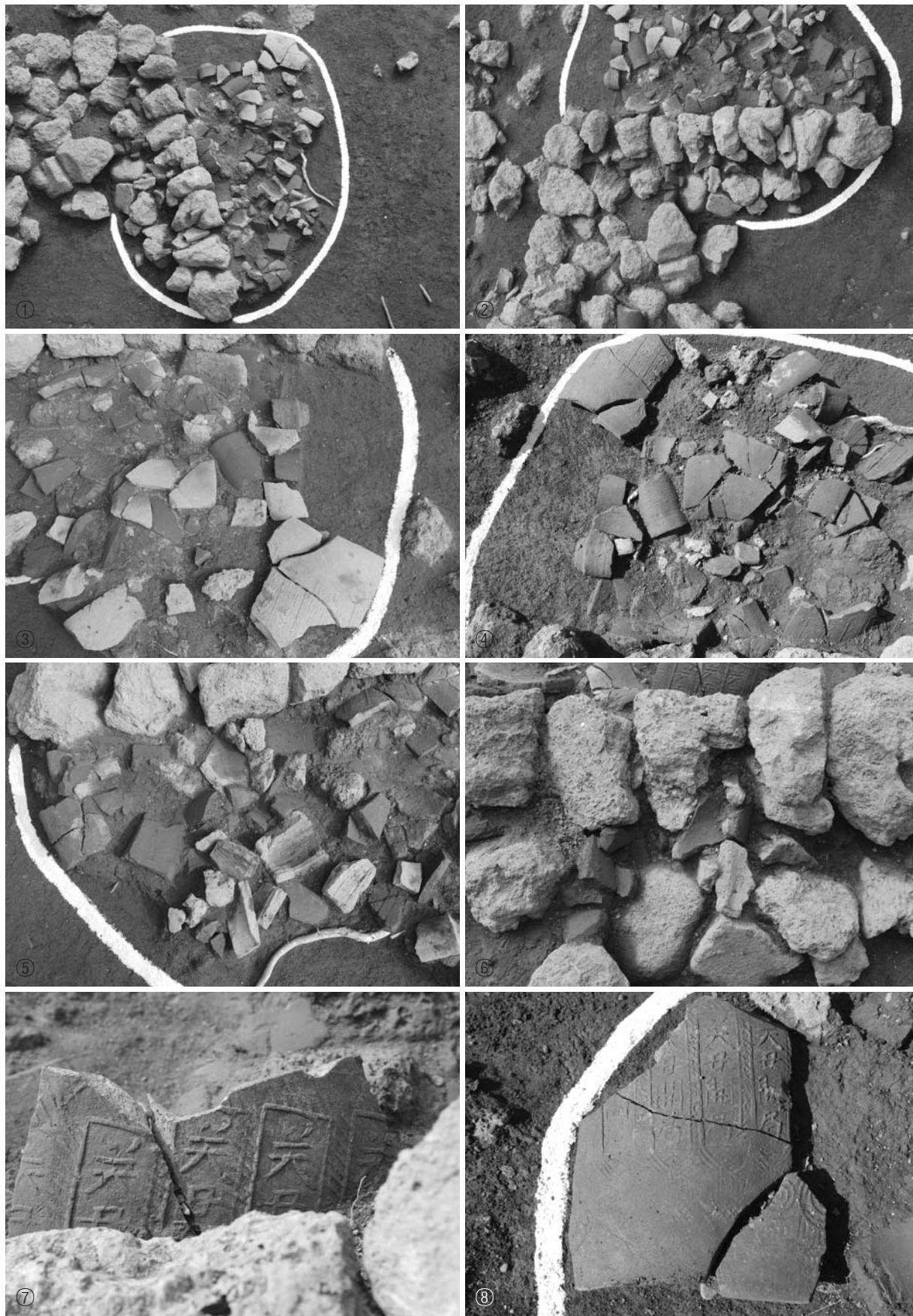
도판 30. 1호 와적시설 출토유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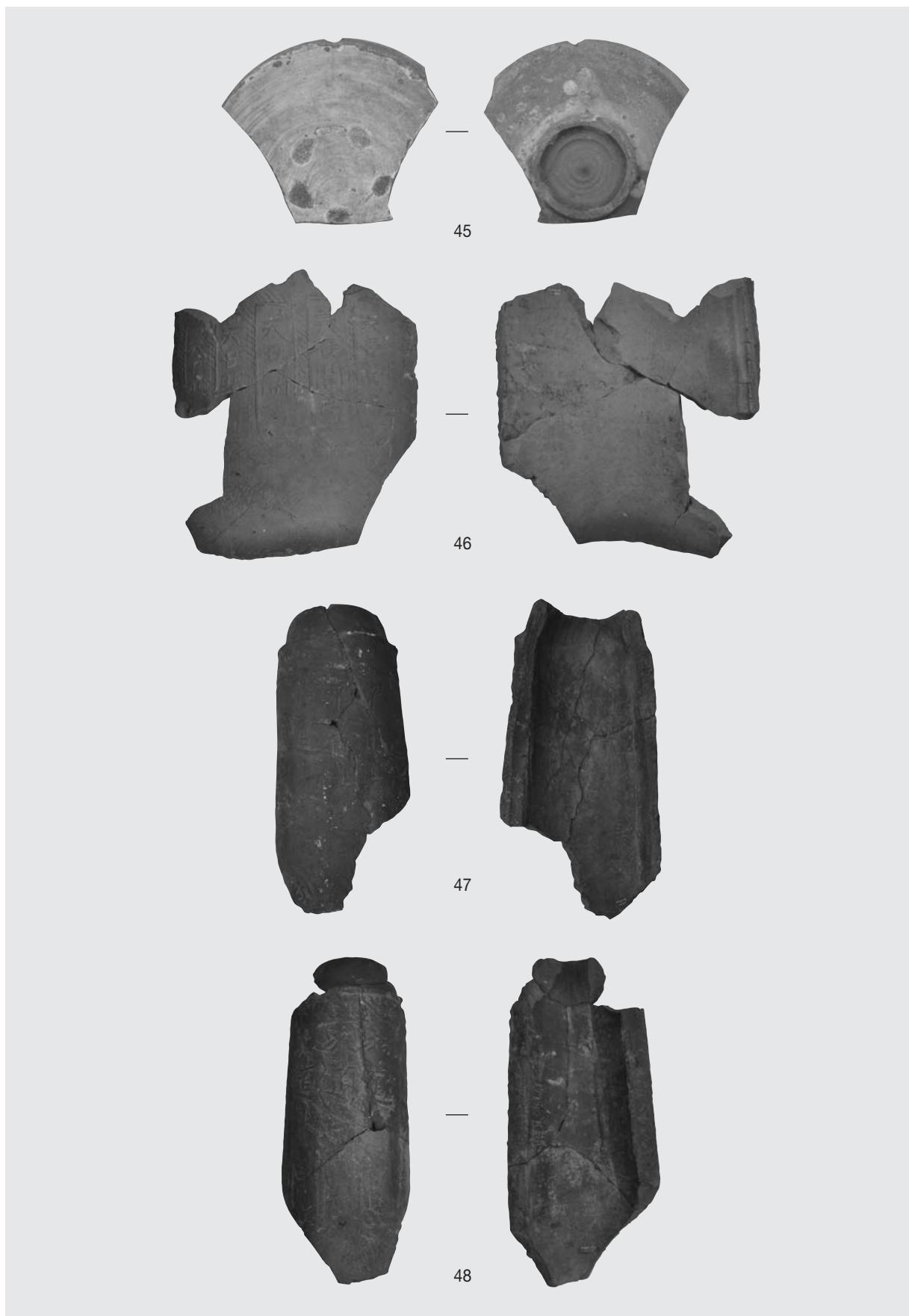
도판 31. 1호 와적시설 출토유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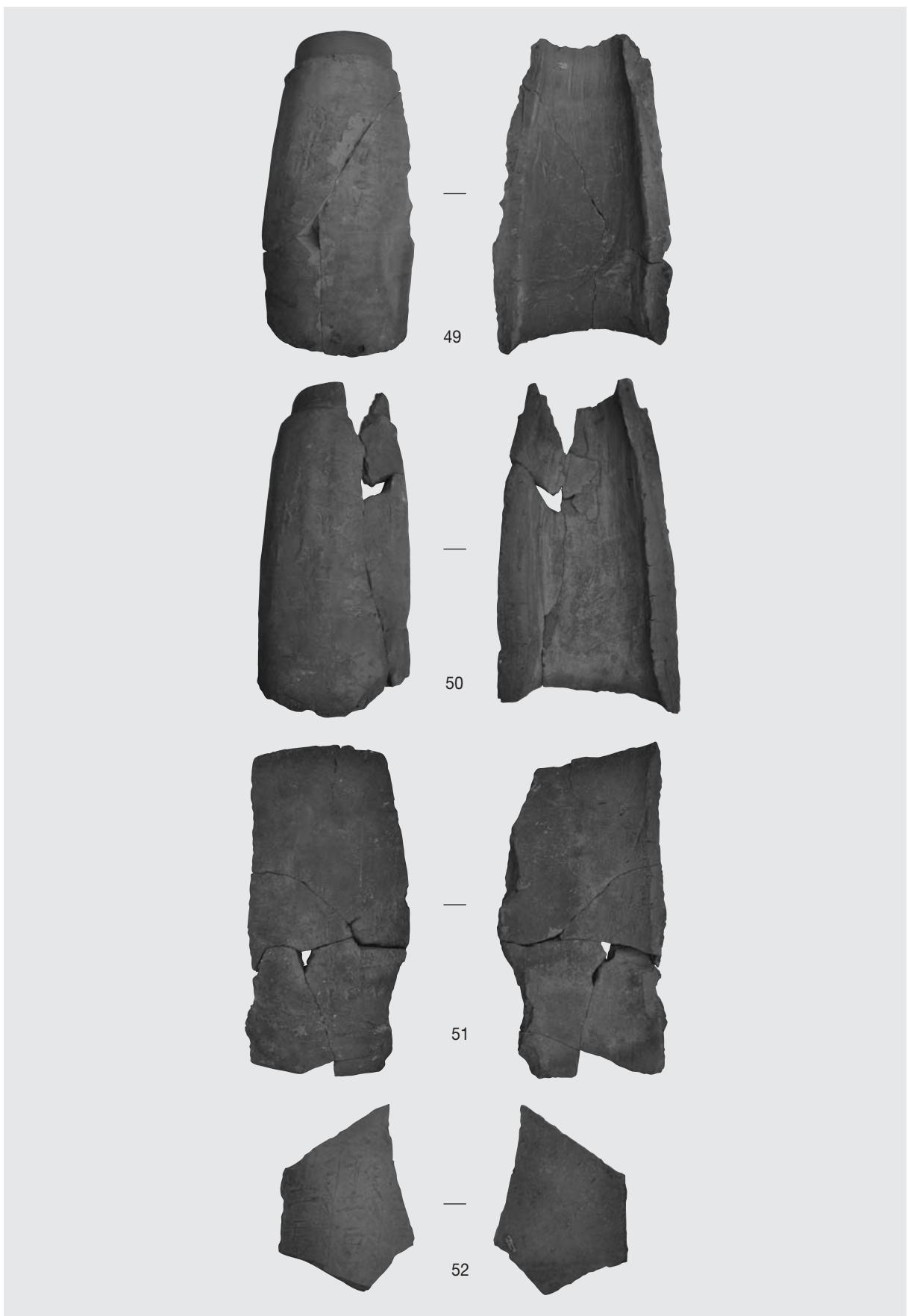
도판 32. 1호 와적시설 출토유물(3)



도판 33. ① 2호 와적시설 전경(북에서) ②~⑥ 세부모습 ⑦~⑧ 유물 출토모습



도판 34. 2호 와적시설 출토유물(1)



도판 35. 2호 와적시설 출토유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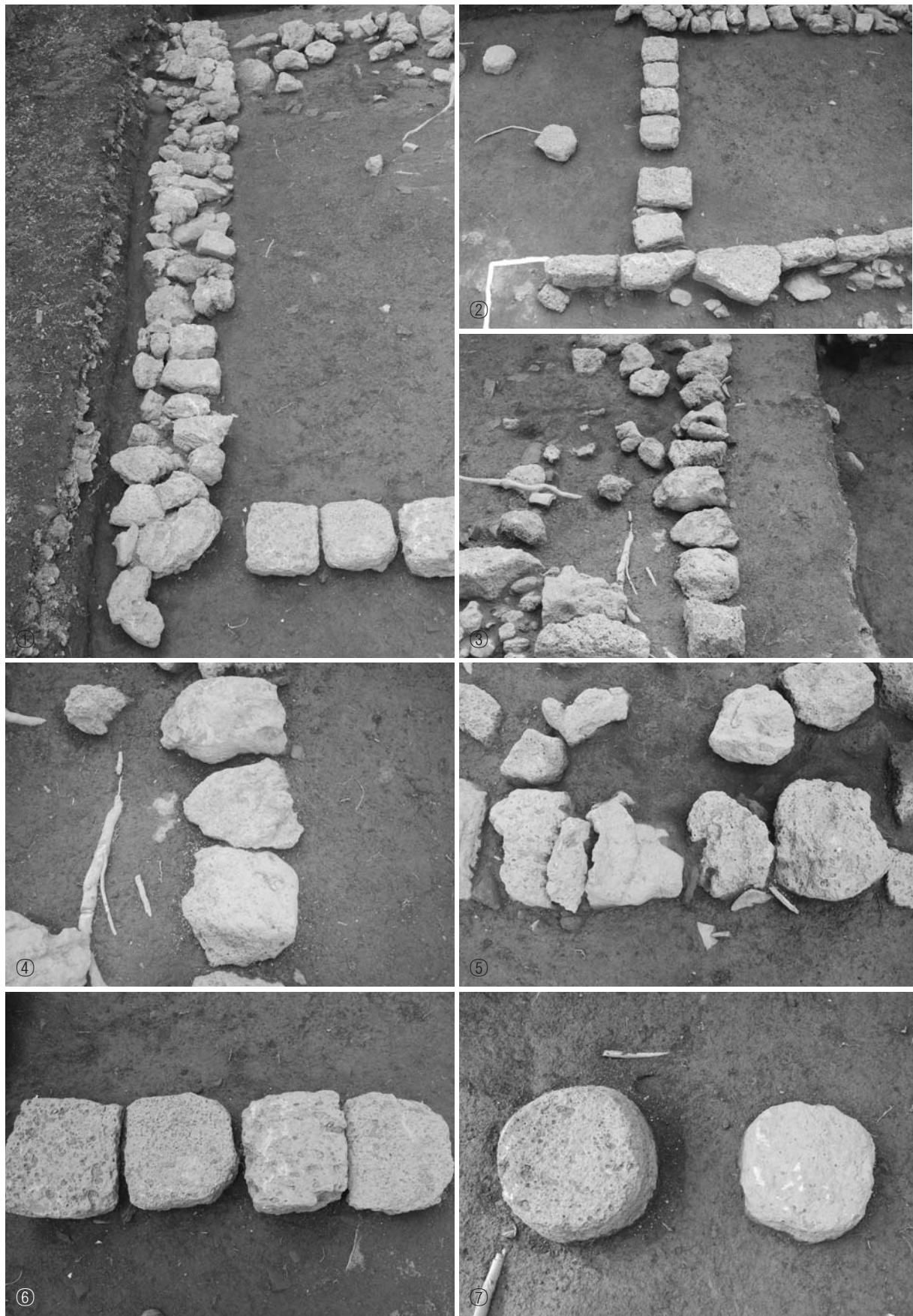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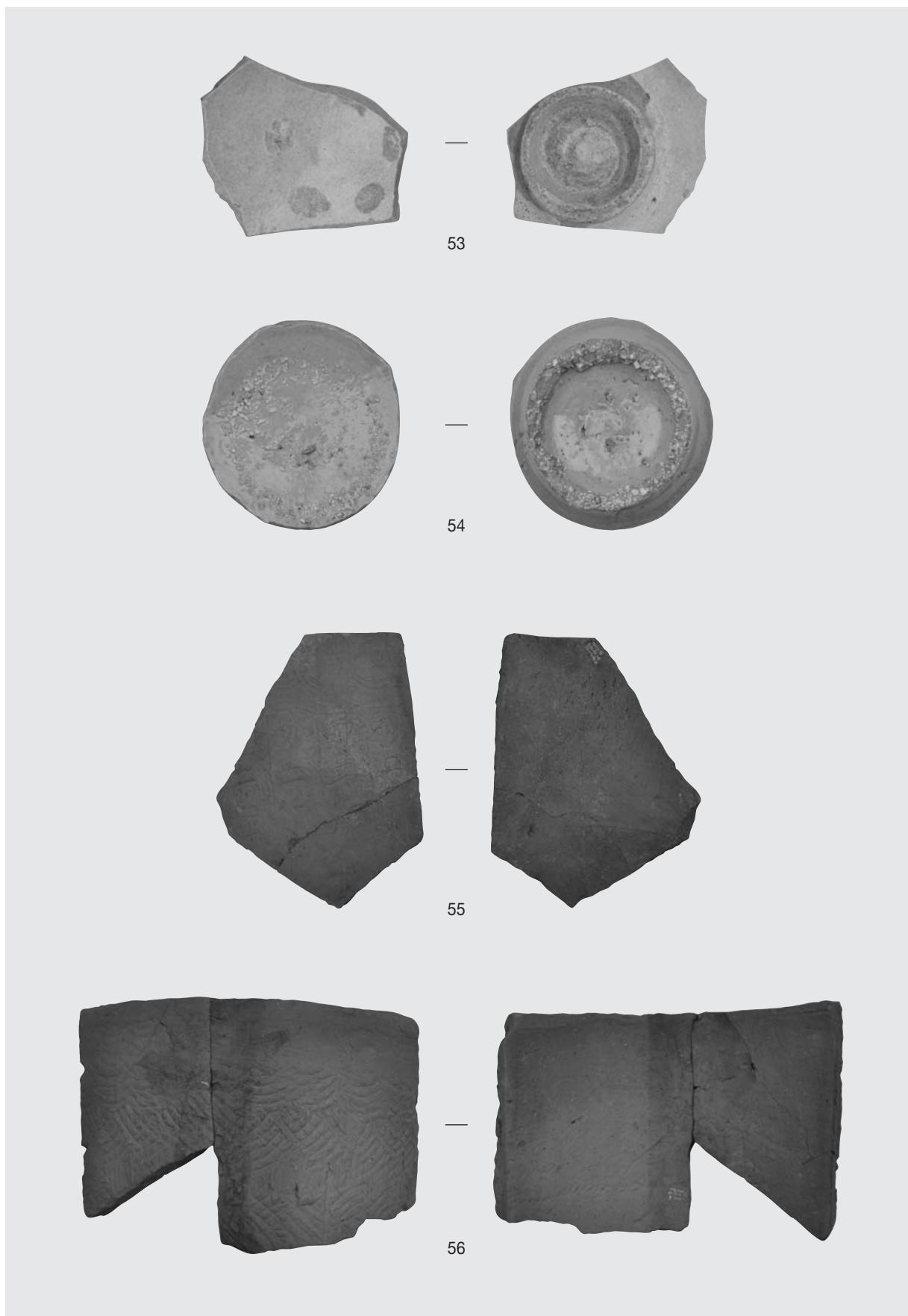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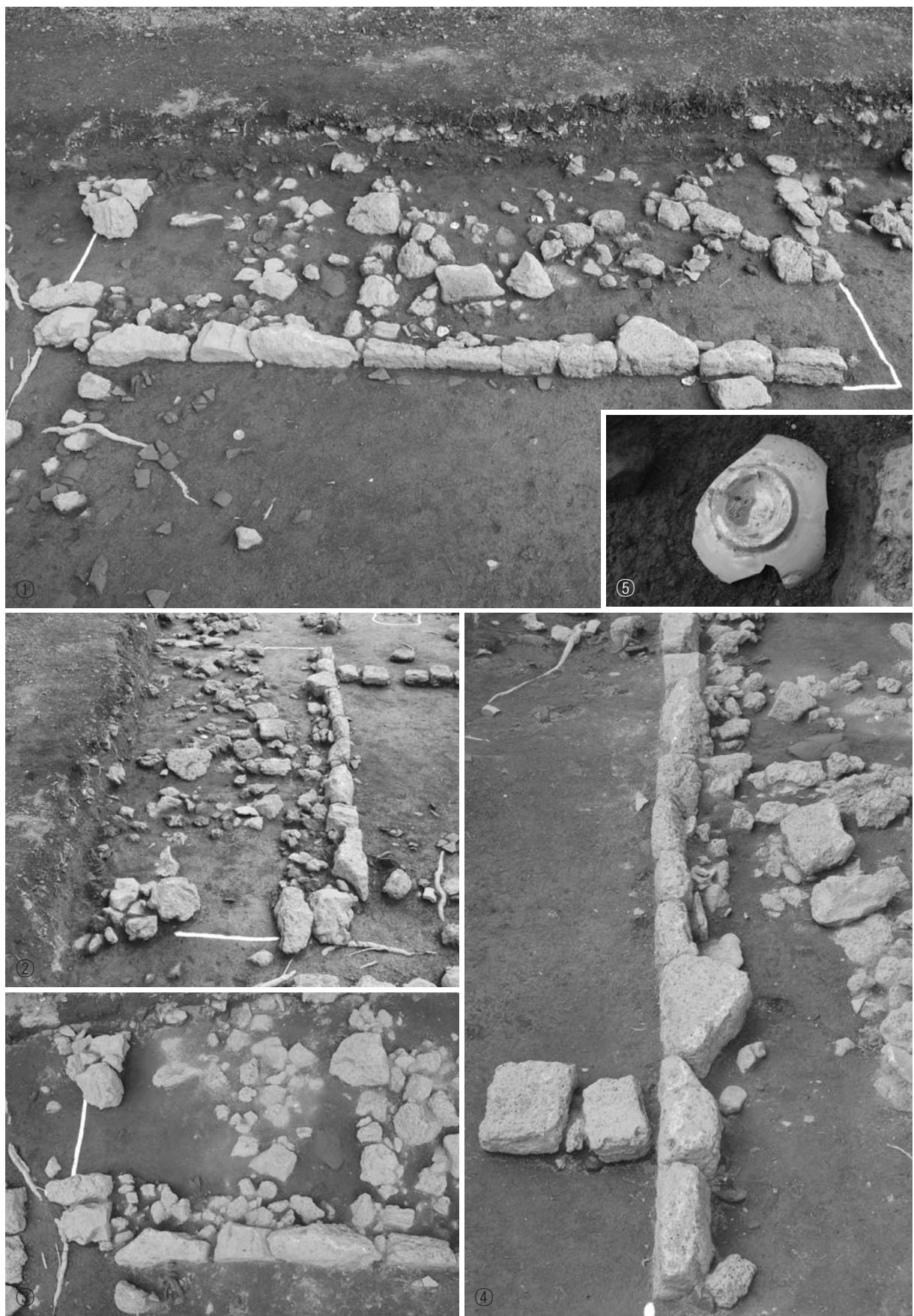
도판 36. ① 1호 · 2호 근대 건물지 전경(북에서) ② 1호 근대 건물지 전경(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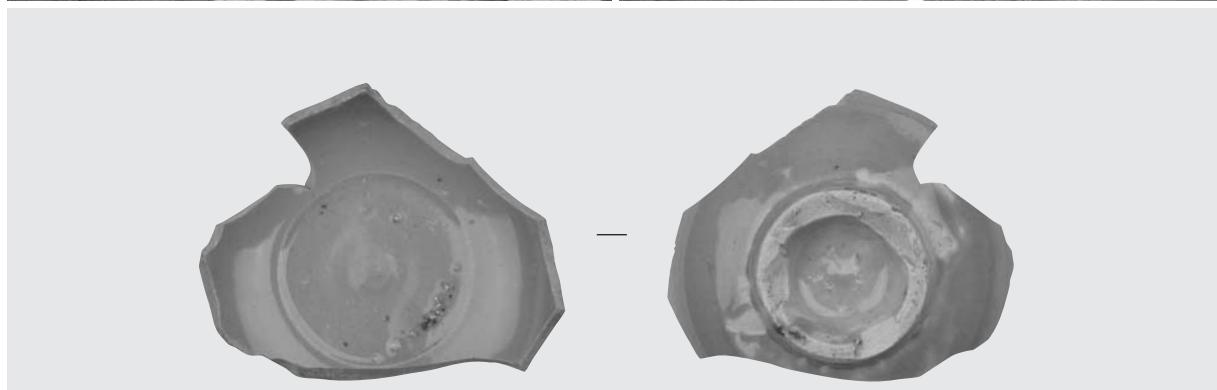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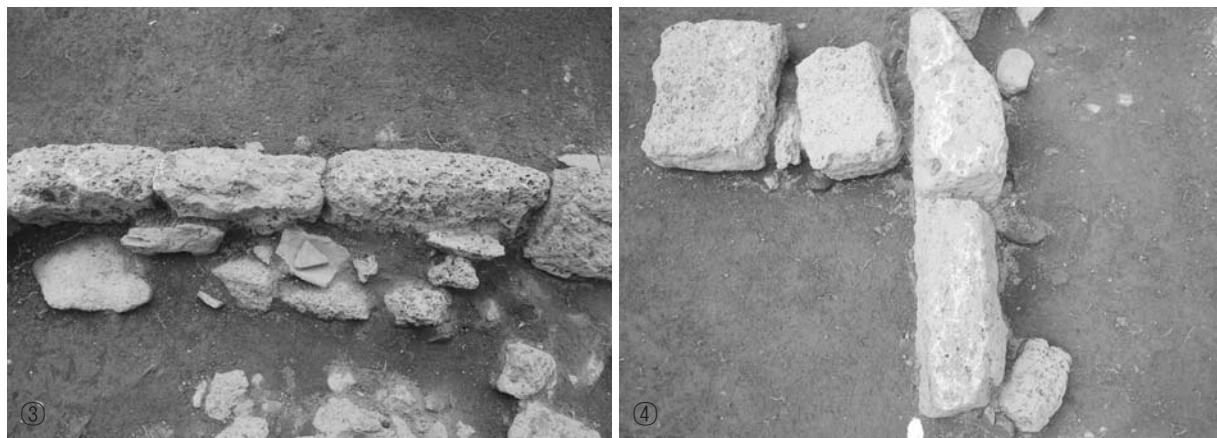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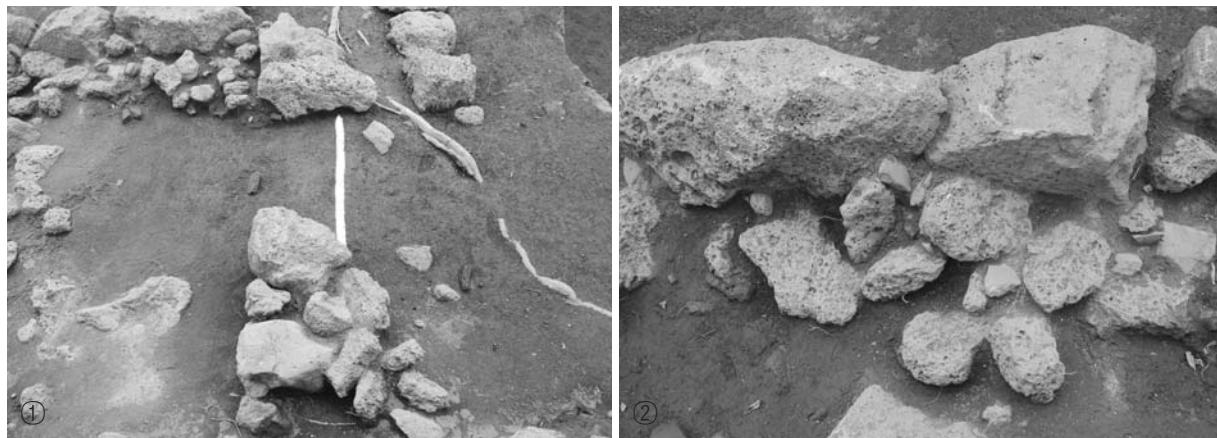
도판 37. ①~③ 1호 근대 건물지 기단 축조상태 ④~⑥ 기단석렬 세부 ⑦ 초석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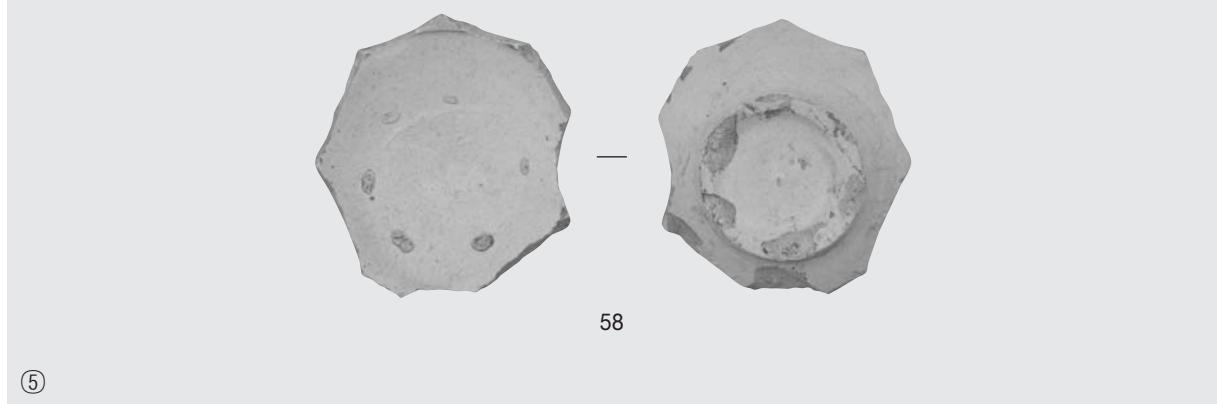
도판 38. 1호 근대 건물지 출토유물



도판 39. ① 2호 근대 건물지 전경(남에서) ② 전경(서에서) ③~④ 기단석렬 축조상태 ⑤ 유물 출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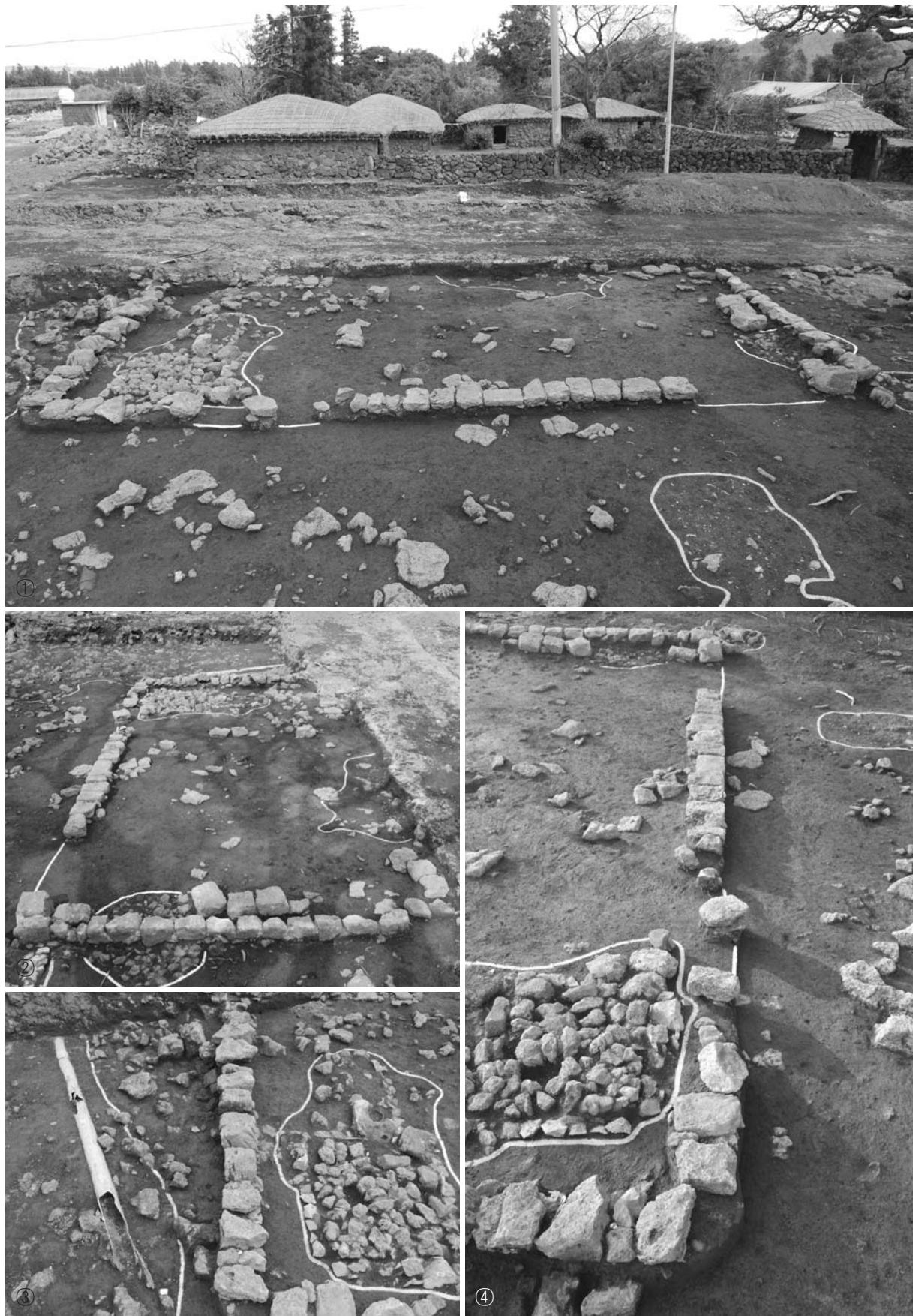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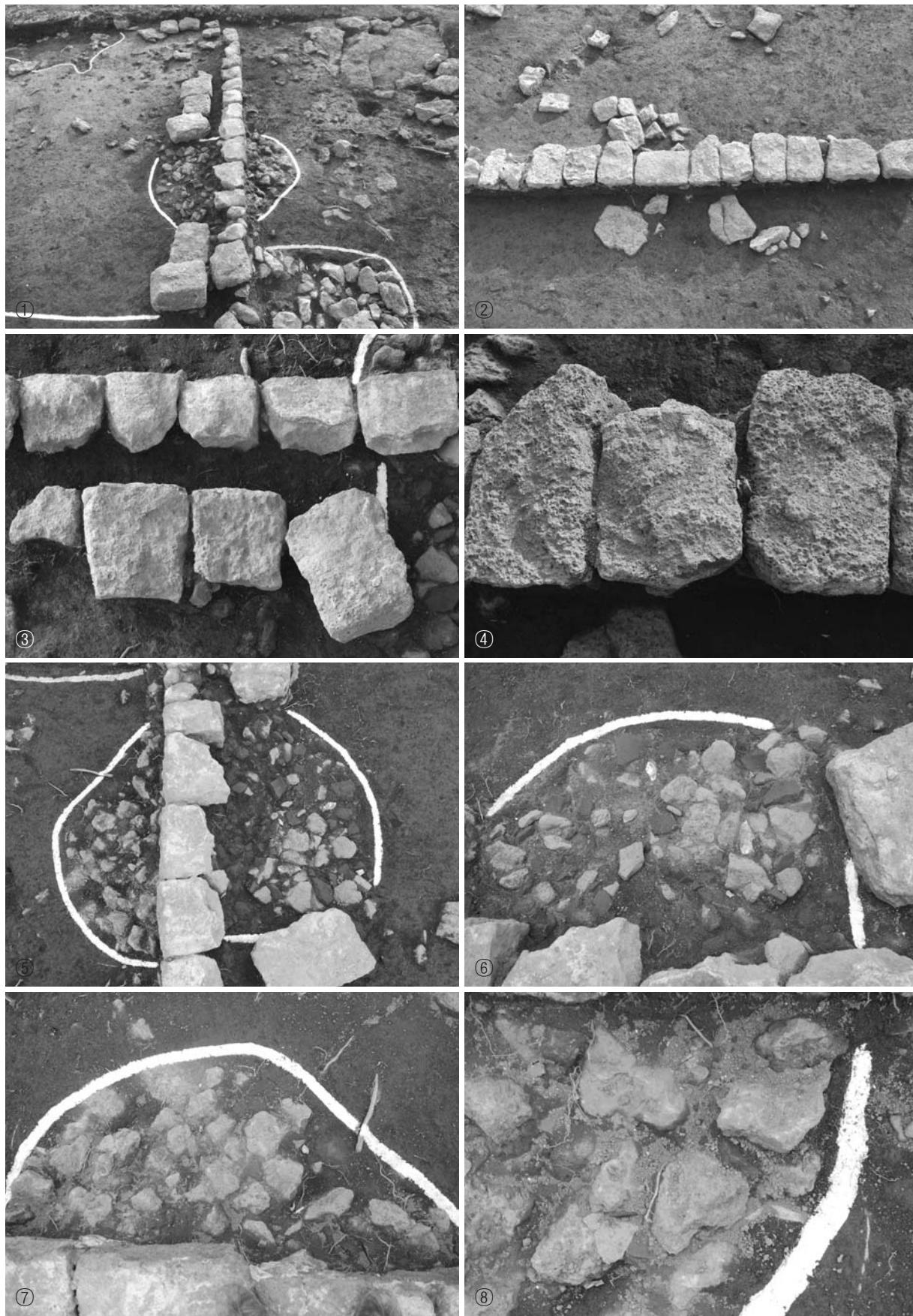
58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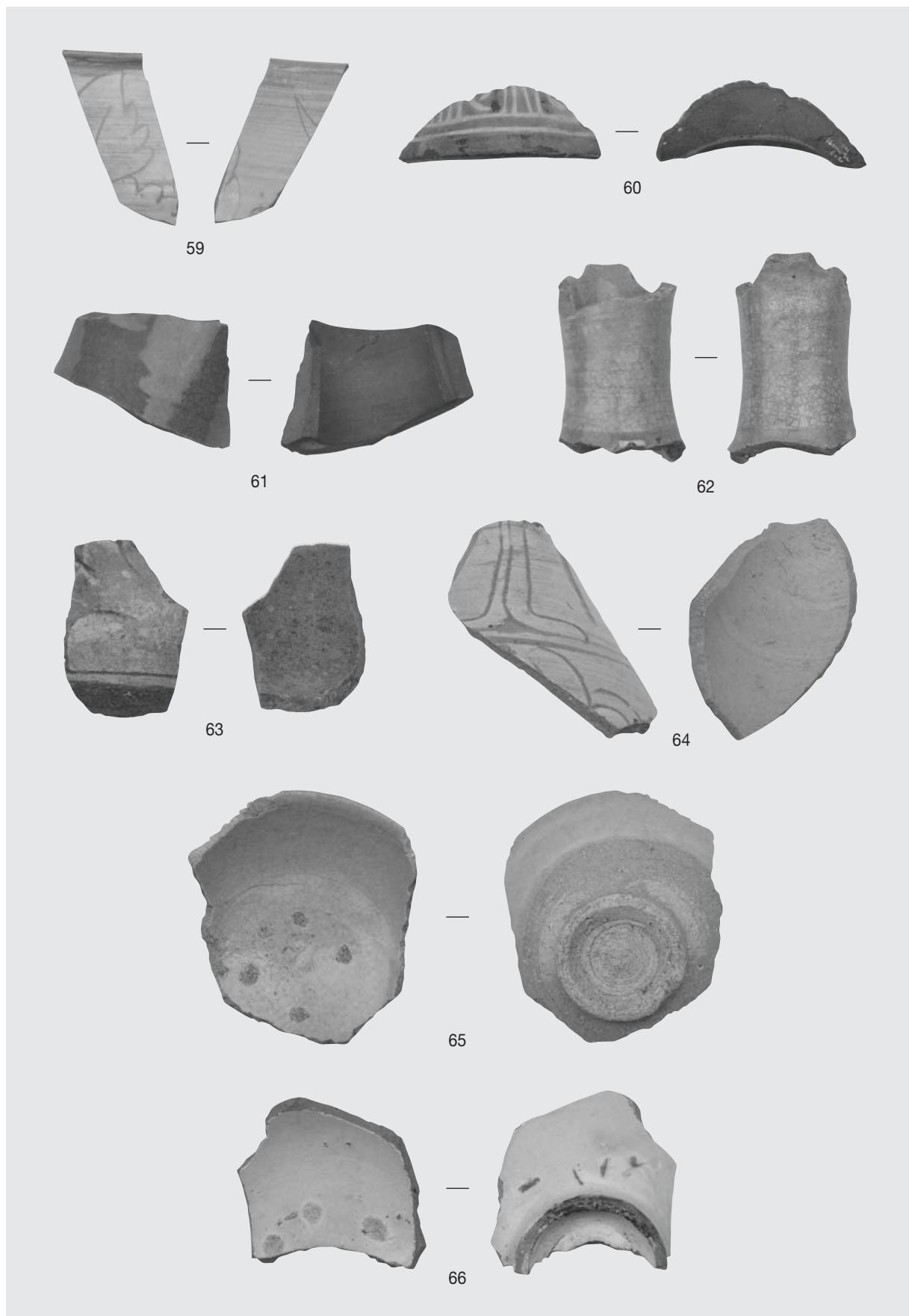
도판 40. ①~④ 2호 근대 건물지 기단석렬 세부 ⑤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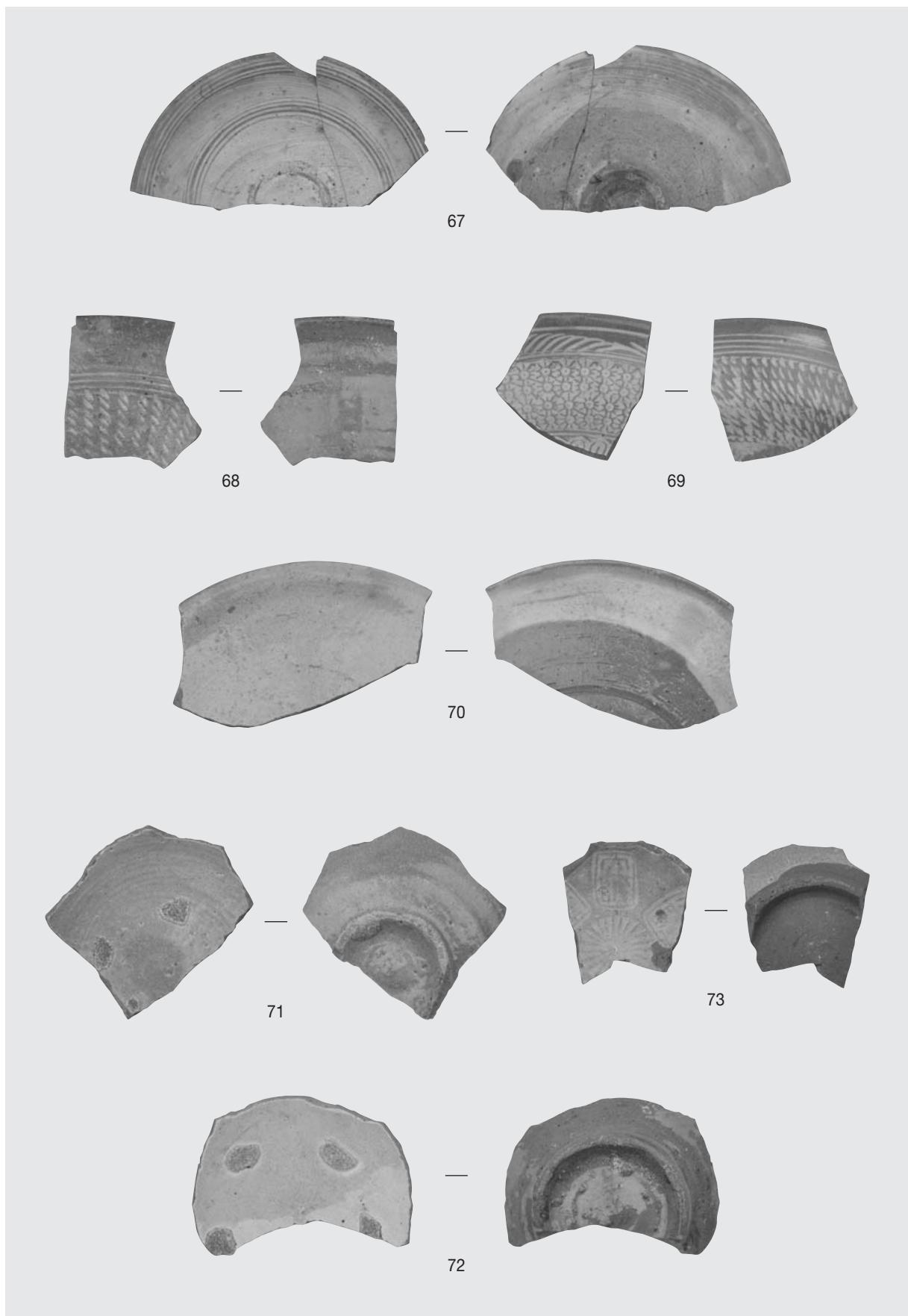
도판 41. ① 3호 근대 건물지 전경(서에서) ② 전경(남에서) ③~④ 기단석렬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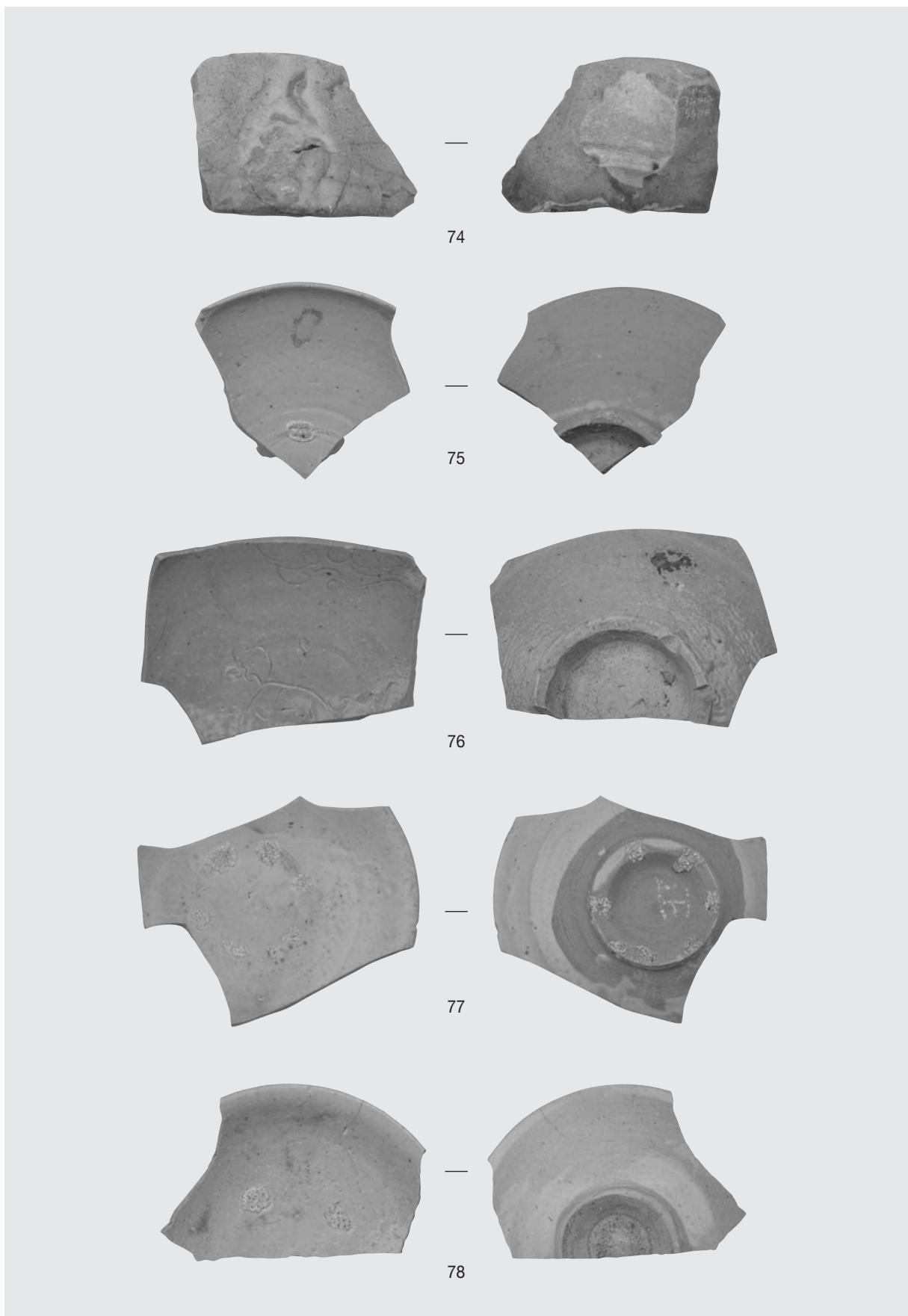
도판 42. ①~④ 3호 근대 건물지 기단석렬 노출상태 ⑤~⑧ 적심석 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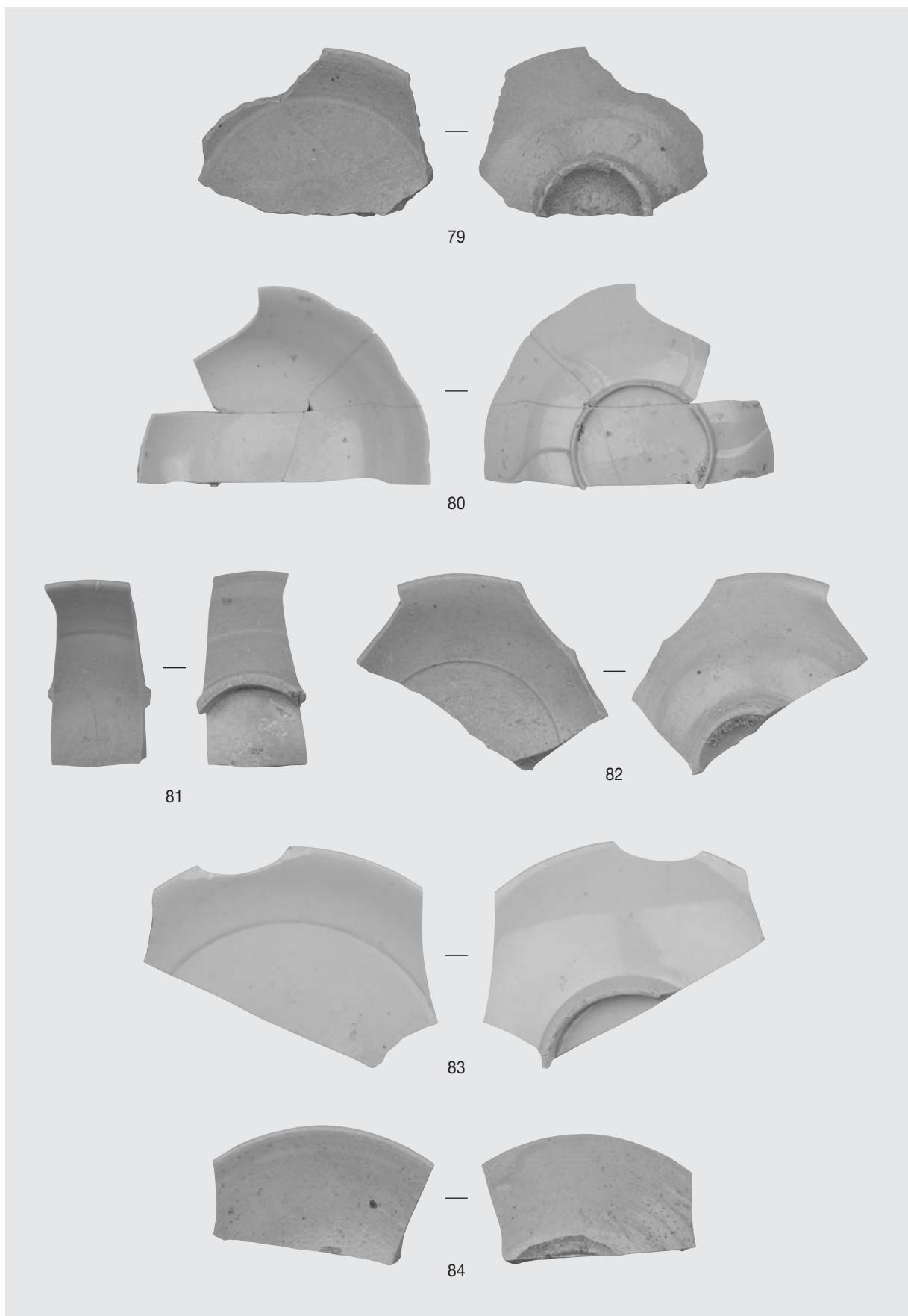
도판 43. 지표 수습유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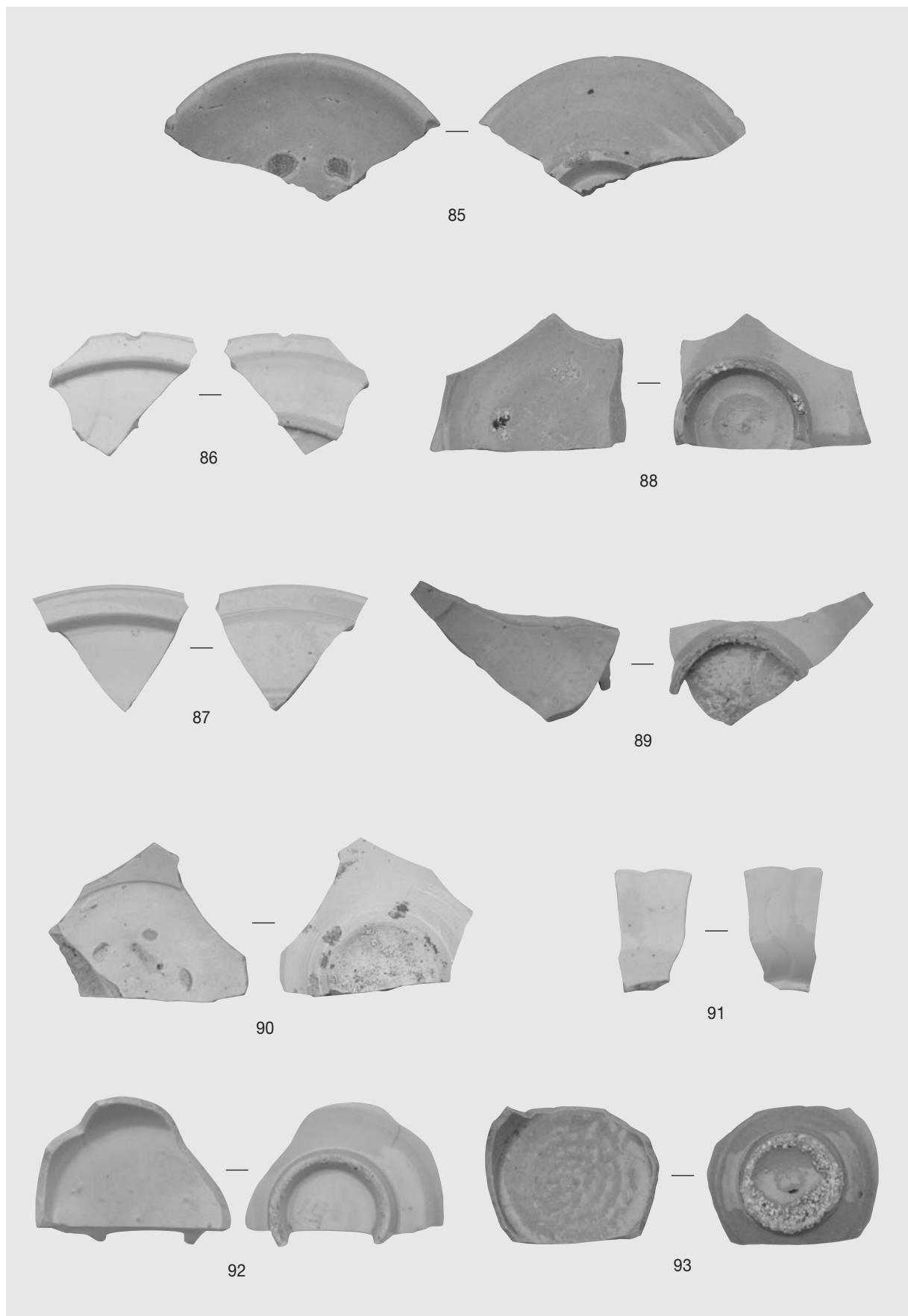
도판 44. 지표 수습유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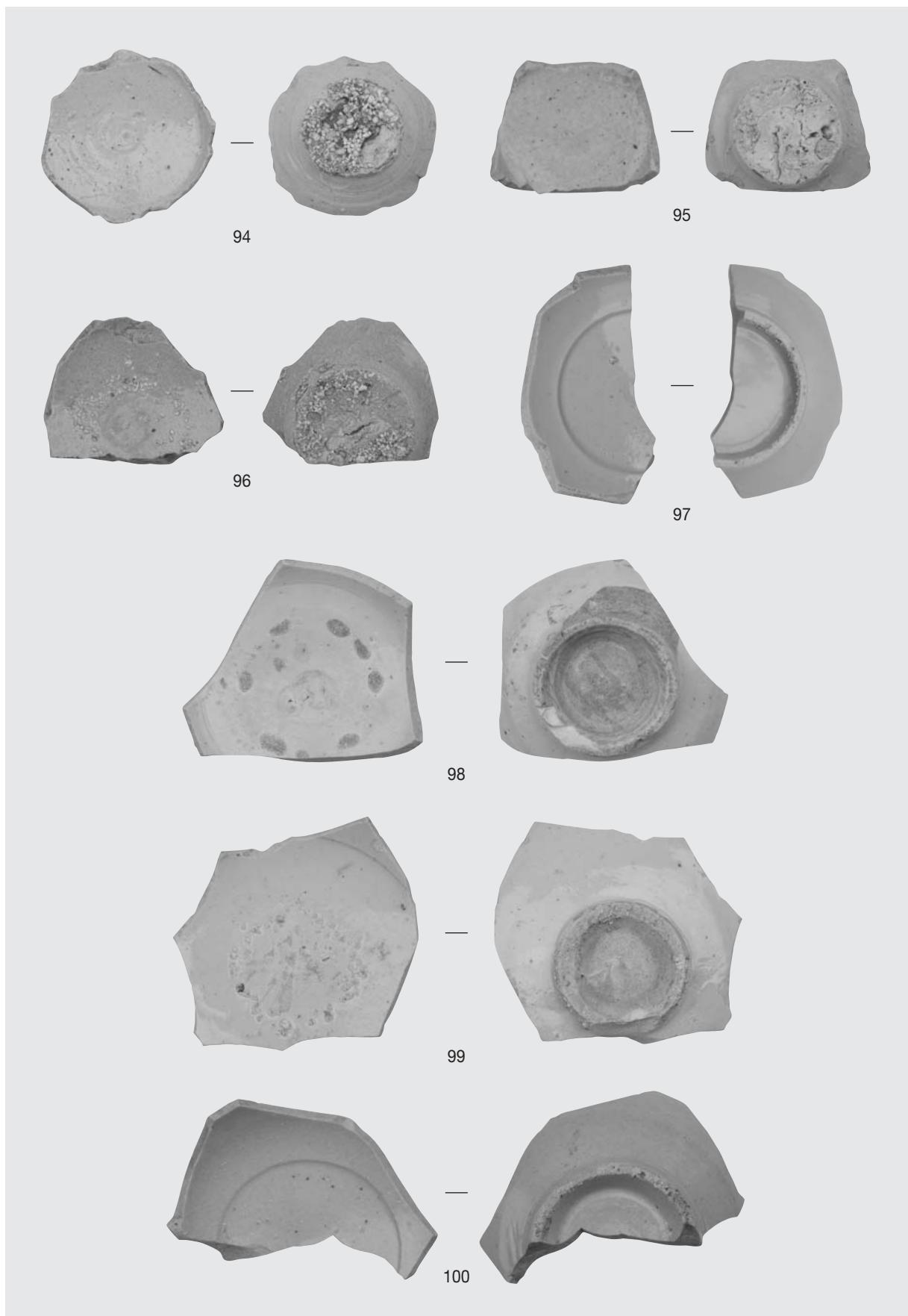
도판 45. 지표 수습유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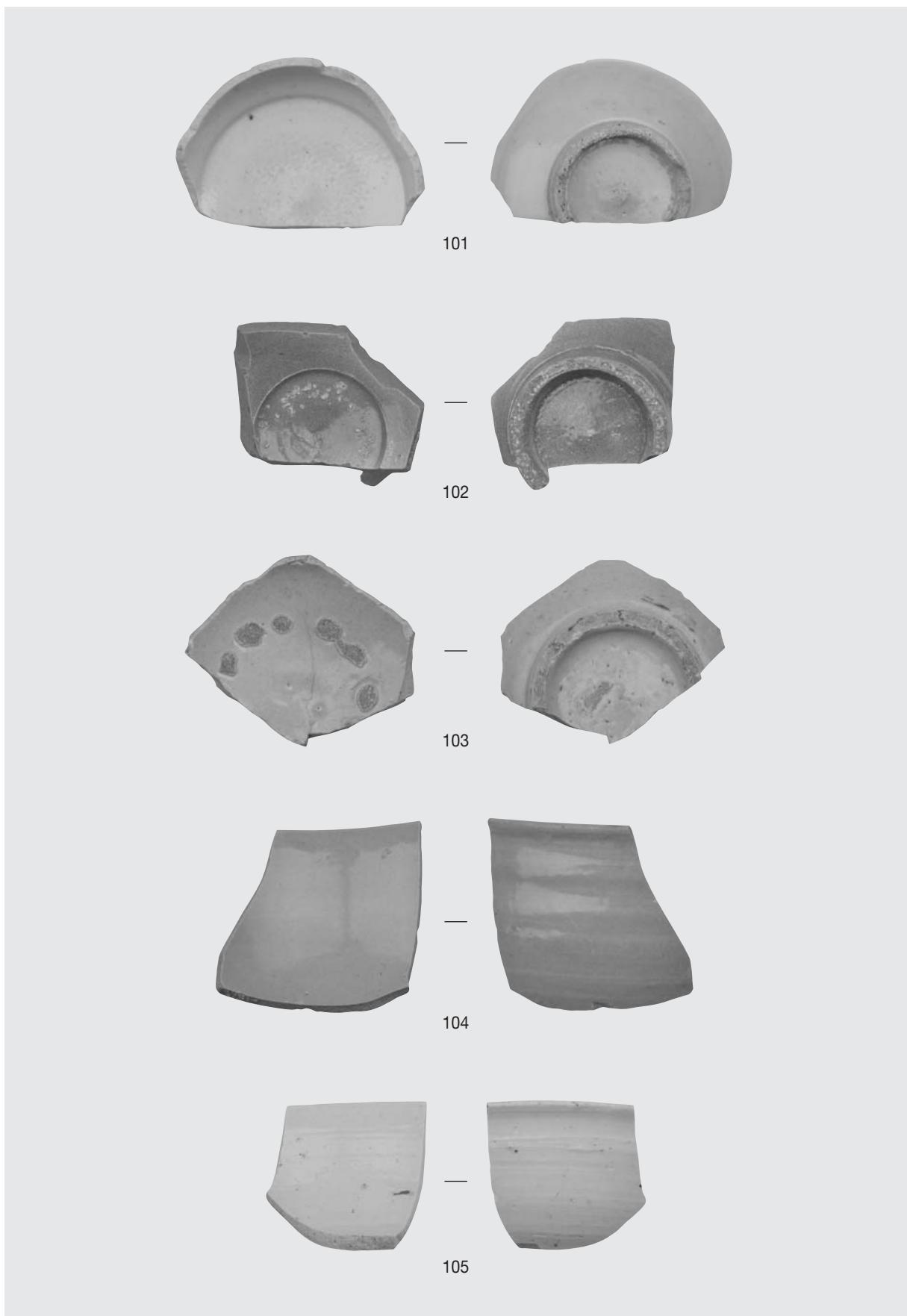
도판 46. 지표 수습유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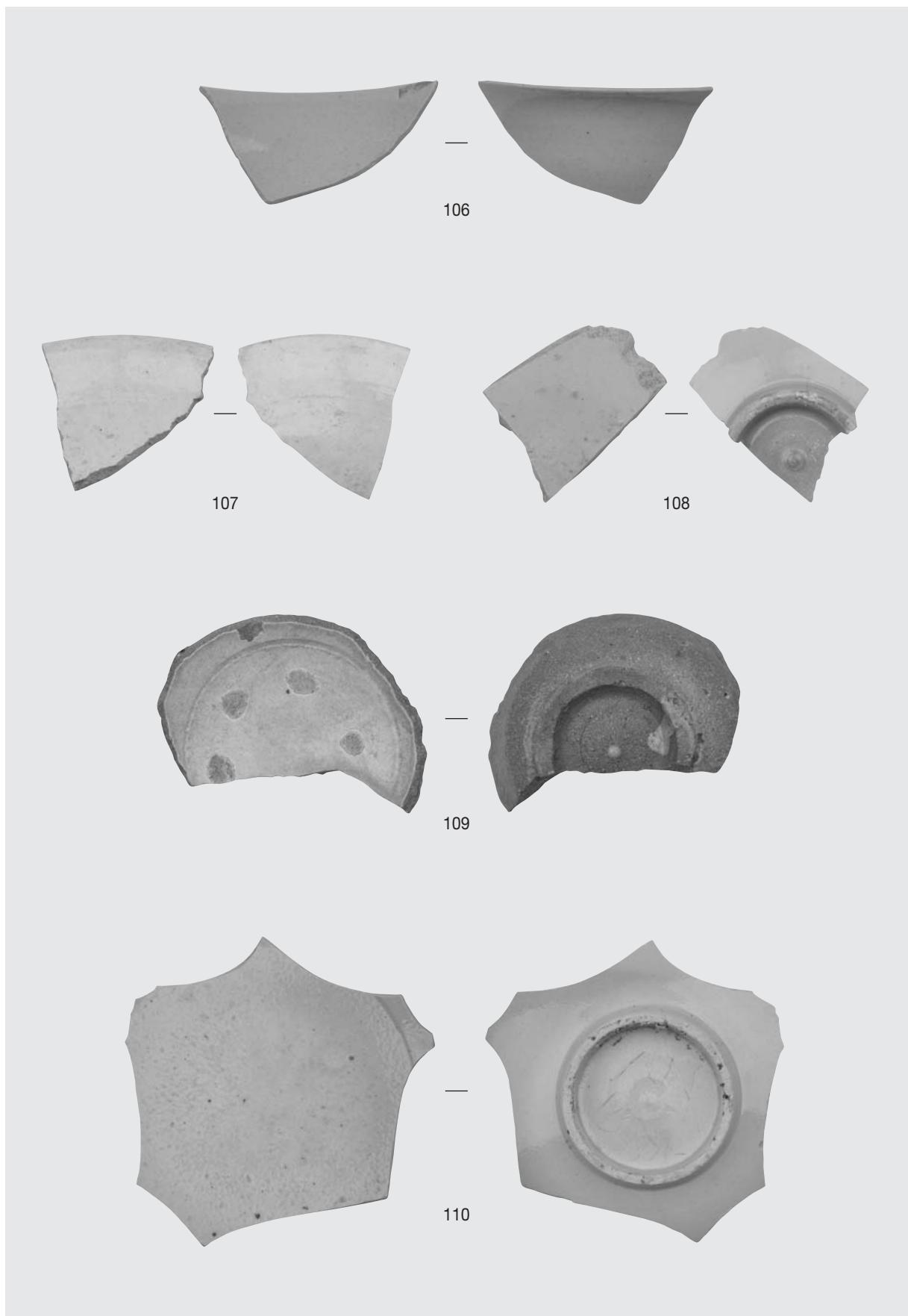
도판 47. 지표 수습유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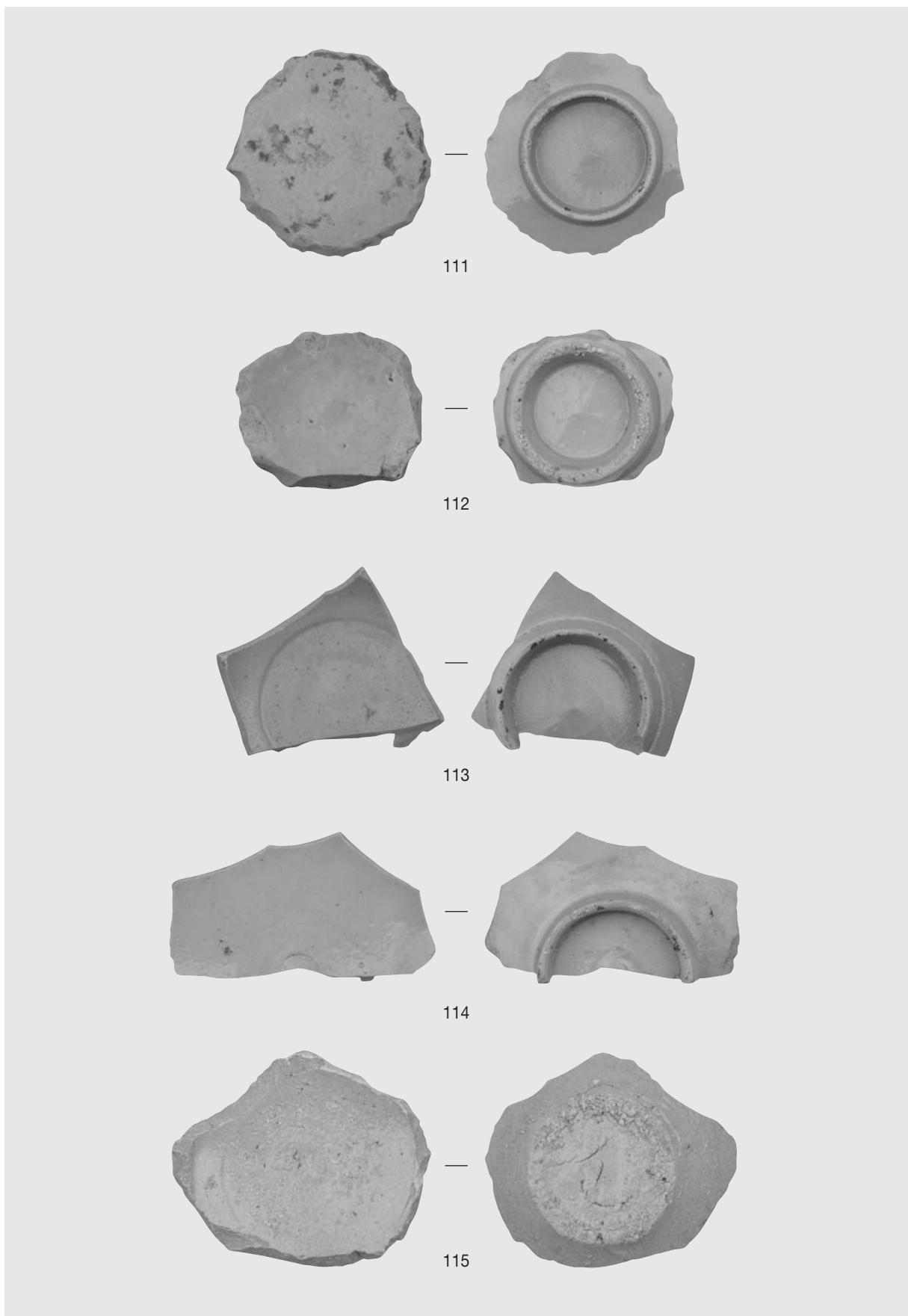
도판 48. 지표 수습유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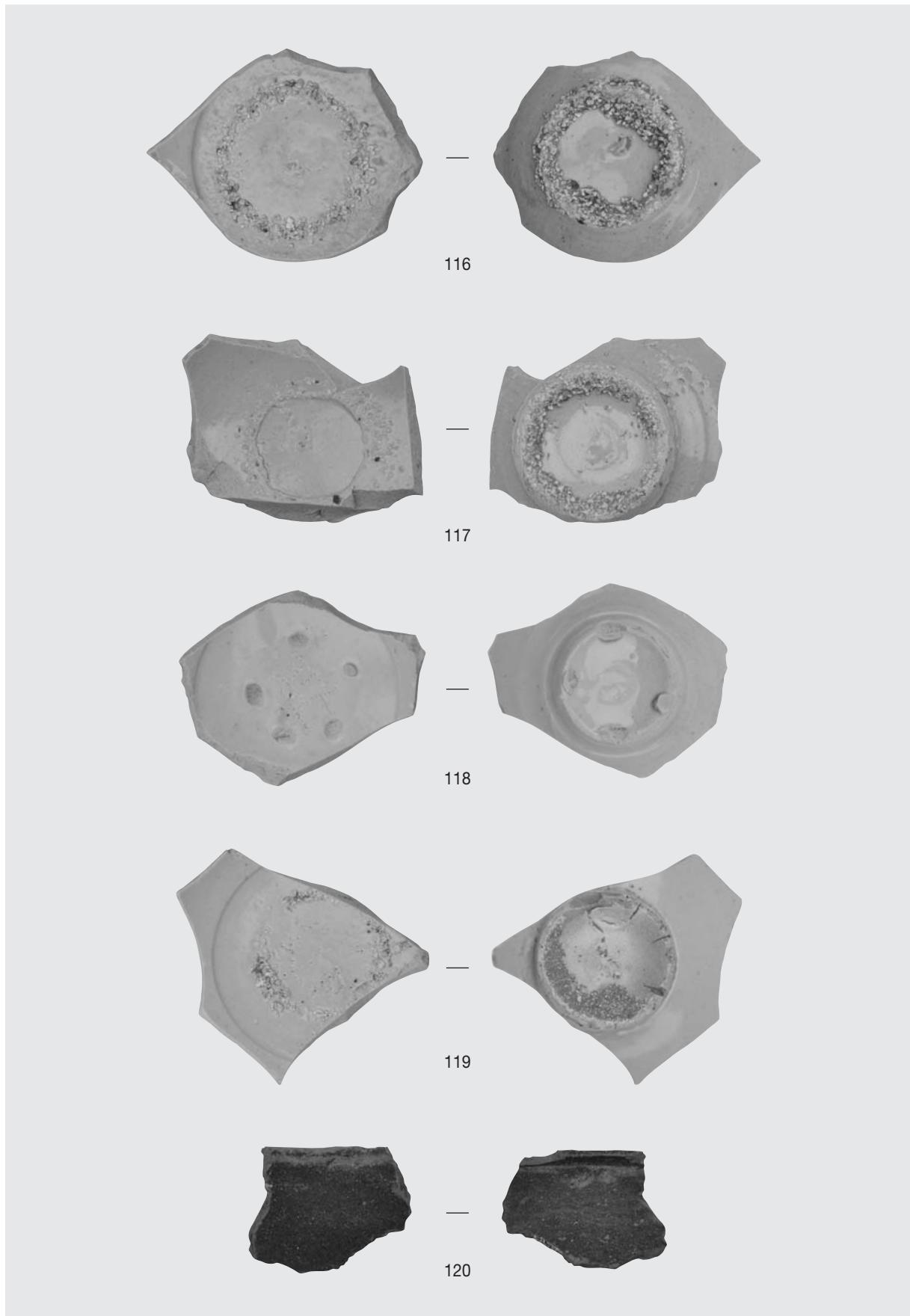
도판 49. 지표 수습유물(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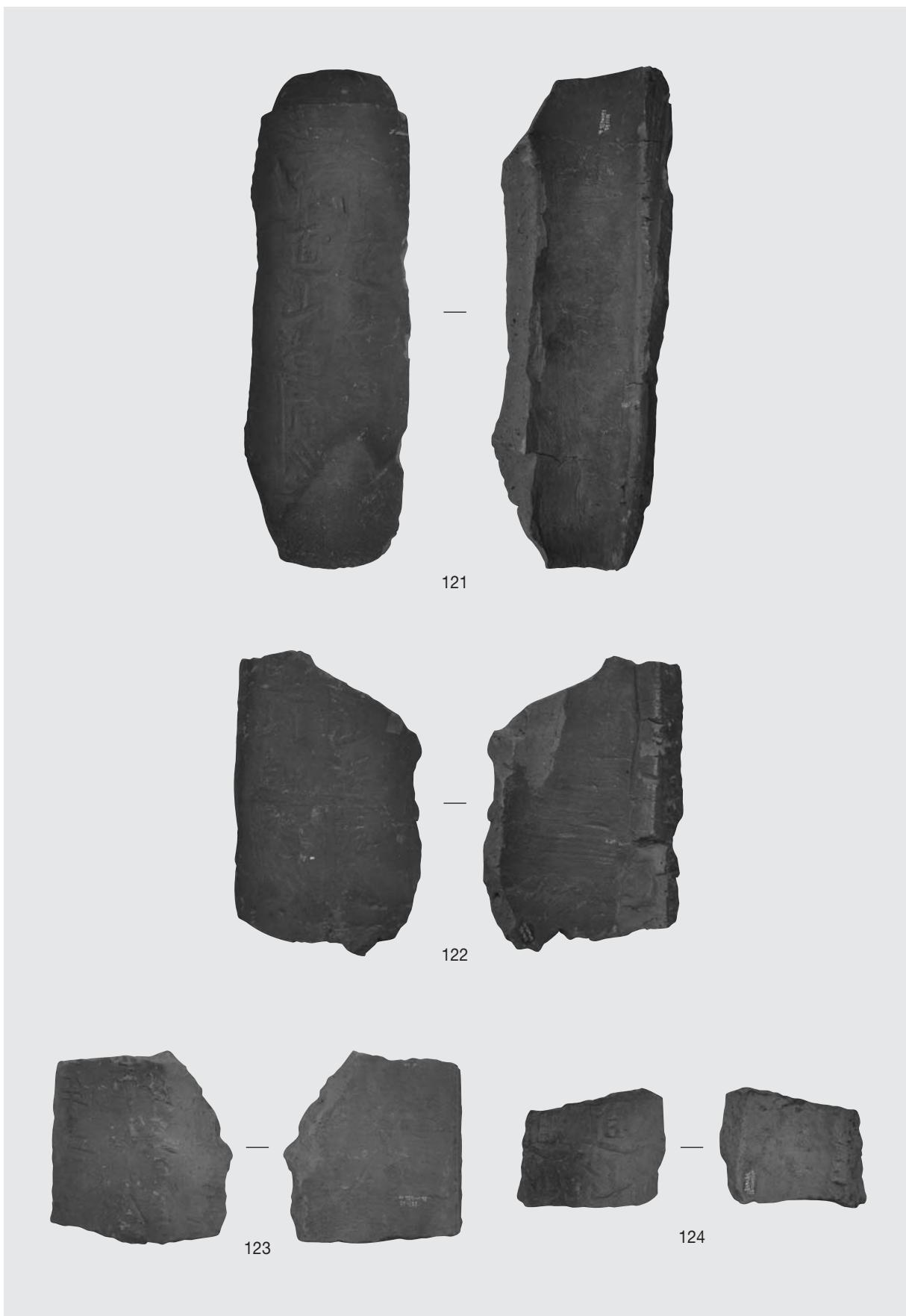
도판 50. 지표 수습유물(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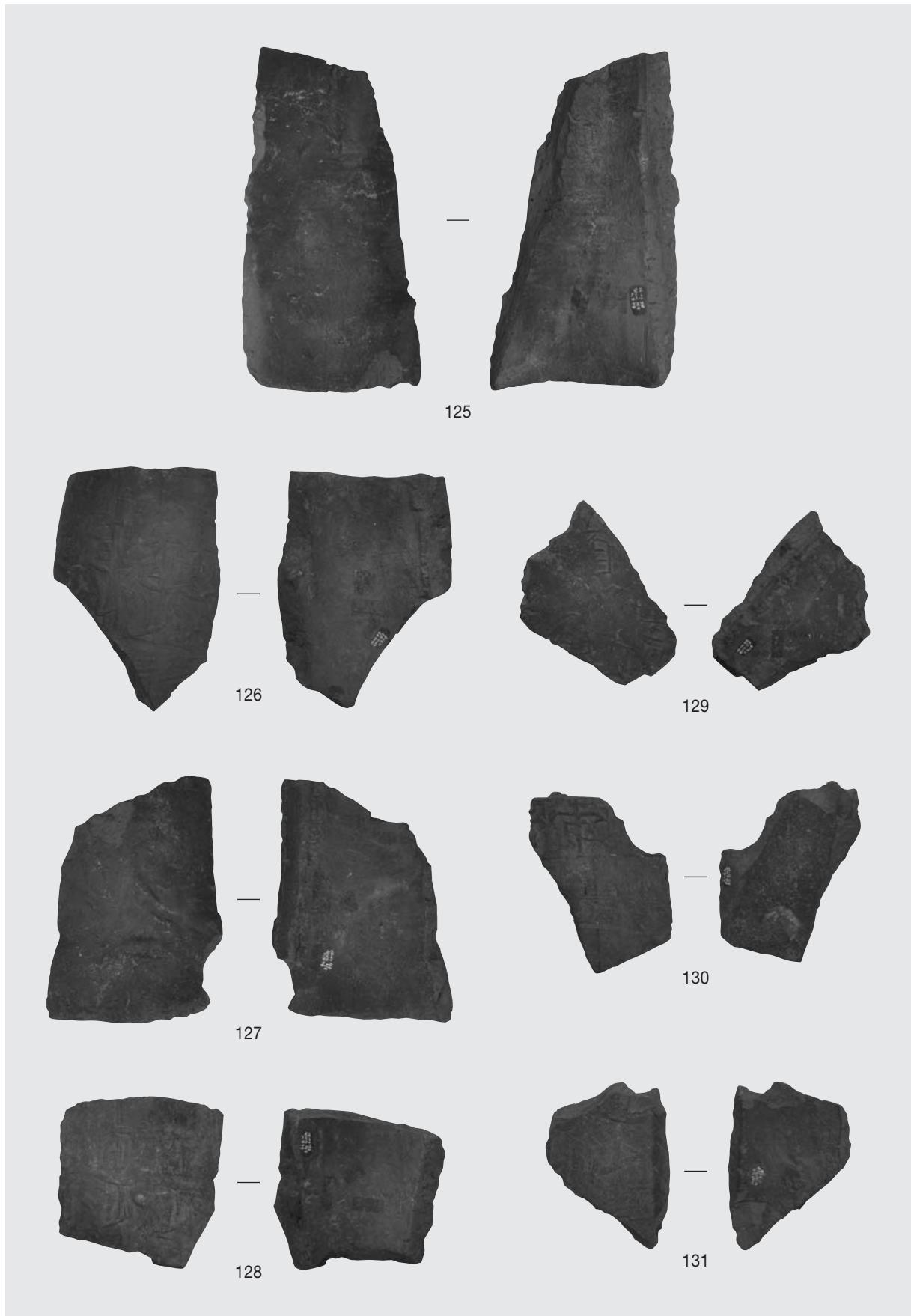
도판 51. 지표 수습유물(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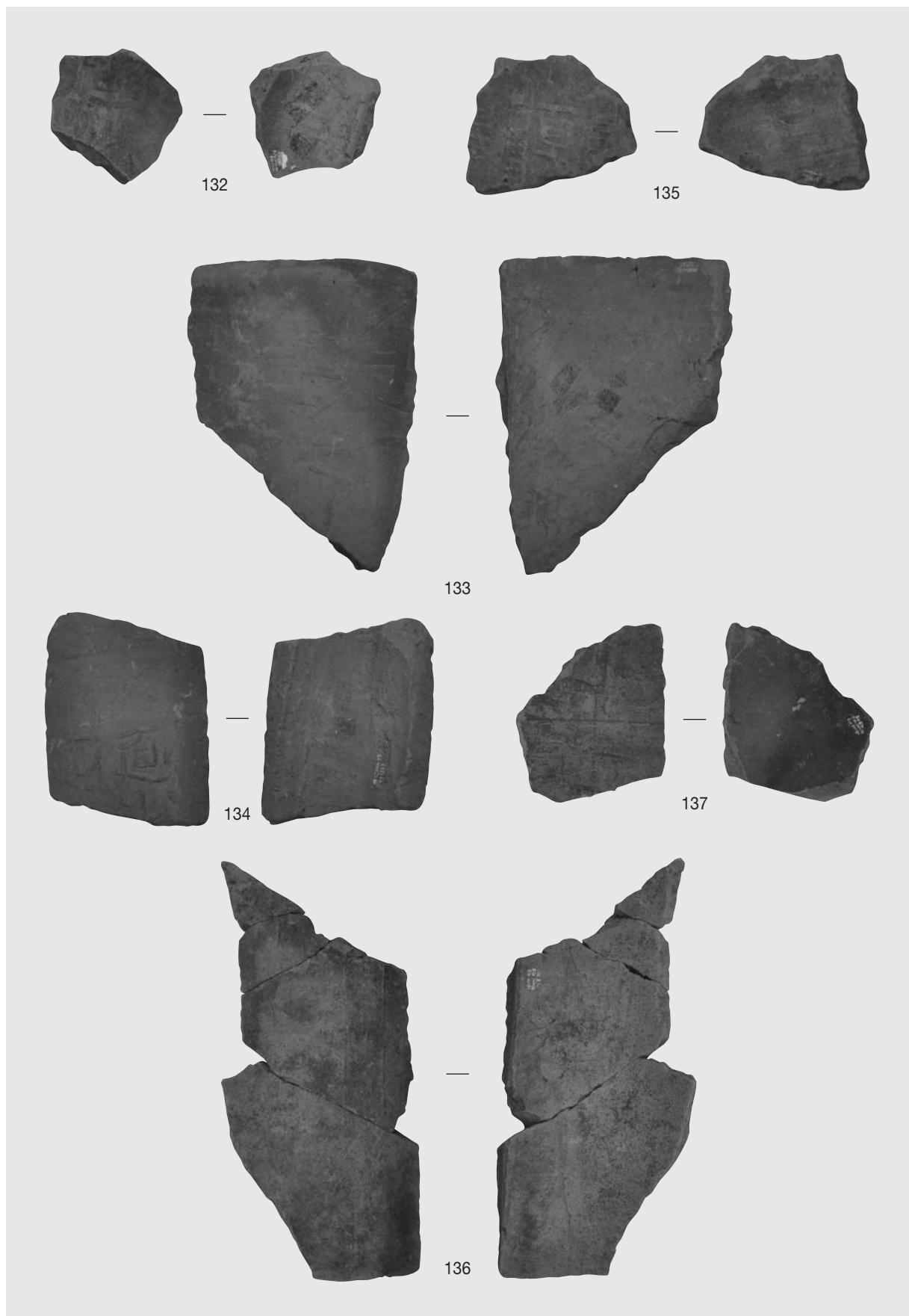
도판 52. 지표 수습유물(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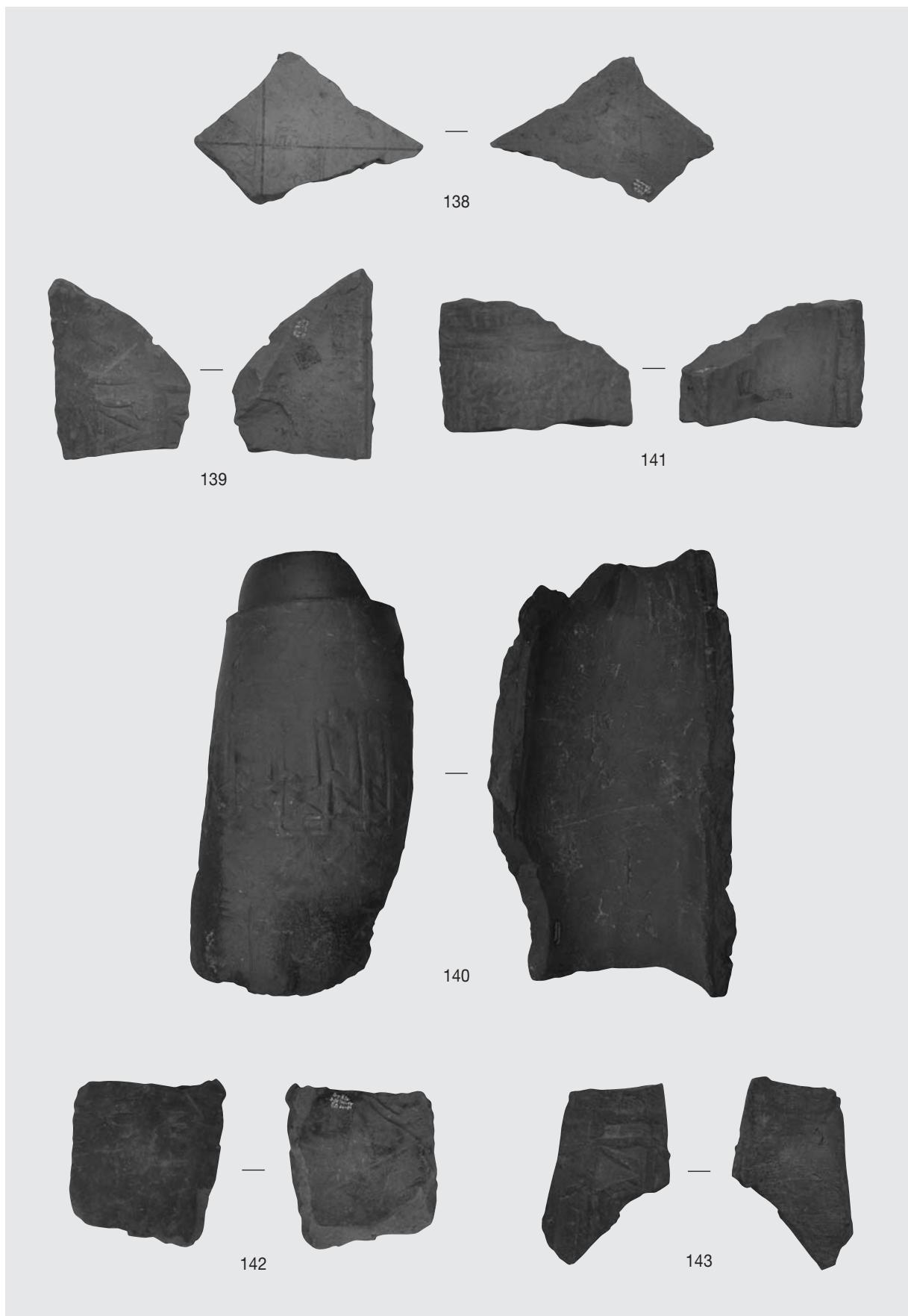
도판 53. 지표 수습유물(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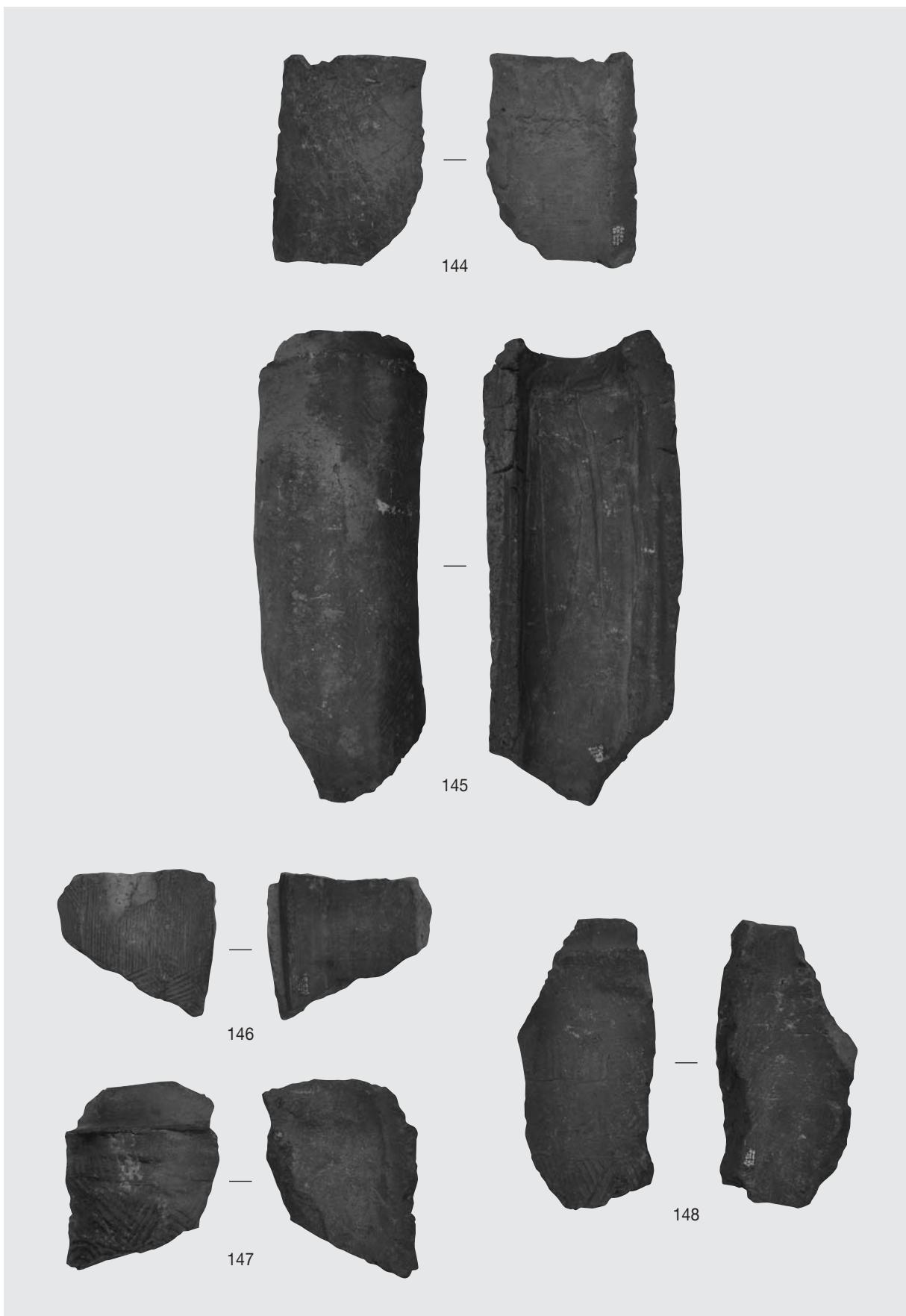
도판 54. 지표 수습유물(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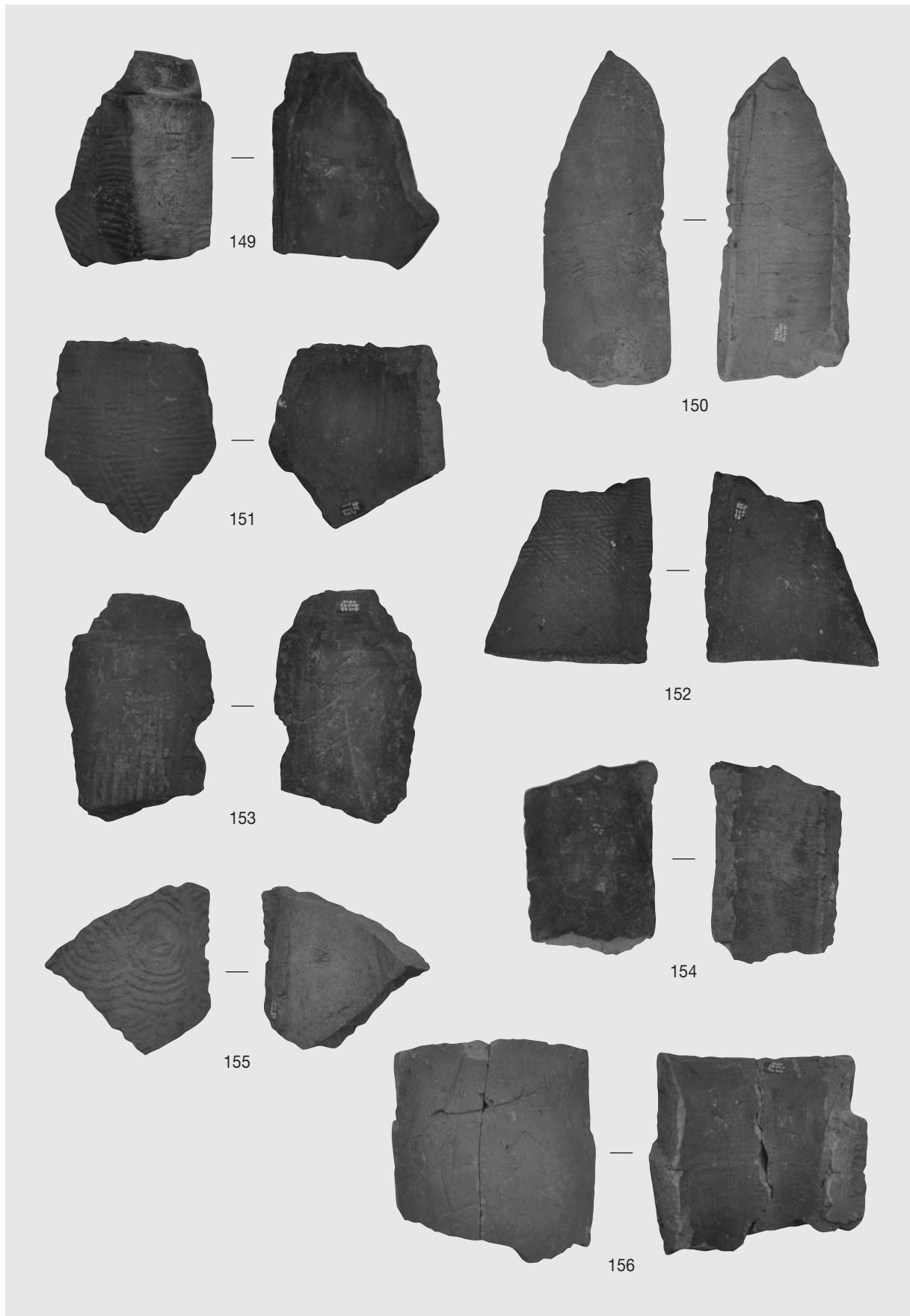
도판 55. 지표 수습유물(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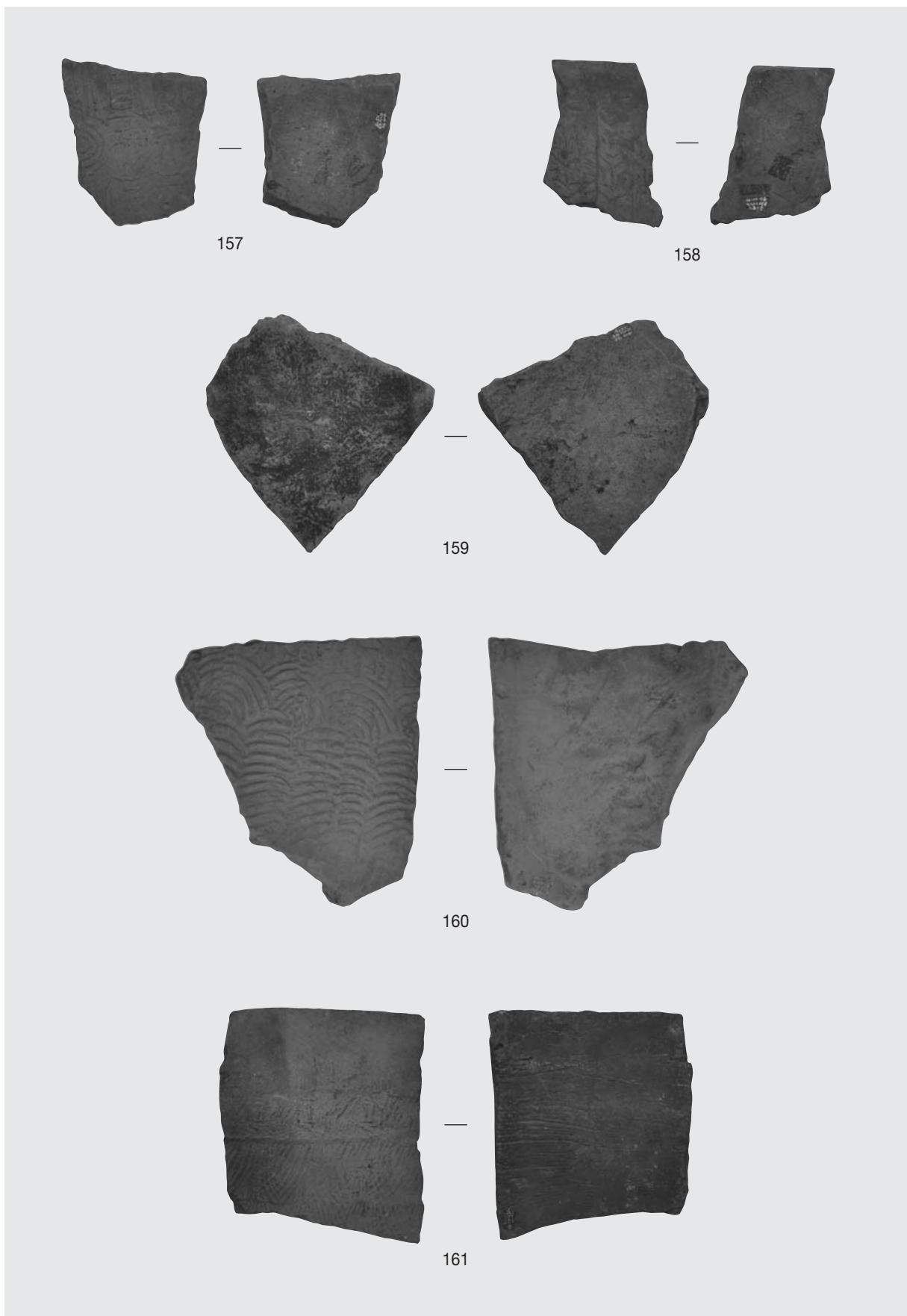
도판 56. 지표 수습유물(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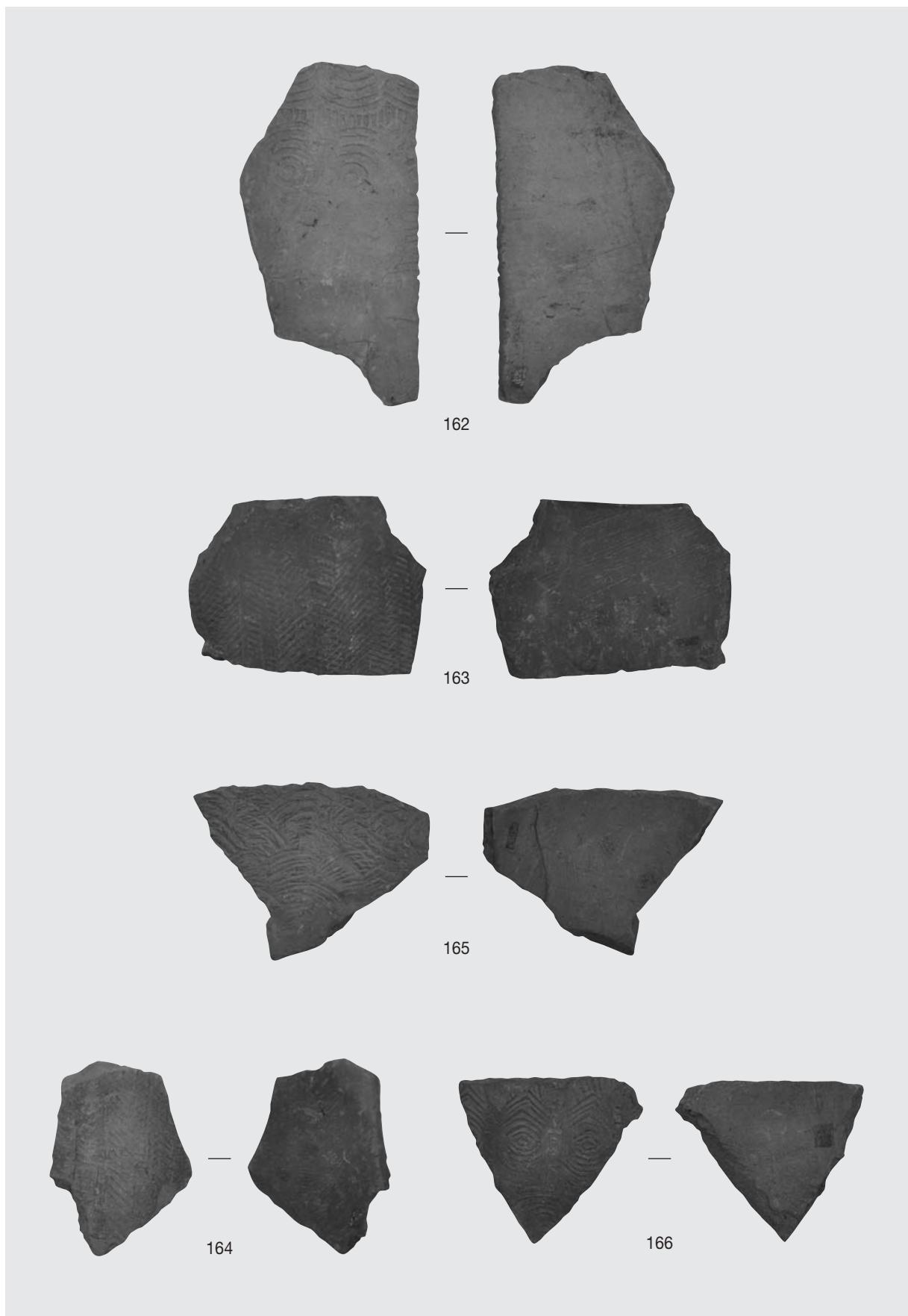
도판 57. 지표 수습유물(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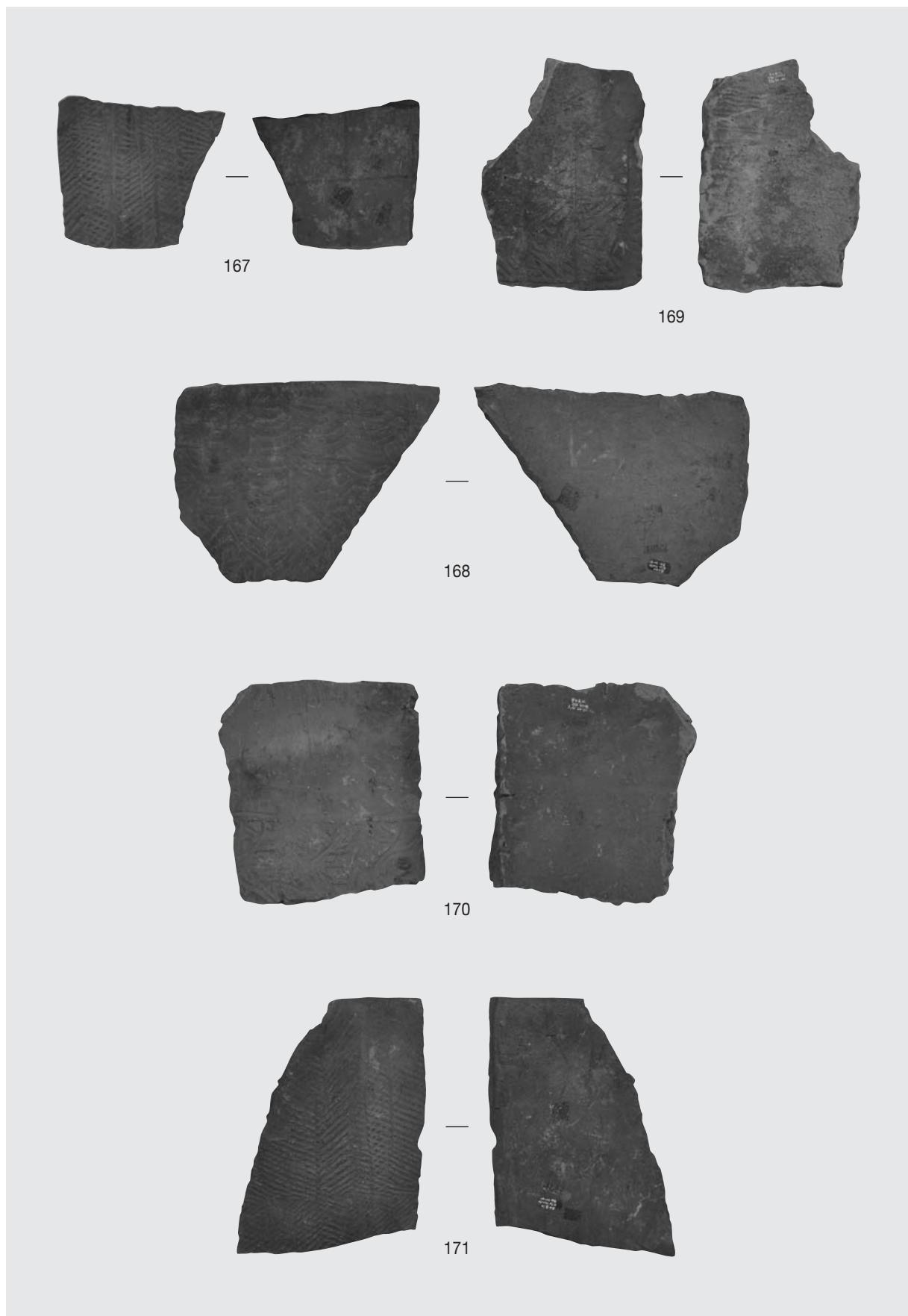
도판 58. 지표 수습유물(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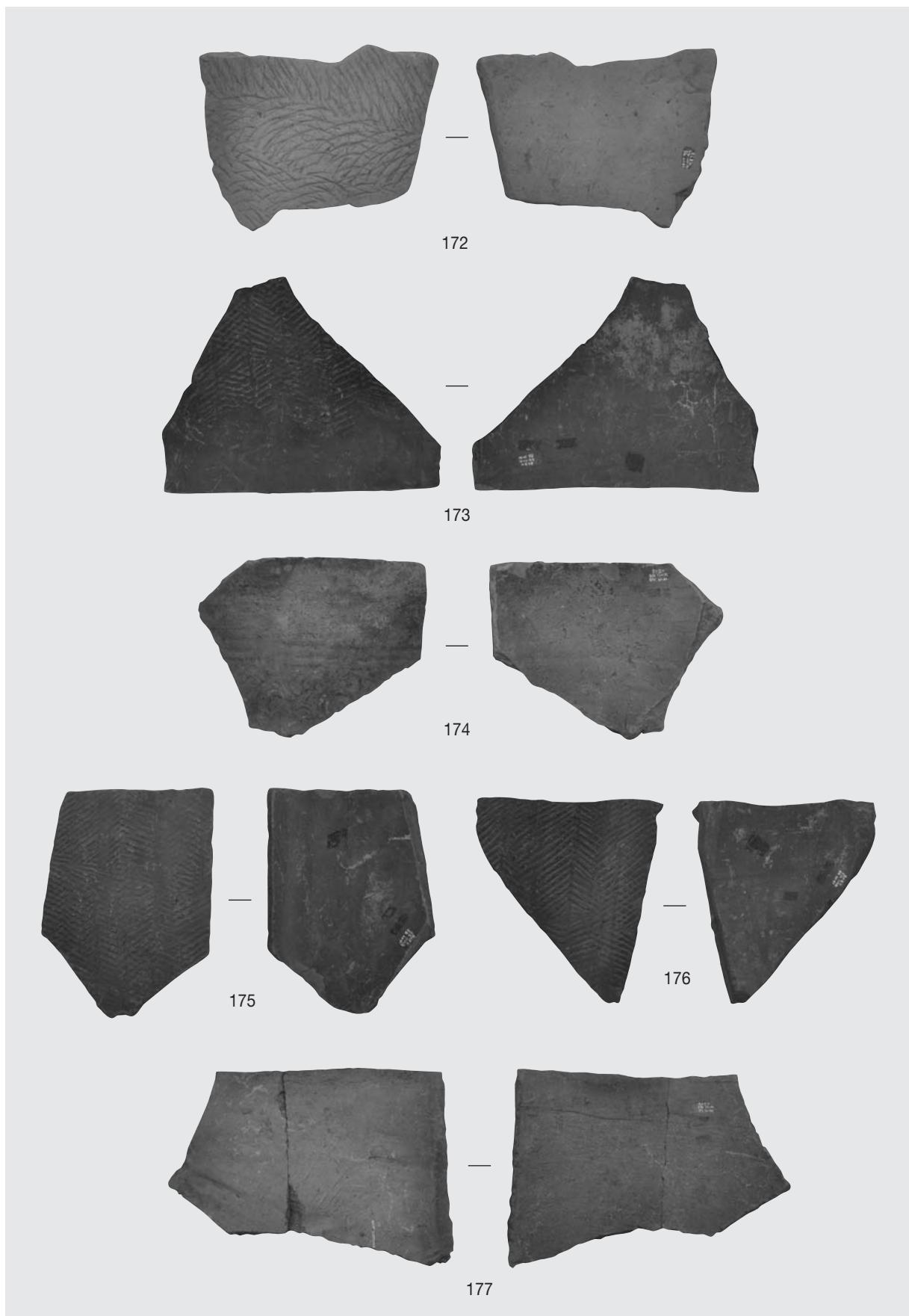
도판 59. 지표 수습유물(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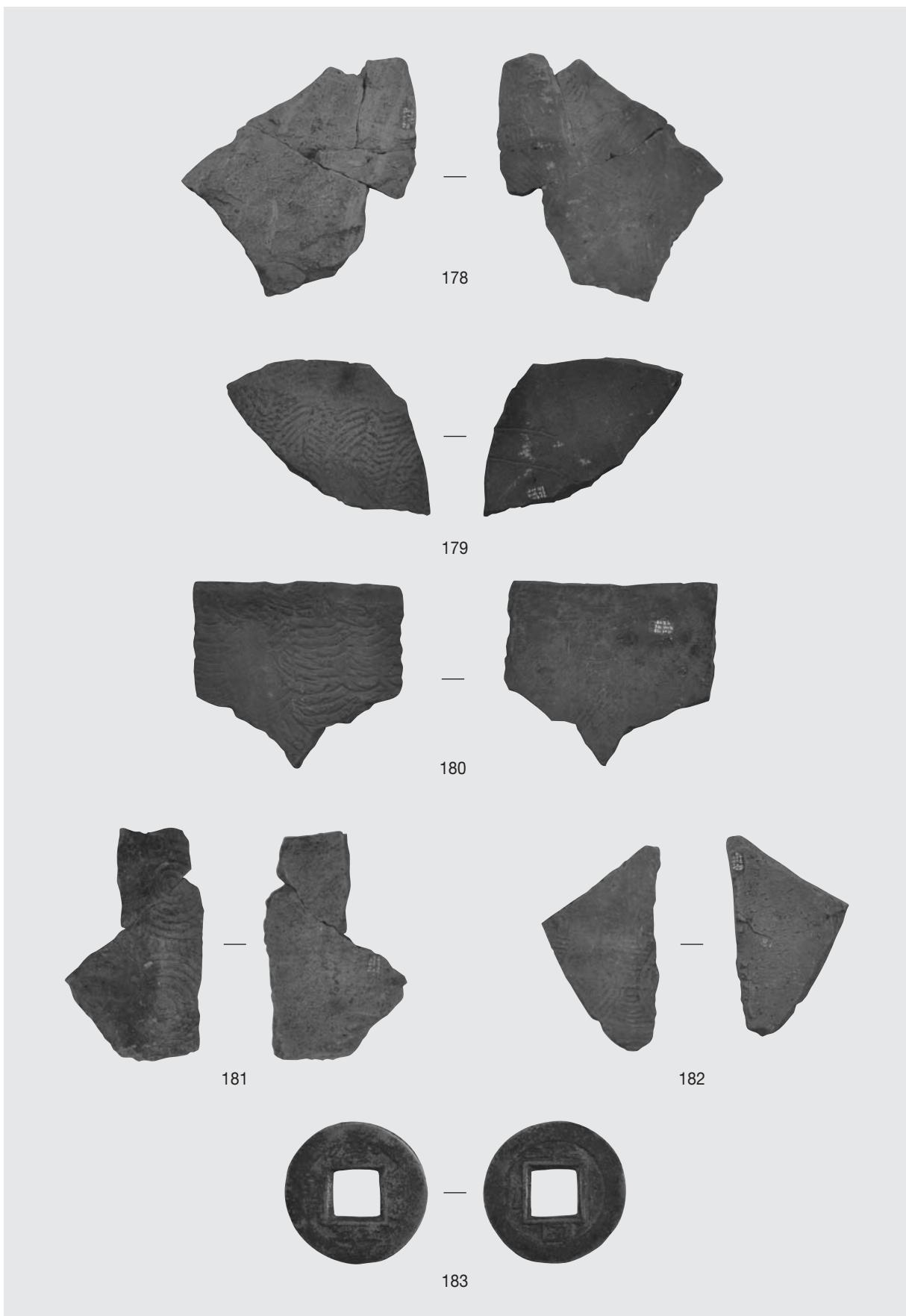
도판 60. 지표 수습유물(18)



도판 61. 지표 수습유물(19)



도판 62. 지표 수습유물(20)



도판 63. 지표 수습유물(21)

發掘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제주 성읍민속마을 관야 2차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旌義縣 官衙址			發刊日	2011年 2月 日
發刊機關	名稱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住所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700-7번지			
	TEL	(064) 712-8362~3	FAX	(064) 712-8361	
執筆・編輯者	김경주, 현승룡, 김동한, 강창룡				
調査緣由	제주 성읍민속마을 관야 2차 문화재 발굴조사(유적 보존정비)				
發掘調査者	고재원, 김경주, 현승룡, 임맹주				
所在地番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 809-3번지				
調査面積	3,333m ² (1010坪)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건물지	조선시대	5동			
부석시설	조선시대	1기			
적석시설	조선시대	1기			
와적시설	조선시대	2기			
건물지	근대	3동			

제주 성읍민속마을 관아 2차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旌義縣 官衙址

발행일 2011년 2월 일

편집 · 발행처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690-162 제주시 오라2동 700-7번지
TEL.(064) 712-8362~3 FAX.(064) 712-8361
인쇄 도서출판 각
제주시 건입동 89
TEL.(064) 725-4410 FAX.(064) 759-4410

이 책에 실린 모든 자료는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허락없이 무단
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